

1086-3

韓陽朱知事演說文選集

第 2 輯

忠 清 南 道

1-21
06
23V.2

韓陽洙知事演說文選集

第 2 輯



忠 淸 南 道





▲ 1988年 新年交禮會 (88. 1. 4)



▲ 内水面 養殖場 (保寧郡 青羅面 (88. 1. 29)



▲ 行政實績 優秀市郡 表彰 (88. 2. 5)



▲ 不遇公務員 激勵 (88. 2. 10)



▲ 行政行態의 民主化 實踐 다짐 教育 (88. 3. 23)



▲ 學研産 研究交流센터 建設工事 起工 (88. 3. 29)



▲ 제18회 忠清南道美術大展 施賞式 (88. 4. 23)



▲ 第13代 國會議員選舉 (大田市 大興洞 第2投票區 88. 4. 26)



▲ 第6回 全國演劇祭 參加劇團 歡迎리셉션 (88: 5. 19)



▲ 第23代 忠淸南道知事 離任式 (88. 5. 20)

發 刊 辭

온 나라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과苦痛이 팽배하여 매우 어려웠던 時期인 1987年 1月 5日 韓陽洙 知事님께서 故鄉 忠淸南道의 道知事로 就任하여 다음해인 1988年 5月 20日 離任까지의 在任 1年5個月 동안은 참으로 많은 試鍊과 激變이 소용돌이치고 또 隔世之感을 느끼게 했던 期間이었읍니다.

처음 就任하자마자 世人의 關心을 集中시킨 福祉施設問題로 야기된 狀況과 學生 騷擾에서 비롯된 社會的인 雰圍氣로 道政 推進上的 難關, 歷史에 그 類例를 찾을 수 없었던 暴雨, 人間이 堪耐할 수 있는 忍耐의 限界와 再起를 試驗하는 것 같이 錦江流域에 集中된 大洪水가 네 차례나 거듭되었습니다.

그 안타깝고 阿鼻叫喚으로 일룩진 水害의 應急復舊를 마치고 한숨 돌리는가 했을 때 분출되기 시작한 勞使紛糾의 熱氣는 地域社會 全體를 큰 걱정으로 채웠으며 이어진 五大洋事件과 兩大 總選舉로 밤을 지새워나간 것이 지난 날에 대한 우리 모두의 벽찬 感懷입니다.

이러한 渦中에서도 韓陽洙 知事님은 스승 尊敬풍토의 造成, 忠南道 工業化를 위한 農工團地 造成의 拍車, 西海岸 開發時代를 위한 計劃 등 道政에 있어서도 큰 획을 그은 극복과 前進의 道政이었읍니다.

이처럼 다가온 試鍊을 이겨내면서도 알차게 推進하고 거둔 道政에 대하여 韓 知事님은 離任辭에서 1年半 동안의 變化가 10年에 버금하는 變化의 感懷를 느낀다고 술회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發刊된 演說文選集 第1輯에 이어 이 조출한 冊子가 試鍊과 克服으로 빛어낸 알찬 道政의 永遠한 記錄으로 삼고자 합니다.

1988. 12. .

忠淸南道副知事

한 청수

차례

1988 年	1 月	1 日	1988 年 新年辭	19
"	"	4 日	1988 年度 始務式 式辭	20
"	"	4 日	1988 年 新年交禮會 新年賀辭	23
"	"	10 日	忠南大學新聞 掲載 새해인사	25
"	"	15 日	忠清南道教育委員會 懇談會 인사	28
"	"	15 日	傳統粧器・茶器 展示會 祝辭	30
"	"	18 日	大田市 西區廳 開廳式 致辭	32
"	"	23 日	第 34 回 世界 自由의 날 記念行事 致辭	34
"	"	29 日	청석修練院 마을後繼指導者 教育 致辭	36
"	2 月	5 日	2 月 月例朝會 訓示	40
"	"	9 日	1988 年 忠清南道淨化推進協議會 定期總會 인사	45
"	"	13 日	市・郡, 道事業所 建設關係官會議 訓示	48
"	"	15 日	大田市 交通整備 基本計劃 樹立에 관한 研究結果 報告會 致辭	50
"	"	22 日	農業協同組合員 子女 獎學金 授與 激勵辭	52
"	"	23 日	第 23 回 看護協會 忠南支部 定期總會 祝辭	54
"	"	24 日	택시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 祝辭	56
"	"	26 日	在鄉軍人會 定期總會 祝辭	59
"	"	27 日	忠清南道韓醫師會 第 35 回 代議員 定期總會 祝辭 ...	61
"	"	29 日	3.1 節 紀念 烽火祭 致辭	64
"	3 月	2 日	3 月 月例朝會 訓示	66
"	"	2 日	ROTC 任官式 激勵辭	71

1988 年	3 月	4 日	1988 年度 大田地域 공장새마을 前進大會 激勵辭··	73
"	"	6 日	道內 企業體長 및 有關團體長에게 보내는 書翰 ···	76
"	"	7 日	反共聯盟 運營委員會議 인사 ·········	78
"	"	10 日	개인택시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 祝辭 ·······	80
"	"	11 日	第 32 回 버스組合 定期總會 祝辭 ·········	83
"	"	11 日	忠淸南道老人聯合會 定期總會 祝辭 ·······	86
"	"	11 日	새마을운동 市·郡會長團 懇談會 인사 ·······	88
"	"	16 日	第 18 回 京湖驛前 마라톤대회 인사 ·······	91
"	"	16 日	忠淸南道醫師會 第 39 回 代議員 定期總會 祝辭····	93
"	"	16 日	女性團體聯合會 定期總會 祝辭 ·········	96
"	"	17 日	溫陽市 - 洞事務所間 FAX 施設 開通에 즈음한 맺시지 ·····························	98
"	"	18 日	印度 大使 禮訪 인사 ···················	99
"	"	19 日	忠淸南道青年指導者聯合會 定期總會 祝辭 ·······	101
"	"	21 日	새시대 公職者의 姿勢 特講 ·············	103
"	"	23 日	行政行態의 民主化實踐 다짐教育 訓示 ·······	110
"	"	23 日	道內 機關長, 企業人에게 보내는 書翰 ·······	114
"	"	23 日	在釜 忠友會報 創刊 祝辭 ·············	117
"	"	25 日	大韓電氣協會 忠南支部 定期總會 致辭 ·······	119
"	"	25 日	忠南體育會 代議員總會 인사 ···········	121
"	"	29 日	第 6 回 忠淸南道演劇祭 激勵辭 ···········	124
"	"	30 日	“해돋는 한밭” 出版 紀念會 祝辭 ·········	126
"	"	30 日	忠淸南道開發委員會 定期總會 인사 ·······	128
"	"	30 日	第 6 回 忠淸南道演劇祭 施賞式 激勵辭 ·······	130
"	"	31 日	大韓專門建設協會 忠淸南道支部 第 3 回 定期總會 祝辭 ·····························	132
"	4 月	1 日	4 月 月例朝會 訓示 ···················	134

1988 年	4 月	2 日	第 20 周年 豫備軍의 날 紀念式 式辭	138
"	"	6 日	道政諮問委員會 全體會議 인사	140
"	"	7 日	第 16 回 保健의 날 紀念辭	143
"	"	8 日	聯合電線株式會社 工場移轉 竣工式 祝辭	146
"	"	10 日	“ 위민충남 ” 冊子發刊 發刊辭	148
"	"	10 日	忠清南道文藝振興委員會議 인사	149
"	"	13 日	反共安保決議大會 激勵辭	151
"	"	13 日	韓南大學校 開校紀念 學術심포지움 祝辭	153
"	"	13 日	韓南大學校 開校紀念 學術심포지움 리셉션 인사 ...	156
"	"	15 日	1988 年度 汎道民交通安全 促進大會 致辭	158
"	"	19 日	第 28 周年 4.19 記念行事 紀念辭	161
"	"	19 日	水害復舊 早期完了 및 營農準備에 대한 당부書翰...	163
"	"	19 日	第 18 回 忠清南道美術大展圖錄 發刊 激勵辭	165
"	"	20 日	第 8 回 장애자의 날 激勵辭	167
"	"	20 日	蠶種場 竣工式 激勵辭	169
"	"	22 日	韓國 4H 聯盟 忠南道支部 會員大會 祝辭	171
"	"	23 日	第 18 回 忠清南道美術大展 施賞式 激勵辭	173
"	"	23 日	弘益大學校 鳥致院 캠퍼스 起工式 祝辭	175
"	"	24 日	保健 診療員 精神教育 特講	177
"	"	25 日	第 13 代 國會議員 總選에 즈음한 談話文	193
"	"	28 日	1988 年 忠清南道地方技能競技大會 激勵辭	195
"	5 月	2 日	5 月 月例朝會 訓示	197
"	"	2 日	第 25 回 法の 날 紀念辭	201
"	"	2 日	“ 범죄없는 마을 ” 懸板式 激勵辭	203
"	"	3 日	市長・郡守會議 訓示	205
"	"	4 日	1988 年 忠清南道地方技能競技大會 施賞式 祝辭	210
"	"	4 日	서울올림픽 大田蹴球競技本部 發足式 인사	213

1988 年	5 月	7 日	第 11 回 全國主婦教室會員 親善運動會 致辭	217
"	"	9 日	第 16 回 어버이 날 記念辭	219
"	"	11 日	忠南開發賞 施賞式 祝辭	221
"	"	13 日	第 7 回 스승의 날 記念式 激勵辭	223
"	"	14 日	國際라이온스協會 309 E 地區 第 11 回 年次大會 祝辭.....	226
"	"	17 日	第 13 回 道民 募金 걷기大會 朝食모임 激勵辭.....	228
"	"	18 日	第 18 回 全國工藝品競進大會 忠清南道地方豫選大會 施賞式 致辭.....	230
"	"	18 日	西海岸 時代의 開幕과 忠南의 座標 特講	232
"	"	19 日	第 6 回 全國地方演劇祭 리셉션 인사	240
"	"	20 日	第 6 回 全國地方演劇祭 歡迎辭	242
"	"	20 日	第 23 代 忠清南道知事 離任式 離任辭	244
"	"	20 日	離任 인사書翰.....	247

1988年 新年辭

1988년 1월 1일

新 年 辭

300萬 道民 여러분!

우리에게 부푼 期待와 希望을 안겨주는 戊辰年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이 所望의 새 아침에 道民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計劃하신 한햇동안의 모든 일 所願成就하시고 榮光이 가득 찬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今年은 道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歷史上 처음으로 平和的 政府移讓과 서울올림픽의 成功的인 開催를 바탕으로 더한층 先進國家의 基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國運의 上昇을 마음껏 뒷받침하는 道民이 되기 위하여 總和團結된 모습을 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슬기와 力量을 한데 모아 國家의 繁榮에 獻身하고 내 고장 發展에 앞장서 나갈 것을 이 새 해 아침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 한 해가 보람과 成就로 가득하기를 期待하면서 道民 여러분의 健康과 幸運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8年度 始務式

1988년 1월 4일

式 辭

새로운 所望과 부푼 期待 속에 1988年の 始發點에 서있습니다.

새 해를 맞이하여 1萬8千餘 傘下公務員, 그리고 300萬 道民 여러분의 家庭에 今年 한 해 동안 내내 健康과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 해에는 정말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公務員 여러분의 獻身的인 努力과 300萬 道民들의 積極的인 參與로 道政史에 길이 남을 많은 業績을 남겼습니다.

새 해를 맞으며 다시한번 지난 날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보냅니다.

今年 2月에는 國家的으로 40年 憲政史에 처음으로 平和的인 政府移讓과 새 共和國의 出帆이 있을 것이며, 9月 17日부터 10月 2日까지 온 世界人의 和合의 祝典인 서울올림픽의 開催로 世界 속의 韓國으로 크게 浮刻될 뿐만 아니라 發展과 跳躍의 決定的인 轉機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한편 27年만의 地方自治制 實施로 實質的인 地方化時代를 열게 되고, 對中共과의 交易擴大를 推進하기 위한 西海岸時代의 開幕에 對備해 나갈 基盤造成事業들을 着實하게 推進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政府의 經濟運用計劃을 보면 國民總生産은 1,200億弗, 1人當 GNP 3,300弗, 輸出 520億弗, 輸入은 496億弗에 이르러, 貿易規模가 무려 1,000億弗을 突破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今年은 民主化라는 새 時代의 開幕과 더불어 國力の 伸張과 함께 한국의 國際的 位置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地域的인면으로는 80年 以後 지난 7年間이 國土의 中核地域으로 浮上한 時代라고 한다면 今年은 2,000年代를 향한 先進基盤을 構築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해에 確定된 中部圈 開發計劃의 着手, 西海岸時代 開幕에 對備한 前進基地의 開發着手, 國家의 中樞機能 受容力 提高를 위한 大田大都市圈 開發의 本格的인 推進, 300萬 道民의 젓줄인 錦江綜合開發計劃의 발주 등 實로 거듭나는 忠南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國內外的 與件과 狀況을 살펴보면 大統領選舉 過程에서 깊게 패인 階層間, 地域間, 世代間의 葛藤과 對立을 하루속히 治癒하여 和合을 통한 政局安定을 이룩하여야 하며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일고 있는 民主化와 自律의 바람을 타고 噴出될 多様な 欲求 收斂과, 그동안 不均衡成長에 따른 均衡配分問題 등 안으로 解決해야 할 時急한 課題가 山積해 있으며, 또한 밖으로는 美國의 달러 弱勢와 保護貿易의 強化로 輸入開放이 不可避한 實情일뿐 아니라 賃金上昇에 따른 對外競爭力 弱화로 輸出의 어려움이 豫想되며, 서울올림픽 開催를 妨害할려는 北傀의 挑發策動이 그 어느 때 보다는도 增加될 것이 豫想되는 등 國運上昇의 進路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豫想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內外的 挑戰과 試鍊을 克服하고 民主發展과 서울올림픽의 成功的 開催로 大跳躍의 轉機를 期必코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道政의 方向은 民意를 바탕으로 한 民主行政의 實踐과 低所得層 爲主의 社會福祉行政, 그리고 疎外地域 中心의 開發行政을 積極 推進하여 民主 새 時代가 志向하는 普通사람의 時代를 열어 나가는데 焦點을 맞추어 나가되, 무엇보다도 重要な 課題는 道民和合과 地域安定을 이룩하여 새로이 出發하는 새 政府가 民主發展과 經濟成長,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成功的으로 開催할 수 있도록 地方的인 뒷받침을 하는데 道政의 最優先의 課題로 하여 모든 力量을 結集시켜 나가며, 또한 바로 다가오는 總選과 地方議會 議員選舉 등 政治日程과 今年부터 全國的으로 施行되는 農漁村 醫療保險制度和 勤勞者 年金制度를 着實하게 定着시키고, 아울러 低所得層에 대한 積極的인 保護事業을 持續的으로 推進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農村工業化施策, 觀光開發, 百濟文化圈開發, 農漁村의 生産基盤 擴充, 文

化・體育振興에 이르기까지 모든 分野가 均衡되게 發展할 수 있도록 加一層의 努力을 傾注하고, 地域開發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各種 中長期計劃과 連繫하여 실효성있게 推進하여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時刻에 우리 忠南道政의 巨大한 배는 이제 막 港口를 出發했습니다. 目的地까지 到達하는 동안에는 暴風雨나 사나운 波濤없이 맑은 날씨 속에 順航만 하리라고는 豫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障礙가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覺悟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能히 克服할 수 있다는 自信感和 勇氣를 가지고 머지않아 出發하게 될 새 共和國을 이끌어 나갈 主役으로서 300 萬 道民에게 아낌없는 奉仕와 地域發展을 위하여 獻身할 것을 다같이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 出發합시다.

感謝합니다.

1988年 新年交禮會

1988년 1월 4일

新 年 賀 辭

뜻깊은 새 해 1988年을 맞으면서 새 出發을 다짐하는 자리에 나와서 新年賀禮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榮光스럽고 보람찬 새 해를 맞아 이 자리에 나오신 各級 機關長님과 來賓 여러분, 그리고 300萬 道民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成就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분들의 指導와 協助, 그리고 300萬 道民들의 積極的인 參與로 國家的으로는 40年 憲政史上 처음으로 與野合議에 依하여 改定된 憲法에 따라 16年만에 우리손으로 大統領을 選出, 平和的인 政府移讓이라는 歷史的인 課業의 實現을 보게 되었고, 또한 歷史的인 獨立記念館 開館으로 民族의 自尊과 矜持를 한층 드높였으며 中部高速道路의 開通으로 中部圈의 開發을 加速化시키는 한편 經濟面에 있어서는 12%의 驚異的인 成長率과 460億\$의 輸出, 98億\$의 經常收支黑字를 記錄하는 등 自立成長의 基盤을 確固히 다졌습니다.

地域的으로 未曾有의 水害를 당하였으나 政府와 온國民의 聲援으로 轉禍爲福의 契機가 되었고, 農村工業化施策의 積極推進과 오랜 宿願이던 공주대교와 황산대교의 가설, 220 km에 달하는 地方道の 鋪裝事業推進 등 地域開發事業을 活潑히 推進하는 한편, 低所得層과의 姊妹結緣, 스승尊敬運動 등을 통하여 300萬 道民의 和合을 이룩하는데 크게 寄與한 바 있습니다.

今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憲政史上 처음으로 平和的인 政府

移讓과 새 共和國의 出帆, 그리고 머지않아 實施될 總選과 地方議會議員 選舉 등의 政治日程이 있고, 9月 17日부터 實施되는 서울올림픽大會의 成功的인 開催와, 今年度 經濟運用 目標인 經濟成長率 8%와 1人當 GNP 3,300\$, 그리고 520億\$의 輸出目標을 達成하여야 하며, 또한 올해부터 實施하는 826萬名의 農漁村 醫療保險實施와 430萬名의 國民年金制度를 着實하게 定着시켜야 하는 등 榮光스럽고도 棘찬 課題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우리 道政의 課題는 지난 해 大統領選舉 過程에서 빚어진 階層間, 地域間, 世代間의 葛藤과 反目을 하루속히 治癒하여 道民和合과 地域安定을 이룩하고, 또한 온 인류의 평화제전인 서울올림픽 準備를 完璧하게 하는 同時에 올해는 특히 道政의 基調를, 民意를 바탕으로 하여 그늘진 곳을 고루 살피고, 開發이 未洽한 地域을 중점적으로 開發하여 300萬 道民 모두가 成長의 惠澤을 고루 입을 수 있는 方向으로 推進하면서 지난 12월에 確定된 中部圈 綜合開發計劃과 中共과의 貿易擴大推進에 따른 西海岸時代 開幕의 對備, 그리고 錦江綜合開發計劃의 推進 등 2,000年代 先進基盤을 着實히 構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傘下 1萬8千餘 公職者와 300萬 道民은 힘을 합하고 슬기를 모아 忠南開發의 年代를 맞아 힘껏 일하고 무한히 奉仕하는 한 해가 되도록 最善을 다할 覺悟입니다.

여러 機關長님 그리고 來賓 여러분!

이러한 國家의 課題와 우리 地域이 이룩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아낌없는 聲援과 參與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機關長님들과 來賓 여러분께서 設計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成就되시고 家庭에 幸運과 神의 加護가 있으시기를 거듭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8년 1월 10일

새 해 인사

戊辰年の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奧妙한 大自然의 섭리에 따라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밝아오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이 시점에 서있는 나 自身과 國家와 民族이라는 共同運命體에게 주는 歷史的인 의미와 과제는 자못 벽찬 반면에 期待 또한 큼니다.

새로운 所望이 가득한 이때 우리의 母校 忠南大學校에서 知性을 닦는 在學生, 그리고 教授, 教職員 同門 등 모든 忠大人에게 幸運과 榮光이 있기를 祈願해 마지않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이 한 해는 永遠에서 永遠으로 이어지는 時間과 空間이 교차하는 단순한 일년의 意味를 넘어서 우리에게 激動과 試鍊, 보람과 結實을 함께 안겨 준 80年代를 마무리하면서 90年代의 成熟과 繁榮의 씨를 뿌리는 所重한 해가 될 것입니다.

歷史의 輪판을 도도하게 흐르는 世界史의 推移를 보더라도 그동안 尖銳하게 對立하고 相衝했던 理念과 體制의 葛藤時代가 退潮하면서 새로운 民族과 國家主義의 색채가 드러나는 조짐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轉換期의 時代에는 이제까지 관행돼 오던 모든 秩序와 交流와 紐帶가 瓦解되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또 역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그러한 變化들이 지금 目擊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極東의 변화가 國際社會 變動의

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中共의 變化에 銳意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어제의 敵도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오늘의 친구도 버리는 냉정하고 實利的인 傾向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世界情勢의 흐름과 影響이 시시각각으로 變化하고 國家社會는 물론 우리들 個人的 生活에 미치고 있다는 점이 매우 重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國民所得 3,000 \$ 時代에 突入한다는 自慢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치열한 競爭에서 이겨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與件과 展望아래서 우리는 地域的으로나 國家的으로 지금 부푼 期待와 希望을 걸고 있는 西海岸의 時代에 對備하고 設計함이 마땅할 것이며 이 西海岸 時代의 前哨基地가 바로 우리 地域社會가 아닌가 하는 歸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않아도 오래 전부터 國家發展의 核心 地域으로 各광을 받으며 急速한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고장입니다.

이 期待와 關心을 모으는 地域社會에서 모든 學問과 知性的 本산으로서 지난 한 世紀에 걸쳐서 수 많은 人材와 指導者를 輩出한 우리 忠大의 오늘날 役割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윤곽이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母校에서 꿈과 이상을 키운 同門들이 故鄉에서 全國 各處에서 그리고 海外에서 열심히 努力하고 成功하므로써 母校를 빛내고 있습니다만 어느곳보다도 이 地域社會에서 活躍하는 同門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떠한 組織이나 生命력을 가진 團體도 그 生命력과 發展을 위해서는 뿌리가 있듯이, 우리 忠南大學의 뿌리와 基盤은 무엇보다도 母校가 所在한 地域社會 同門들의 힘찬 活動과 役割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地域社會와 國家를 活氣차게 이끄는 指導者의 養成과 그 活動, 그리고 地方時代를 能動的으로 여는데 主導的 役割을 하는 意識과 價値의 선도 그리고 實踐이 매우 必要한 時點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先進社會로 가는 마당에서 中央과 地方이라는 概念이 좁혀지거나 稀薄해질 것으로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옳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惹起된 모든 問題들이 分散되고 平準化되는 過程과 그 成就가 곧 先進社會의 참뜻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母校가 있는 이 고장의 發展이 보다 가속력을 갖고 더욱 活氣찬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忠大人들이 앞서 나갈 때, 母校와 우리 同門들은 더 큰 自負와 矜持 그리고 傳統을 빛낼 것입니다.

나의 周邊과 이웃, 地域社會를 떠나서 겨레와 歷史 앞에 寄與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挑戰 속에 成就의 보람과 結實을 約束합니다.

感謝합니다.

1988년 1월 15일

인 사

戊辰 새 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보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本道 教育委員으로 일하게 되신 元老 教育者 여러분에게 祝賀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고장의 教育界를 위해서 高見과 더불어 많은 指導를 해 주시고 또 後進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햇동안 이 고장 2世 教育을 위해서 獻身하고 心血을 기울여 주신 張基成 教育監님을 비롯하신 道教委 幹部님, 實務者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慰勞와 더불어 敬意를 표합니다.

教育監님을 비롯하신 이 고장 教育界가 애써 努力한 結果 지난 한 해 큰 發展이 있었다고 봅니다.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번에 全國 大學의 進學率을 보면, 우리 忠南 出身 入試生들이 작년보다 越等한 成績을 올린 것을 보아도 우리 고장 教育이 얼마나 向上됐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나하는 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教育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만 잘 하도록 가르칠 수 없는 것이기에 入學試驗成績이 좋으니 다른 것이 모자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가 잘 된 것 중에서 于先 한 가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넓게 생각하면 선생님이나 學生들이 열성껏 가르치고 배웠지만 우리 고장

의 教育的 雰圍氣도 좋아졌다는 結果가 되겠습니다.

2世 教育이란 學校, 家庭, 社會的 環境이 三位一體가 돼서 工夫하고 人格이 다듬어질 수 있는 雰圍氣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本人은 옛날에 教壇에 섰던 향수와 애정에서 출발한 “스승 尊敬運動”을 展開하고 이를 道民 모두와 教育界로부터 呼應을 받은 바 있습니다.

本人이 道知事로서 道教育委員會의 議長이라는 依例的인 職責보다는 정말로 教育에 대한 關心과 愛情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새로 教育委員의 重責을 맡으신 教育委員님 그리고 教育監님을 비롯하신 元老 선생님들이 모두 제 個人的으로 先輩되시고, 또 同僚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隔意없는 期待와 協助위에 이 地域社會가 教育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 해 첫 會議의 人事에 代身합니다.

感謝합니다.

傳統粧器·茶器 展示會

1988년 1월 15일

祝 辭

오늘 太平洋化學 附設 博物館에서 所藏하고 있는 우리의 傳統 花瓶容器, 그리고 茶器와 裝身具의 展示會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先人들의 體臭와 숨결이 어린 이 所重한 展示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옛날의 生活 文化와 審美眼, 멋과 풍류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生活 文化의 用品들은 우리의 傳統社會의 一般的이고 實質적으로 庶民이나 中流程度の 百姓들이 널리 使用한 日常品이라는 점에서 더욱 親近感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뜻있는 展示會를 大田에서 開催해 주신 安世永 사장님, 그리고 大田日報社에게 感謝드리며, 이를 뒷받침해 주시고 展示物을 제공해 주신 太平洋化學 사장님을 비롯하신 社友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드립니다.

또 이를 後援해 주시는 여러 言論社와 여러 人士들께도 感謝드립니다.

이 展示會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祖上들의 叡智와 격조높은 生活文化와 民俗을 더욱 깊고 親熟하게 理解하고 간직하는 계기가 되기를 期待합니다.

“뿌리깊은 나무가 보다 번성한 잎을 피울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先人들의 傳統文化를 뿌리로 하여 오늘 우리 世代의 文化를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近者에 太平洋化學에서 우리의 傳統 茶文化의 大衆化運動이나 體系的인 生活文化 博物館의 建立 등은 企業이 이 社會와 國家發展에 어

떻게 寄與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일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깊지 못한 歷史와 한수 아래의 文化를 가진 나라와 民族도 오늘날 그들 文化의 體系있는 研究, 保存, 開發에 心血을 기울이는 것, 우리는 反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보다 몇배의 깊고 넓고 빛나는 文化를 가진 우리가 그 研究와 宣揚에 疎忽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文化와 藝術이 주로 上流層이나 治者中心의 傳統文化에 대한 關心이나 研究에서, 보다 一般的이고 普遍的인 庶民文化의 發掘과 保存이 所重할 것으로 보면서 오늘 이 展示會를 歡迎하고 많은 사람들의 觀覽과 理解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展示會를 祝賀합니다.

大田市 西區廳 開廳式

1988년 1월 18일

致 辭

오늘 우리의 오랜 宿願이었던 大田市 西區廳이 發足하면서 그 開廳式을 이처럼 갖게 된 것을 먼저 自祝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開廳式이 있기까지 그동안 너무 肥大하고 廣闊한 行政區域의 分區를 위해서 配慮를 해주신 內務部長官님과 關係官 그리고 여러모로 애써주신 이 고장 출신 國會議員이신 姜昌熙 議員님과 여러 인사들, 각계의 聲援에 대하여 먼저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日字로 이미 發足이 되고 또 오늘 實質的으로 業務가 開始되는 이 西區廳은 管轄 行政需要로 보나 수용인구를 勘案하더라도 發展的인 分區는 매우 說得力있는 요청을 바탕으로 꾸준히 推進해 왔던 努力이 마침내 結實을 본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西區廳의 發足은 또 大田直轄市의 昇格을 앞두고 그 實質的인 基盤의 造成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意味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市民들이 새로운 期待와 希望 속에 發足되는 西區廳이 既存 儒城出張所와는 별도로 이 大田市가 지니고 있는 發展의 素地와 開發의 底力을 發揮하게 되었다는 점이 또한 우리의 큰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大田直轄市의 昇格과 더불어 우리 大田의 西北部 地域은 또 한번 擴大發展의 機會가 있을 것으로 期待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 大田을 中心으로한 우리 고장은 이제 名實相符하게 國家

發展의 中樞機能을 擔當하는 巨大한 中核都市로서 活氣찬 새모습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고장은 예로부터 首都라는 말과 큰 인연을 맺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公州나 扶餘가 百濟의 都邑이었다는 事實말고도 李朝의 開國과 함께 왕궁의 주춧돌까지 다듬었던 신도안이며, 6.25의 戰亂中에서도 비록 짧기는 하지만 임시수도의 명칭, 그리고 70年代 初부터 第2의 行政都市 候補地로서 물망에 올랐던 事實과 오늘날 수도 서울의 비대한 機能의 役割分擔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政府의 2次 行政機關이나 其他 主要機能이 繼續하여 이곳 大田으로 옮겨질 것이 分明합니다.

오늘 이 西區廳의 開廳式을 契機로 해서 우리 大田市民은 市政發展에 보다 積極的으로 參與해 주셔야 마땅할 것이며, 公務員들은 더욱 열심히 市民과 市政을 위해 獻身奉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區廳의 業務開始는 하나의 到達이나 成就가 아니라, 始作이요 出發임을 우리모두가 銘心하고 새로운 기분, 活氣찬 모습으로 일해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有關機關과 이 地域人士 여러분의 聲援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開廳式이 있기까지 東奔西走해온 金容聲 市長을 비롯한 公務員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합니다.

感謝합니다.

第34回 世界 自由의 날 記念行事

1988년 1월 23일

致 辭

오늘 서른네돌을 맞이하는 世界 自由의 날에 즈음하여 먼저 人間의 尊嚴性과 自由의 참뜻을 世界萬邦에 떨쳤던 反共·愛國勇士 여러분의 決然한 意志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激勵하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年前 오늘, 여러분은 人間을 오직 共產主義革命的 道具와 手段으로 삼는 그들의 欺瞞과 虛構性, 그리고 非情한 共產世界를 白日下에 暴露한 感激은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여러분이 共產治下로 되돌아 갔다면 6.25라는 民族相殘이 이른바 民族解放의 聖戰이라는 그들의 主張에 더욱 氣高萬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北韓 共產黨의 人間과 實體를 잘 알고 뼈저리게 體驗한 여러분이 自由大韓의 품에 안김으로써 저 金日成 集團의 非人道的인 體制, 反民主的인 戰爭, 그리고 悠久한 民族史에 대한 反逆이 萬天下에 뚜렷이 告發되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한 世代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저들은 추호의 뉘우침도 없이 제 2의 6.25를 劃策하기에 血眼이 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經濟規模나 國力이 우리 自由大韓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면서 軍事力은 우리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모든 社會와 軍事體系를 南侵 攻擊企圖로 集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옛날 自由의勇士들이 죽음과 自由의 兩者擇一 앞에서 自由를 選擇한 그

勇氣를 오늘에 되살리는 뜻도 이러한 저들의 計劃을 粉碎하는데 앞장서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由와 愛國을 實踐한 勇士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未完의 平和에 放心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저 北韓 共產集團의 野慾 앞에 挑發의 機會를 주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해 秋夕날 새벽 家族의 품을 떠나 고기를 잡는 非武裝 漁船을 擊沈시킨 저들의 蠻行을 記憶할 것입니다.

또 大韓航空旅客機를 爆破하여 한핏줄의 無辜한 民間人 115名을 앗아간 犯罪者가 그 누구인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放心하지 말고 저들의 凶計, 저들의 野慾을 銳意 注視하면서 平和的 政府移讓과 서울올림픽을 成功시켜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國力 앞에 그리고 世界의 輿論과 歷史의 順理 앞에 두 무릎을 꿇고 平和와 共存, 民族의 재결합이라는 卓子 앞에 분명히 얼굴을 들 것입니다.

우리모두 이 순조로운 國運의 上昇에 더욱 精進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이 自由의 날을 기리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청석修練院 마을後繼指導者 教育

1988년 1월 29일

致 辭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무슨 計劃을 세우고 여러분이 教育을 받으시는데 온 것은 아니고 어제 오늘 이쪽에서 계속 行事が 있어서 오는 길에 제가 들으니까 여기서 教育을 받으시고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틈을 내봤습니다.

또 우연히 鄭石謨 前 內務部長官님과 통화의 기회가 있어서 電話를 하는데 論山地域의 被教育者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鄭石謨 前 長官님은 內務部에서 제가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또 論山에서 여러 가지 地域社會 發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그렇게 努力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鄭石謨 前 長官님이 地域에서 힘껏 일하시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마을에서 일을 하시고 道知事는 道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재미있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저 道知事하고 마을指導者 여러분하고 연결이 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道知事나 市長 郡守가 알찬 計劃을 세우고 화려한 꿈을 가지고 멋진 行政을 해보고 앞서가는 行政을 해볼려고 努力을 해도 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道知事가 계획한 施策, 郡守가 꾸며낸 施策, 面長이 꾸며낸 施策을 이 자리에 계신 指導者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을에다가 浸透시켜 다시 심어주지 못하면 行政이 아무런 效果가 없는거지요.

여러분 道知事가 마을住民이 없으면 무슨 必要가 있겠어요 안그래요?

面長, 郡守, 모두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

마을에 住民이 없으면 道知事가 무엇때문에 있는거나, 郡守가 뭘하러 있는거나, 面長이 뭘하러 있는거나, 여러분의 마을 住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指導하고 또 같이 심부름하도록 하기위해서 道知事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道知事도 아니고 郡守도 아니고 面長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指導者 여러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말을 끌고 물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은 쉬운데 말이 물을 먹느냐 안먹느냐 하는 것은 말이 먹는 것이지 끌고 간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道知事, 市長 郡守, 邑面長이 물가에 말을 끌고는 갈 수 있어도 실제 말에 물을 먹이는 것은 面長도 아니고 郡守도 아니고 道知事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의 입을 물에다 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면, 또 백번 끌고 가면 무얼 합니까?

여러분의 말의 입을 물에다 대서 꿀꺽꿀꺽 물을 먹여야 말을 물가에 끌고 간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道知事가 잘 할려고 欲心을 부려봤자 이 자리에 계신 指導者 여러분께서 努力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結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末端의 里洞 行政이라는 것이 모든 行政의 出發點이고 모든 行政의

終着地點 입니다.

그러니 모든 行政의 出發點이고 終着點이라고 하면 얼마나 重要합니다?

그게 그저 어느 나라고 그 나라가 發展이 되고 나라가 잘되는 데는 마을 指導者들이 훌륭하나 훌륭하지 못하나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잘되고 못되는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道나 郡에서 여러분에 대한 대우도 제대로 못하였고 누가 지나가면서 커피 한잔 같이 하자고 하는 예도 별로 없는데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私生活도 바쁘신데 마을 일을 위해서 獻身的으로 努力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道知事로서 眞心으로 고개숙여서 感謝를 드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일으키는 데는 指導者가 必要합니다.

先驅者가 있어야 합니다.

歷史를 보더라도 그런 先驅者가 精神이 또렷하고 信念을 가지고 奉仕할 때 그 나라 그 社會 그 民族이 繁榮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나라 歷史의 先驅者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犧牲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이기고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걸 다 무릅쓰고 여러분의 마을을 위해서 苦生하시는 여러분 말고 더 큰 愛國者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先進化를 향한 우리나라의 벽찬 課業의 過程에서 누구의 功보다도 길이 빛나리라고 저는 確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歷史的인 轉換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 視點에서 先進國으로서 정말 이제는 발을 뻗고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時代가 오느냐, 아니면 자칫하면 어느 瞬間에 또 後進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隊列에 떨어지느냐 하는 고비에서 우리는 이러한 瞬間을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運命이 판가름나는 重要한 時期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教育, 3박 4일 동안에 많은 講師님들이 와서 그런 重要한 問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실 겁니다.

“이 나라 이 民族은 이 자리에 계신 마을 指導者들이 끌고 간다,우리가 없이는 이 나라는 안된다” 하는 그런 이 學校 敎訓의 信念으로 院長님한테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확고한 信念, 所信과 여러분들이 自信感을 가지고 여러분 마을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할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장이 어느 고장보다도 發展을 하고 여러분이 사는 面이 그만큼 發展하고 더 나가서는 여러분의 郡, 道 더 나아가 우리 民族이 繁榮할 수 있는 터전을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平和的인 政府移讓,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을 멋지게 치루고 나게 되면 “자 역시 韓國은 최고다” 하는 얘기가 이 地球上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教育을 받고 돌아가사게 되면 過去의 그 비극에서 벗어나 大統領이 웃음으로 손을 흔들면서 청와대를 떠날 수 있는 平和的인 政府移讓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積極的으로 住民들을 계도하고 뒷받침해주시고 그러한 安定속에 우리의 經濟가 더욱 成長하고 發展하는 가운데 잘사는 여러분의 마을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眞心으로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教育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鄭院長께서 많은 努力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석수련원 院長님에게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教育이 비록 짧은 期間이지만 아주 알찬 教育이 되어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역시 教育을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달라졌구나 그러한 心機一轉으로 여러분 마을을 發展시키는데 犧牲의인 기수가 되고 先驅者가 되셔서 우리 세대의 歷史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몸健康하게 教育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보람찬 生活, 多福한 家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 月 月例朝會

1988 年 2 月 5 日

訓 示

始務式을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 月 한 달이 지나고 2 月 5 일이 되었습니다.

올 겨울은 큰 추위없이 比較的 포근한 날씨 가운데 아직까지는 별다른事故없이 보내게 되어 매우 多幸스럽게 생각되나 例年에 比하여 비나 눈이 적게 와서 一部地域의 高地帶 食水難과 올해 農事に 물 걱정이 됩니다.

지난 18 日 錦山郡을 始發로 하여 어제 大田市를 마지막으로 20 個 市・郡에 대한 巡視를 마쳤습니다.

市・郡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었고, 또 樹立된 計劃도 그 어느 해 보다도 알차고 意慾으로 되어 있어 매우 호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7 年度에는 市・郡의 모든 사업들이 住民의 意思에 따라서 오랜 宿願事業 또는 모든 地域들의 懸案事業들이 많이 解決되고 이번 巡視에서 그동안 開發이 落後된 地域도 무엇인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活氣찬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市長・郡守, 警察署長, 消防署長을 비롯한 一線 公務員들의 勞苦를 높이 致賀합니다.

그동안 機會있을 때마다 여러번 되풀이 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마는 今年이 야말로 우리 나라 5,000 年 民族史上 가장 빛나는 偉業을 達成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日 後에는 憲政史上 처음으로 民主節次에 依하여 平和的인 政府移讓이 이룩되고, 9·10月에 開催되는 서울올림픽에는 167個 會員國中 161個 나라가 申請하여 올림픽史上 가장 많은 나라가 參加하는, 名實共히 思想과 理念을 超越하는 地球村 40億 人口의 大祝祭가 될 것이며, 또한 새 政府 出帆에 따른 새 國會의 構成과 4半世紀만의 地方議會構成 등 民主發展을 이룩해 나가는 國家的 大事가 政治日程에 따라 착착 進行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國家的 큰 行事와 關聯하여 地方的으로 特別히 關心을 가지고 推進해야 할 일과 함께 今年 道政方向과 基本골격, 力點施策, 그리고 2月中 當面業務 몇 가지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는 25日 새 大統領 就任行事 計劃이 이미 發表된 바와 같이 이번 行事의 特徵은 儉素하면서 國民과 親近感을 주도록 國會議事堂 廣場에서 舉行하는 등 細心한 配慮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出帆하는 새 政府가 權威主義를 清算하고 보통사람의 時代를 열어가려는 意志의 斷面的인 表現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時代의 變化에 對應해 나가기 위하여 여러 分野에서 自己反省과 깊은 省察로 다시 태어나는 아픔 속에 새로운 認識의 大轉換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住民에게 무엇인가 우리 行政도 第6共和國과 더불어서 確實히 모든 면에서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住民들이 直接 皮膚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行政 行態도 一大 轉換期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指示한 바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公職 內部에서도 自然스럽게 이와같은 雰圍氣가 일고 있음을 볼때 滿足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作業을 推進하고 있는 關聯部署에서는 意識이나 行政의 行態面에서 于先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遂行하고 業務를 執行하는 過程에서 改善해 나가야 할 事務를 찾아 하나하나 實踐에 옮겨 새 政府 出帆과 함께 斬新한 모습을 國民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道 單位에서 解決치 못하는 예컨대 制度改善이 隨伴되는 事項은 中央과 協調하여 우리 道가 先導的으로 推進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에 대한 準備는 그동안 舉道的으로 着實히 해 와서 몇 가지 事業

을 除外하고는 거의 完了段階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가 地域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蹴球競技場인 大田公設運動場 周邊의 整備와 9月 5일부터 8일까지 4日間 道內 16個 市·郡 341 km에서 聖火가 奉送되는 道路周邊을 가꾸는 일과 宿泊·衛生業所의 施設改善, 整備, 서비스水準 向上, 觀光地 등의 大大的인 環境淨化 運動 등 解氷과 더불어 해야 할 일이 山積해 있으며 天安 檀國大學에서 實施되는 國際 스포츠科學 學術大會를 위해서라도 天安, 溫陽 등 地域은 國際大會를 치른다는 矜持를 가지고 緻密한 計劃을 세워 準備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忠南이 우리 나라를 代表해서 親切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印象을 심어주고 大會의 成功的인 遂行뿐 아니라 國威를 宣揚하는 機會가 될 수 있도록 水準 높은 準備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實施될 總選에 대한 차분한 準備와 地方自治制 實施에 對備해서 무엇보다도 住民의 自治意識 涵養과 우리 公職者들의 自治制 運營에 대한 訓練도 時急하다고 判斷되므로 關聯 各部署에서는 格別한 關心을 가지고 計劃을 세워 빈틈없이 推進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道政의 基本方向은 새 政府 出帆과 地方化時代에 맞추어 民意를 바탕으로 한 民主行政의 實踐과 地域安定을 통한 國家的 責務完遂, 그리고 低所得層爲主의 福祉行政을 具現하며 300萬 道民의 意識과 皮膚에 와 닿는, 다시 말해서 道民에게 꿈과 希望과 期待에 副應하는 行政을 推進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道政運營의 基本哲學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力點을 두어 推進할 施策은, 첫째는, 和合과 安定基盤을 構築하여 道民和合雰圍氣를 造成하고 社會秩序를 確立하여 地域安定을 圖謀해 나가며, 둘째, 國民所得 3,000 弗 時代에 걸 맞는 福祉 均霑社會를 建設하고, 셋째는, 地域經濟를 活性化하여 工業化基盤을 促進하고 살기좋은 農漁村을 建設하며, 네째는, 地域開發의 活氣찬 推進으로今年부터 着手될 中部圈 開發計劃과 連繫하여 地域開發을 加速化하면서 지난 해부터 推進하고 있는 西海岸 綜合開發計劃도 長期的인 眼目에서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早速히 매듭짓고 하나하나 實質的인 開發에 着手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모든 準備를 上半期까지 完了하고, 여섯째

는, 文化藝術과 體育의 暢達로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大衆文化의 宣揚, 그리고 道民 體位의 向上을 期하는데 모든 力量과 슬기를 모아 總力 推進함으로써 今年을 새 政府 出帆과 함께 2,000年代 우리 忠南의 先進基盤을 構築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機會에 強調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時代의 變化에 따라 새 施策을 많이 發掘하여 推進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施策의 一貫性 維持와 行政의 信賴를 確保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推進해 오던 事業을 持續的으로 補完 發展시켜 나가되 計劃된 施策을 推進하다가 中間에서 별다른 理由없이 事業을 中止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留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월에 특히 力點을 두어 推進할 當面事業 몇 가지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地域安定과 道民和合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온 國民의 期待 속에 새로이 出發하는 第6共和國이 安定 속에 經濟成長과 民主發展을 이룩할 수 있도록 全幅的인 支持基盤을 擴散하는데 最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轉換期를 통한 社會의 各種 不法·無秩序行爲를 嚴格히 다스려 法이 支配하는 社會風土 造成에 注力하고, 또한 요즘 들뜬 景氣에 편승하여 物價가 오름세에 있어 그동안 다져온 物價安定基調가 現在 威脅을 받고 있는 바 有關機關과 協調하여 各種 物價對策機構를 最大限 活用하여 物價安定을 위한 努力을 持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解水과 더불어 水害復舊事業을 비롯한 各種 公共事業을 早期 發注할 수 있도록 事業準備 등의 對備에 萬全을 期하고, 解水期 安全對策을 위하여 특히 築臺나 落石, 渡船事故 등 어제 또 釜山에서 큰 불이 났읍니다만 大型火災와 같은 危險要所를 일제히 點檢, 豫防하여 安全事故가 發生하지 않도록 指導, 點檢에 徹底를 期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 18일은 民俗의 날로서 民族의 大移動이라고 불리울만큼 많은 歸省人波가 몰릴 것으로 豫想되므로 關聯部署에서 安全輸送 등 綜合對策을 세워 아직까지도 根絶되지 않고 있는 暗票, 바가지料金 등으로 모처럼 故鄉을 찾는 분들의 기분을 흐리게 하는 行爲를 徹底히 團束하고 舊正을 前後한 商去來秩序

紊亂行爲에 대해서도 團束을 強化하고, 特히 不遇이웃돕기에도 疎忽함이 없도록 恪別히 留意하여 주기 바랍니다.

道傘下 1萬8千餘 公務員 여러분!

우리 나라가 5,000年 歷史를 綿綿히 이어오는 동안 歷史의 浮沈 속에서 民族의 中興期도 있었고 부끄러운 歷史의 斷絶期도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南北 分斷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驚異의인 經濟成長과 政治發展, 그리고 서울올림픽의 誘致 등 世界의 先進國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位置로 浮上하는 國運隆盛期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今年이야말로 이러한 國運隆盛期の 찬란한 꽃을 피우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國際間 貿易摩擦, 北韓의 올림픽 妨害策動 등 對外的인 挑戰과 對內的으로는 葛藤과 階層間의 問題解消 등 어려운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對內外的인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하여는 우리 公職者 여러분이 참다운 奉仕行政을 實施하는 것만이 300萬 道民의 和合과 地域安定을 이룩하고 나아가서 國家發展의 礎石을 確固히 다지는 지름길임을 깊이 銘心하여 各者 주어진 位置에서 맡은 바 所任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國運隆盛의 開花期를 맞아 우리들의 피와 땀이 밀거름이 되어 5,000年 歷史上 가장 탐스러운 꽃을 피우도록 다같이 努力해 주길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換節期를 당하여 健康에 注意하면서 새 政府가 出帆하는 2月, 活氣찬 道政을 이룩해 나갑시다.

感謝합니다.

1988年 忠清南道 淨化推進協議會 定期總會

1988년 2월 9일

인 사

새 해 들어 2월도 初旬이 다하고 立春이 지난지 닳새가 되었습니다.

社會淨化事業에 勞苦가 많으신 朴善圭 會長님을 비롯한 社會淨化委員님, 諮問委員인 道單位·主要機關長님을 모시고 今年들어 처음으로 갖는 定期總會,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달은 本人이 市·郡을 돌아보느라고 여러 諮問委員님들 한동안 뵙지 못하여 그동안 너무 隔阻했었던 느낌입니다.

돌아켜보면, 지난 해는 참으로 많은 일과 挑戰들이 우리의 意志와 能力을 試驗이라도 해보듯이 거둑거둑 難關을 안겨 주었습니다.

일찌기 없었던 集中豪雨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虛脫과 挫折感 속에 휩싸여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水害의 傷處가 채 아물기도 전에 勞使紛糾의 소용돌이와 16年만의 大統領選舉바람 등이 連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委員님들을 中心으로 道民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를 슬기롭게 克服, 오히려 어려운 時期를 새로운 跳躍, 忠南發展의 轉機를 만드는 智慧를 發揮했다고 봅니다.

이 激動 속에서도 우리가 憲政史上 처음으로 與·野合意에 依한 憲法을 만들고 그 새 憲法에 依한 새 指導者를 우리 손으로 直接 選出한 것, 永遠히 우리의 歷史에 남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政治日程이 順調롭게 進行되는데 道民이 寄與하도록 協調하

여 주신 여러 委員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感謝드립니다.

이제 이 時點에서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姿勢는 自己가 할 일에 最善을 다 하면서 安定과 成長을 바탕으로 한 地域社會와 國家發展에 다함께 同參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이 時代가 要請하는 意識의 改革과 價値觀의 確立에 注力하는 哲學 있는 삶이 무엇보다도 우리 委員님들이 하여야 할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우리 地域社會淨화와 새 歷史展開의 核心役割로써 地域安定과 住民和合을 위하여 다시한번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淨化委員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社會淨化運動은 우리의 先進化課業을 急速히 推進해 오는 過程에서 派生된 社會의 갖가지 不調和와 不條理로 因해 곳곳에서 病理現象이 累積되었던 80年代 初부터 正直, 秩序, 創造의 理念아래 展開된 精神運動입니다.

그간 7年 동안 우리 社會는 많은 變化 속에서도 이 運動을 새로운 希望의 國民運動으로 展開하여 無秩序에서 秩序를 찾고 우리의 意識構造와 生活態度를 革新해 나가면서 밝고 健全한 社會를 이루는데 크게 寄與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여기에 계신 委員 여러분이 責任感을 가지고 活氣찬 組織, 莫重한 課業을 이끌면서 남들이 마다하는 이 運動을 使命感을 가지고 積極 推進해온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運動은 하나의 精神改革運動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이나 短時日內에 滿足할 만큼 그 成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더 앞을 내다보고 10年, 20年 꾸준히 展開할 때 더 밝고 健全한 社會, 그리고 우리가 目標로 한 成果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國會議員選舉, 地方自治制 實施 등 政治日程과 더불어 200餘日 앞으로 다가온 '88서울올림픽의 成功的인 完遂, 그리고 黑字經濟의 持續的인 成長 등 우리가 지금 어느 것 하나라도 疎忽히 할 수 없는 重要大한 課題를 우리 앞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順調로운 成就에 여러 委員님들의 繼續的인 參與와 道民에 대

한 支援을 바라 마지않으며, 이를 다짐하는 뜻이 오늘 이 會議의 目的이라고
봅니다.

所期の 成果를 위하여 그리고 委員 여러분과 諮問委員 여러분의 幸運과 榮
光을 함께 祈願합니다.

이 會議의 盛況, 다시 한번 感謝드립니다.

市·郡, 道事業所 建設關係官會議

1988년 2월 13일

訓 示

建設分野 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난해는 多事多難했던 한해였습니다.

7·8월의 그 엄청난 大洪水의 被害를 轉禍爲福의 계기로 昇華한 한해, 그 밖에 公州 및 黃山大橋의 竣工, 中部 高速道路의 開通, 220킬로미터의 地方道鋪裝, 大田圈 開發의 본격着手등 地域 開發 加速化로 후회없는 한해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300만 道民의 積極的인 協調과 1만6천여 傘下 公務員들의 피땀어린 勞苦의 結晶, 특히 建設關係 公務員 여러분이 熱과 誠을 다하여 불철주야 獻身한 결과라고 믿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勞苦를 致賀합니다.

이제 國家的으로는 平和的 政府 移讓, 서울올림픽의 開催, 地方自治制 등 榮光과 民主의 새 時代가 出帆하는 해입니다.

地域적으로는 새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 西海岸 開發의 先導등으로 거듭나는 忠南의 해입니다.

또한 우리 忠南道는 國土의 中心部이고 主要技能을 수용해야 할 곳입니다.

긴 안목에서 發展 方向을 展望하고 妥當性, 經濟性 등을 考慮하는 開發에 開發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60~70年代의 양적 行政에서 脫皮하여 質的으로 水準높고 세련된 藝術作品과 같은 開發行政에 대한 建設公務員의 넓은 視野와 創意性이 緊要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職務에 대한 꾸준한 자기 省察과 研鑽으로 創意力の 發揮가 要請됩니다.

또한 建設民願의 肯定的 處理와 철저한 施工, 監督으로 不實工事を 防止하여 轉換期를 틈탄 不法行爲를 根絶시켜야만 하겠습니다.

當面事項으로는 '88 年度로 移越된 集團 移住 住宅 34 棟의 早期 入住와 함께 公共施設 5 千 365 件의 모든 事業이 營農期和 雨期以前에 完了되어야 할 것입니다.

'87 年度の 災害를 심층 分析해 보면서, 똑같은 災害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防災 計劃을 수립하고 推進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防災 教育 및 訓練을 強化하고 水防資材와 物資의 事前 確保와 管理, 災害 危險 地區의 集中 管理도 要請됩니다.

아무쪼록 技術職 公務員들을 풀 가동하여 解氷과 함께 모든 事業을 早期에 발주하여 聖火 봉송로 整備事業의 早期 執行이라든가 산사태, 落石, 事故 다발지역의 道路交通 安全對策도 點檢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會議의 課題가 또 금년도 建設業務 計劃의 確定示達과 當面한 建設業務의 指示 및 討議에 있습니다만, 모든 業務와 事業의 알찬 推進을 다짐하면서 투철한 使命感으로 時代的 召命을 認識하고 地域開發 旗手로서 알찬 忠南 建設에 여러분 技術公務員들의 정진이 있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大田市 交通整備 基本計劃 樹立에 관한 研究結果 報告會

1988년 2월 15일

致 辭

먼저 알찬 研究 結果를 提出해 주신 尹吉仙 交通開發研究室長님을 비롯하신 研究陣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드립니다.

우리 大田市는 直轄市 昇格을 앞두고 날로 擴大되고 있는 交通需要와 駐車 問題 등을 圓滑히 하여, 快適한 都市環境 造成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습니다.

이런 此際에 中部圈 開發의 核心都市로 그리고 首都機能의 分擔都市로써 交通의 要衝地인 大田市の 2,000年代를 向한 交通整備의 비전을 마련한 것은 매우 適切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本 施策方向을 提示한 交通開發 研究員의 最終 研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早速한 計劃의 確定과 豫算의 確保 그리고 과감한 推進이 남아 있습니다.

本 研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道와 市の 關係公務員들은 都市 發展과 人口增加, 産業施設 擴大 등 時代의인 흐름과 趨勢를 미리 豫想하고, 積極 對備하는 交通行政이 必要합니다.

따라서 公務員들은 使命感을 가지고 中・長期 交通整備計劃 樹立에 多角的인 智慧와 中央의 基本計劃과의 調和를 통해서 가장 合理的이고 完璧한 都市交通計劃을 樹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大田市는 '89年을 기점으로 人口, 交通, 産業 등 모든 面에서 爆發的인 需要의 擴大와 增加는 불을 보듯 確實한 現實입니다.

이러한 要因을 充分히 수용할 수 있는 遠大한 計劃이 되도록 持續적이고

生動力있는 交通行政을 당부합니다.

研究陣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感謝합니다.

農業協同組合員 子女 獎學金 授與

1988년 2월 22일

激 勵 辭

오늘 새 봄이 오는 길목에 學業에 대한 希望과 抱負를 갖고 뉘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農協의 獎學金 傳達式이 매우 뜻 깊습니다.

먼저 어려운 農村의 生活 속에서 子女들의 배움을 뒷바라지하시는 學父母 여러분에게 讚辭를 드리고, 이처럼 農村의 子女들에게 獎學金을 마련해 주신 農協의 獎學事業을 歡迎하고 또 致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의 農協이 農民을 위하고 農村을 위해서 創設된지 27年이 되는 줄 압니다만, 그동안 農協은 農村經濟의 唯一한 紓解로서 크게 成長과 寄與를 兩立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한 世代의 年輪을 바라보며 農協은 우리 農村의 가장 切實한 課題와 所望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積極으로 農民을 도와주는 事業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農村에서는 무엇보다도 子女 教育費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認識한 農協이 昨年부터 初·中·高·大學生 모두에 대한 獎學事業을 벌이는 것으로 압니다.

自己自身은 苦生해도 子息은 잘 가르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갖는 人之常情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고 배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現實입니다.

그것은 高校나 大學의 入試 競爭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社會는 嚴密히 말해서 生存競爭의 社會이므로 努力하고 誠實하여 뛰어나게 認定받는 사람만이 願하는 것을 成就하는 時代입니다.

오늘 獎學證書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熱心히 工夫하고 將來가 囑望되는 젊은이들이기에 嚴格한 選拔을 거쳐 榮譽의 獎學金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周圍의 期待에 어긋나지 않도록 熱心히 工夫해서 父母의 恩惠와 社會의 支援에 報答하고 아울러 내 고장을 위해서 必要한 人材가 되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고장 學界의 元老 세 분께서 參席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獎學金 傳達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兪大植 農協 道支會長님과 任職員 여러분의 勞苦를 다시 한번 致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第23回 看護協會 忠南支部 定期總會

1988년 2월 23일

祝 辭

오늘 大韓看護協會 김모임 회장님, 충남지부 신창례 지부장님, 그리고 會員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하신 가운데 스물세번째의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이땅에 現代醫療가 傳播된지 한 세기, 우리 看護界는 오랜 歷史와 傳統 속에서 國民保健向上에 한결같이 獻身해 왔으며, 이제 世界先進水準에 올라선 우리 나라 醫學界의 큰 기둥으로 그 基盤과 力量을 다져오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看護界의 發展과 活躍이 國家的으로 認定되므로써, 우리 道內만 해도 住民의 醫療施惠를 위하여 250 個所의 保健診療所를 設置, 看護師 여러분도 이제는 1次 診療業務를 遂行하게 되는 등 道民 醫療施惠에 큰 貢獻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참奉仕의 結實을 얻게 된 것은 결코 偶然히 주어진 機會나 보람은 아니며, 看護師 여러분이 이 時代가 要請하는 醫療施惠에 발맞추어 學問과 技術的인 力量을 쌓으면서 自己發展을 꾸준히 이룩한 結果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昨年 여름의 酷甚한 水害때는 看護師 여러분이 水災民들의 時急한 診療와 急性傳染病 發生豫防에 獻身 努力해 주심으로써 疾病으로 因한 被害가 全然 없도록 땀흘려주신 勞苦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해야말로 우리가 맞는 1年이라는單純한 意味를 넘어서 우리의 歷史에 크나큰 획을 긋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分明합니다.

그것은 第6共和國의 誕生으로 일컬어지는, 國民自主力量이 噴出되고 成熟되는 새로운 民主時代의 展開이며, 서울올림픽의 主導로 우리 韓國이 모든 面에서 世界的으로 確固한 位置를 차지하고 認定받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國民的 希望과 國家發展에 걸맞는 社會福祉政策을 實現하고 國民所得水準向上에 따른 良質의 保健醫療慾求를 充足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今年부터 全國에 걸쳐 農漁村地域 醫療保險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또 來年부터는 全體 國民이 醫療保險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全國民皆保險 施策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社會福祉政策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는 看護師 여러분이 주도하는 看護協會의 役割과 使命이 더욱 擴大되고 무거워질 것이라고 本人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분이 地域醫療發展에 크게 貢獻해 왔으나 앞으로 國民所得 3,000 \$ 時代를 맞이하여 보다 次元높은 醫療서비스 提供에 여러분의 能動的인 役割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看護師 여러분께서 우리의 國家的 課題인 人口調節事業과 防疫事業에도 애써주신 結果 우리 道가 3年 連續 保健行政의 最優秀實績을 올리는 榮譽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榮譽를 繼續 지켜 나감으로써 先進醫療忠南 具現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特히 다음 해 서울에서 開催될 第19次 ICN總會에서는 看護師 여러분의 衆智를 모아 盛大한 모임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看護界의 發展과 더불어 民間外交에도 크나큰 몫을 차지하여 주실 것을 付託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定期總會가 忠南看護協會와 地域社會發展에 또하나의 起爆劑가 될 것을 期待하면서 여러분의 健康과 幸運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택시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

1988년 2월 24일

祝 辭

오늘 우리 市民 交通의 莫重한 役割을 擔當하는 우리 高장의 택시運送事業者 여러분이 서른한번째의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우리의 經濟發展과 自動車 生産能力의 擴大에 따라 택시는 이제 庶民生活의 親熟한 交通手段으로써, 우리의 日常生活에 한시라도 막히거나 멈출 수 없는 血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交通文化의 主役으로 登場한 택시는 全國的인 숫자로는 10萬臺를 넘어 섰으며, 우리 高장에도 6千餘臺를 突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택시業界의 經營人과 運轉技士 등 이 分野의 從事者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時間 道民 交通文化의 先進化를 위해서 獻身的으로 努力하신 結果 水準이 크게 向上된 점, 본인은 박영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組合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昨年에는 社會와 國家發展이라는 하나의 時代的 轉換期에서 불어 닥친 업계 勞使紛糾의 渦中에서 가장 激烈하고 열띤 紛糾를 勤勞者와 使用者 여러분이 끈질긴 忍耐와 理性으로 이를 슬기롭게 克服하고 서로 自制와 讓步, 理解와 妥協의 精神으로 圓滿히 서로 合意點을 찾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激勵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우리 高장의 택시業界는 모든 面에서 다른 高장을 앞서 가고 模範을 보여온 傳統이 있는만큼 이러한 自負와 矜持를 더욱 擴散시켜 나가야 한

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러한 獻身的인 努力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우리의 택시 運送業界는 서어비스面에서 先進國 水準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를 다녀간 많은 外國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韓國 旅行中の 不便事項이 택시의 利用에 있었다는 事實을 여러분께서는 깊이 認識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겨레의 숨은 저력을 世界 人類에게 誇示하고 國家發展과 民族統一에 크나큰 里程標를 세울 '88 서울올림픽대회가 불과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人類 祝典이 國家發展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跳躍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打算을 생각하기에 앞서 半萬年の 歷史와 傳統文化를 가꾸어온 民族의 自尊과 矜持를 앞세워 秩序있고 親切하며 品位있는 先進택시의 모습을 꼭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택시 家族은 民間外交使節이라는 使命을 가지고 競技場 밖에서 우리도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내노라 하는 世界の 先進國들과 겨루어 모자랄 것이 없다는 國民性과 높은 文化水準 그리고 世界歷史의 前面에 나설 수 있는 甞甞한 能力을 그들에게 確信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道는 앞으로 다가올 西海岸 時代의 開幕과 더불어 無限한 發展 可能性과 變化가 있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豫想 밖의 人的, 物的 往來와 交流가 豫想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택시業界도 이러한 發展과 可能性 있는 未來에 對備하면서 先進택시의 運送水準을 向上시키는 것이 當面한 課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時代的인 變化와 展望에 따라 우리 道에서도 앞으로 業界의 大型化를 誘導하여 經營難 解消의 支援에 注力할 것이며, 地域 與件을 勘案하여 交通의 需要에 調和되는 增車を 檢討하고 大都市로부터 段階的으로 “中型 택시” 運行制度를 實施하여 택시 先進化事業을 積極 推進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택시運送組合의 定期總會가 내일로 出帆하는 第6共和國을 祝賀하면서 先進祖國, 世界の 經濟大國으로 跳躍하는데 寄與하는 내 고장의 旗手로

(58) 택시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 祝辭

써 큰 마음 속의 다짐이 되어 줄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택시運送事業組合의 無窮한 發展과 택시運送家族 여러분의 家庭에 平和와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在鄉軍人會 定期總會

1988 년 2 월 26 일

祝 辭

오늘 우리 民族史에 새로운 里程標가 될 第6共和國이 出帆한 후 우리 고장에서 처음으로 갖는 忠南道 在鄉軍人會의 定期總會에 즈음하여 本人은 남다른 意味의 賦與와 더불어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定期總會가 주는 뜻은 먼저 새로운 政府와 民主化 時代의 展開에 있어 우리 鄉軍會員들이 이 地域社會의 어떤 自生組織이나 社會團體의 構成員들보다도 내 고장과 國家 發展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意志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發展과 跳躍의 成就가 있다 하더라도 鄉土와 國家安保는 最優先의 國民的 課題라는 것을 300萬 道民에게 일깨우는 것이 鄉軍 定期總會의 뜻이라고 本人은 믿고 있습니다.

지난 날 民族의 不幸한 戰爭터에서 共產軍과 直接 싸우거나 最一線에서 共產軍이 무엇인지를 보고 느낀 鄉軍會員 여러분이 地域 安保의 確固한 支柱로서 道民을 啓導해 주시고 또 스스로 實踐해 주심에 힘입어 오늘의 發展과 내일의 繁榮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랜 挫折과 苦難을 딛고 일어서 이제 國民所得 3,000\$의 先進化 時代, 그리고 世界 人類의 祝典인 서울올림픽을 主導하는 나라로 올라서게 된 것을 國家 安保와 反共에 대한 鐵桶같은 國民的 團結과 一體感 속에서 成長과 發展을 追求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결코 偶然이 가져다 준 結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世界 國際情勢의 흐름이 理念의 對立이나 對決에서 相對方의 認定과

理解, 그리고 共存과 交流의 時代로 擴大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裏面에는 理念과 體制를 超越한 熾烈한 國家間の 利益다툼과 自己勢力의 擴大企圖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國家와 民族이 이 地球上에 存在하는 한 나라의 安保는 永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우기 이러한 世界情勢의 和解氣流와는 정 반대로 大韓航空 858 機의 空中爆破와 같은 蠻行을 서슴치 않고 있는 北韓 共產集團과 對決하면서 올림픽의 開催와 經濟大國들의 開放壓力과 같은 貿易戰爭을 치루어야 하는 오늘 우리의 現實은 하나에서 열까지 國民的인 團合과 거기에서 솟구치는 總和力量이 切實하게 要請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國民的 團結과 總和力量을 結集할 수 있는 제일의 共感帶와 精神的인 團結力이 바로 地域社會의 安定과 安保라는 것을 생각할 때, 平素 戰友愛로 뭉친 여러분의 結束과 社會活動은 우리 고장의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役割과 期待를 바탕으로 지금 한창 論議되고 있는 共產圈과의 交流와 交易 등의 轉換期의 社會的 現象에 따라 마치 安保와 反共에는 疎忽하여도 괜찮은 것 같은 認識을 우리가 警戒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처럼 變化無常하고 앞날을 豫測할 수 없는 激動期에 더욱 社會의 安定과 安保가 必要함을 鄉軍會員 여러분 스스로 認識하고 또 여러분 周邊을 啓導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이 定期總會가 새로운 時代 安保觀 定立에 큰 디딤돌이 되도록 趙誠玉 會長님을 비롯하신 會員 여러분의 活躍에 幸運과 成就가 있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忠淸南道韓醫師會 第35回 代議員 定期總會

1988년 2월 27일

祝 辭

오늘 忠淸南道韓醫師會 第 35 回 定期代議員總會에 즈음하여 祝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崔興煥 會長님을 비롯하신 代議員 여러분이 平素 道民保健 向上에 獻身하시고 내 고장 發展에도 앞장서 주시는 勞苦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하나 하나 列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겹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代議員 여러분을 비롯하신 韓醫師會 會員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聲援을 바탕으로 發展과 成就를 着實하게 이룩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에 史上 前例없는 水害가 휩쓸어 失意와 挫折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앞장서 水災民의 支援과 激勵에 나섰던 점을 저는 잊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總和와 團結된 모습으로 우리가 自己 職分에 最善을 다해 나갈 때 國家의 繁榮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40年 憲政史에 처음으로 平和的인 政府를 移讓하고 第 6 共和國이 힘차게 出帆하였음이지만 앞으로는 國民的인 希望과 期待 속에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制의 實施, 그리고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여 世界人이 한마당

의 祝典에 손을 잡는 서울올림픽의 開催 등으로 우리는 先進國隊列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忠南의 希望찬 앞날을 살펴보면 中部圈開發의 着手와 西海岸時代 開幕에 對備한 여러 事業의 開發着手, 國家中樞機能의 持續的인 收容을 위한 大田 大都市圈 開發의 本格的인 推進, 그리고 300萬 道民의 젖줄인 錦江綜合開發計劃의 着手 등 2,000年代 이 나라 繁榮의 中心地로 成長할 수 있는 先進基盤을 構築하는 跳躍 忠南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國家的으로나 우리 地域社會 發展에 莫重한 일들을 遂行함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무엇보다도 民主主義 理念과 價値 속에서 道民和合을 創出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希望찬 새 時代의 發展에 따른 社會福祉 政策을 具現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今年부터 農漁村地域 醫療保險을 實施하고 있으며 1989年부터는 全體國民이 醫療保險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國民 皆保險의 實施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韓醫業界는 韓藥材의 流通秩序 確立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當局에서도 이의 早速한 解決을 위해 研究檢討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社會福祉 政策을 成功的으로 施行하는데는 韓醫師 여러분의 뒷받침이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醫療體系는 傳統的인 韓醫學과 現代醫學이 共存하는 가운데 國民이 이를 選擇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制度的인 側面에서는 그 均衡 維持에 多少 未洽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昨年부터 韓方醫療保險이 全國的으로 擴大實施되면서 韓方醫療가 國民保健에 미치는 影響이 커지고 國民들의 關心이 높아감에 따라 韓醫學 發展이 加速化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토록 韓醫學이 國民的 關心 아래 發展하고 있는 것은 韓醫師 여러분들이 學問的 發展에 心血을 기울여온 努力의 結實이라고 생각되어 그 勞苦에 대하여 感謝 드립니다.

올 해에도 韓方醫療保險이 우리 醫療界에 確固한 基盤을 構築하므로써 良質

의 醫療施惠가 道民들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參席하신 安榮基 中央會長님께 謝意를 표하며 올 해 여러분이 計劃하시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家庭에 神의 加護가 있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3·1節 紀念 烽火祭

1988년 2월 29일

致 辭

오늘 己未 獨立萬歲運動의 歷史遺蹟地인 이곳 竝川에서 진취적 기상과 열성적 奉仕로 國家發展에 이바지해온 忠南地區 青年會議所가 우리의 가슴 속에 民族의 自存과 繁榮의 蠟燭을 永遠히 지피는 열번째의 烽火祭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겨레의 生命인 말과 글을 빼앗고 魂을 빼앗은 日本 帝國主義者들이 이제는 韓半島가 日本이 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日本人이 되었다고 快哉를 부를 때 이곳 아우내 장터에서, 제암리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온 獨立의 만세소리는 天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우리와 같은 함성과 明明白白한 民族의 良心, 세계를 向한 거침없는 絶叫하는 끝내 無慈悲한 日帝의 총칼 앞에 피로 물들여졌지만 꺼져가는 民族의 정기에 다시 불을 당겨 멀리 中國 땅으로 美洲로 그리고 바다건너 적지의 수도 한복판으로 번져나가 獨立運動은 소리없는 活氣를 띄게 되었습니다.

民族의 自存과 結束, 可能性과 意志를 앞세운 우리의 獨立運動은 己未 獨立萬歲運動 以後 더욱 겨레의 가슴 속으로 內燃한 나머지 마침내 祖國光復의 歡喜를 가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9年前 萬歲를 부르고 祖國의 獨立을 외치지 않은 곳이야 없겠지만, 特히 이곳 아우내 장터에서 나이 어린 愛國少女 柳寬順이 主導한 萬歲

運動은 하늘을 뒤덮고 땅을 울렸으니 여기 竝川땅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에 총칼을 휘둘러도 굽히지 않는 충절의 땅, 이곳에서의 만세운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근 여섯 고을이 태극기의 물결로 출렁이고 한밤중에도 自由와 獨立의 絶叫을 외쳤으니 오늘 우리의 핏줄 속에 그 意志가 맥박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忠南地區 青年會議所 會員들이 主導하는 이 매봉산의 烽火祭는 가장 絶望의인 時代에도 民族의 自矜心을 일깨우고 불태웠던 民族魂을 오늘에 되살려 이 時代의 國民的 團結과 祖國의 繁榮에 先鋒이 되려는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歴史的인 아우내 만세운동을 기리는 오늘의 이 뜻깊은 烽火祭가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그리고 300萬 道民과 6千萬 겨레의 가슴에 그칠 줄 모르고 타오르는 마음 속의 烽火로 擴散되기를 바라면서 祝賀의 말씀에 대합니다.

感謝합니다.

3 月 月例朝會

1988 年 3 月 2 日

訓 示

이제 생동하는 季節 3 月이 되었습니다.

지난 25 日은 國民의 期待와 祝福 속에 새로운 政府의 出帆과 함께 溫和한 봄기운이 감도는 3 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心氣一轉하여 새로운 覺悟로 새롭게 出發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第 13 代 大統領就任式 光景에서나 就任辭를 듣고 많은 것을 새롭게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就任式에서 본 바와 같이 式場의 簡素한 꾸밈과 進行上의 自然스러움에서 從來에 볼 수 없었던 많은 變化를 實感할 수 있었으며, 또한 就任辭에서는 앞으로 5 年間 國政을 이끌어 가는데 大統領으로서의 政治哲學과 所信을 明白히 밝히셨습니다.

就任辭 中에서 우리 公務員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 實踐에 옮겨야 할 事項을 열 가지 정도로 要約하여 다시 吟味해 본다면, 첫째로, 民族自尊의 새 時代 宣言을 통하여 國民 모두의 存在와 價値에 대한 尊嚴을 強調하고 이를 바탕으로 民主와 繁榮, 自主와 統一의 大局을 열어 나갈 것을 提議한 것이며, 둘째는 人權과 責任, 自律을 바탕으로 經濟發展과 安保를 다지는 成熟한 民主時代를 활짝 열어 모든 國民의 潛在力을 꽃피우고, 셋째는, 곧바로 서있는 物體의 그림자가 밝은 大地 위에서 굽어지지 않는 것처럼 正直한 政府와 國民과의 約束은 반드시 지키는 信賴받는 政府를 만들겠으며 이를 위하여 野黨을 비

못한 批判勢力과도 對話와 協力을 提議하였으며, 넷째는, 高度成長은 實質生活을 보다 넉넉하게 하였으나 分配政策의 疎忽은 地域間, 階層間의 隔差와 함께 葛藤과 分裂을 가져 왔다고 指摘하시면서 公正하고 正義로운 分配에 力點을 둘 것을 밝히셨고, 다섯째는, 學術과 文化藝術의 振興을 통하여 經濟的 奇蹟을 이룩한 우리 國民은 이를 바탕으로 찬란한 文藝振興의 時代를 創造하며, 여섯째는, 正義社會의 具現을 가로막는 어떠한 形態의 特權이나 不正腐敗도 斷乎히 排擊하고, 일곱째는, 國民和合은 政府의 政策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國民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 속에 피는 꽃과 같으므로 모두 自己 自信의 마음속에서 自制와 雅量을 보여 너그럽게 풀어나가야 하며, 여덟째는, 50 億 人類의 平和 大祭典인 서울올림픽을 地球村의 모든 사람에게 깊이 記憶될 成功的인 大會로 昇華시키고 이를 契機로 우리 民族統一의 時代를 열어나가며, 아홉째는, 北韓當局은 共產主義者들조차 拒否하는 教條的 理念을 버리고 對話를 통하여 休戰線에 和解의 “봄”을 열어 머지않은 將來에 統一의 열매를 거두자는 南北對話 提議를 거듭 闡明하였으며, 열번째는, 國民 모두는 未來에 대한 自信감과 勇氣를 가지고 自由, 平等, 平和, 幸福이 가득한 나라를 向하여 함께 나가자고 “希望의 노래”를 引用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大統領께서 즐겨 쓰시는 “偉대한 보통사람 時代”의 哲學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民族의 自尊時代 宣言으로부터 民主化時代 開幕, 正直한 政府, 公正하고 正義로운 分配, 文化藝術의 振興, 社會正義 實現, 國民和合, 民族統一, 그리고 우리 民族의 21世紀를 向한 希望으로 集約하여 實現하였다고 하셨습니다.

親愛하는 2萬餘 公務員 家族 여러분!

우리는 위와같은 大統領의 就任辭에서 나타난 國政哲學과 意志를 充分히 理解하고 消化하여 모든 公職者가 몸소 實踐해 나감과 同時에 各級 機關은 地方單位에서 實踐할 事項은 하나하나 點檢하여 우리 忠南이 地方的 具現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속히 지난 날의 낡은 생각, 그릇된 習性, 잘못된 行態를 果敢히 清算하고 새 政府의 새 公務員像 定立에 비장한 覺悟로 推進함으로써 第6共和國의 出帆에 따른 國民의 期待에 副應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3 월에 力點을 두어 推進할 事項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올림픽 雰圍氣 造成과 準備態勢의 完備입니다.

앞으로 서울올림픽이 오늘로서 199日이 남았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만 지난 29日 閉幕된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冬季 올림픽이 成功的으로 끝났고 特히 成功的으로 끝나게 된 要因中에서는 캐나다 캘거리市の 民間奉仕團體가 積極的인 役割을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세계의 평이 있었습니다.

또한 外國 記者들이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올림픽 準備狀況의 所感を 들어 본 바 앞으로 불과 200日 정도 남은 이 時點에서 韓國의 올림픽 準備는 施設面에서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만 周邊의 여러 環境이라든가 國民들의 意識이 아직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評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外國 記者들의 評을 들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고 改善해야 할 점은 우리 韓民族들은 무엇인가 굼직굼직한 것은 잘 해쳐 나가는데 조그만하고 緻密한 것, 또 細部的인 面에서는 아주 疎忽하다는 指摘을 外國 記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우리는 닥치는대로 큰일은 대충대충 대강대강 잘 해내는데 그 다음 손질이 未熟해서 말하자면 거칠고 疎忽하고 어딘가 끝맺음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短點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分野別로 準備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本格的으로 올림픽에 대한 雰圍氣 造成과 함께 聖火奉送路 周邊整備, 觀光地를 비롯한 環境淨化, 接客業所의 水準높이기, 交通, 서비스對策 등 綜合的으로 點檢하면서 모든 面에서 活潑하게 推進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農事 準備입니다.

그동안 累次 強調한 바 있습니다마는 46年만의 겨울가뭄과 지난 해 水害로 크고 작은 水利施設이 破壞되어 例年에 比하면 貯水率이 極히 低調합니다.

오늘 現在 氣象豫報를 들어봐도 봄가뭄이 매우 憂慮되는 現實에 있습니다.

이제 本格的인 農事 準備철을 맞이하여 水害復舊事業中에서도 農事와 關係되는 事業을 우선해서 推進하고 特히 논물가두기, 農業用水 開發事業의 促進 등

으로 農業用水 確保에 加一層의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또한 優良법씨 確保와 땅심돌우기, 보리밭 肥培管理, 各種 農機械의 整備 등에도 市·郡과 農村指導所가 協調하여 指導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工事의 活潑한 推進입니다.

이제 3월이 되어 本格的으로 解凍되고, 그동안에 밀렸던 工事を 다시 始作해야 되겠습니다.

水害復舊 移越事業 5,300餘件과 各種 工事의 早期發注를 위하여 그동안 準備해온 모든 公共事業을 早速히 着工하여 營農期와 雨期前에 工事を 마칠 수 있도록 細部計劃을 樹立하여 着實하게 推進하되 特히 工事着工前에 住民들에게 工事說明會를 갖거나 또는 設計書 등을 供覽시켜 住民들의 理解와 參與 속에 住民들의 뜻에 따라 事業이 圓滿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留意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새봄맞이 새마을運動의 展開입니다.

겨울 동안 쌓였던 生活周邊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山이나 河川, 觀光地, 또는 都市 近郊 등에 대한 汚物除去와 自然淨化活動을 積極적으로 展開하는 것은 勿論 退色되었거나 破損된 廣告物과 새마을 施設物을 一齊整備하여 快適한 生活環境을 造成하도록 새봄맞이 清掃를 大々적으로 實施하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서도 內務部에서는 이달 3月서부터 5월까지를 새봄맞이 大清掃期間으로 定해서 一齊히 環境整備한다는 그런 報道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가꾸기 事業도 本格的으로 推進하는 등 3月은 農村이나 都市할것 없이 全 道民의 自律的인 參與雰圍氣를 造成하여 화창한 봄날과 함께 活氣넘치는 한 달이 되도록 總力を 기울여 推進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解氷期 安全對策의 萬全입니다.

解氷期에 例年 發生하는 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特히 築臺나 담장, 道路邊의 落石 등 危險地區에 대한 點檢과 安全措置를 取하여 주고, 또한 渡船事故防止를 위한 安全管理과 特히 봄철의 大型火災나 山火防止對策을 위하여 그동안 關係部署에서는 많은 努力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繼續해서 指導와 點檢을 強化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3月은 今年度 1/4 分期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모든 計劃된 事業을 蹉跎없이 遂行함으로써 새 政府 出帆과 함께 道民에게 新鮮感을 주는 道政運營을 위하여 우리 모두 즐기찬 努力을 當부하면서 換節 期에 健康에 留意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當부합니다.

ROTC 任官式

1988 년 3 월 2 일

激 勵 辭

오늘 所定의 期間 동안 學問과 더불어 軍事知識도 함께 研磨하여 자랑스런 初級將校로 任官하게 된 젊은 知性人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激勵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國土防衛라는 神聖한 義務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선 이 시점은 國內外的으로 수많은 變化와 激動을 거둬하는 轉換期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환기의 시대에 있어 우리에게 重要한 것은 우리들 삶의 目標과 方向을 設定해 주는 價值觀의 確立과 行動의 指標가 매우 切實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여러분은 새로운 民族의 自尊과 開放, 自律 그리고 創造의 時代를 힘차게 일어나갈 第6共和國의 出帆後 처음으로 任官한 學軍士官이라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더욱 그러한 期待와 役割이 모아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갖가지 變化와 複雜微妙한 狀況들이 엮갈려 있지만, 이처럼 緊迫한 瞬間에도 우리가 疎忽히 할 수 없는 것이 곧 國家安保라는 絶對的인 課題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까지 우리가 지난 40여년 동안 暫時도 쉬지않고 智慧와 力量을 쌓아온 오늘의 富와 秩序 그리고 값진 經驗도 한 瞬間을 國土防衛에 放心한다면 한낱 水泡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젊은 知性人 여러분의 學問과 人格陶冶의 고된 大學生活中에도 所重

한 國家安保를 위하여 初級指揮者로서의 資質과 戰術을 研磨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服務期間 동안 上官의 命을 받들고 兵士를 指揮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의 人生에서 가장 所重한 經驗과 삶의 意味를 體得하게 될 것입니다.

軍隊라는 特殊한 社會가 어떻게 생각하면 命令 하나에 살고 죽는 劃一的이고 單純하며 閉鎖된 社會일 것이라는 先入觀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意志와 努力에 따라서는 人間의 能力과 潛在力을 最大限으로 發揮하고 忍耐하도록 젊음을 부르는 未來開拓의 좋은 人間 수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人間의 能力이 消極的일 때는 한낱 微物의 몸짓에 不過하겠지만, 그 能力과 素質 그리고 意志를 키워나갈 때, 한 時代와 歷史에 큰 奇蹟을 남기는 無限大의 世界가 바로 人間의 領域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初級將校 여러분은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學問과 軍人의 길을 함께 갈고 닦은 知性的 젊은이들이기에 여러분은 分明히 國土防衛의 一線에서도 斬新한 民主國軍의 旗手가 될 수 있다는 期待와 可能性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傳統있는 忠節의 고장에서 輩出되는 將校들이기에 오늘 이 榮譽로운 任官은 비단 여러분 스스로나 여러분을 가르친 분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기쁨이요 榮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護國干城의 길에 蒼然한 氣概와 武運이 일기를 빌면서,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犧牲的인 가르침과 보살핌을 주신 學軍團 指揮官 여러분, 여러 대학의 總學長님, 學父母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敬意를 표합니다.

感謝합니다.

1988年度 大田地域 공장새마을 前進大會

1988 년 3 월 4 일

激 勵 辭

親愛하는 工場새마을 運動 指導者 여러분!／

企業體 代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來賓 여러분!／

本人은 오늘 온國民의 기대와 聲援 속에 出帆한 第6共和國를 맞아 처음으로 갖는 새마을 運動 前進大會에서 우리 고장의 產業役軍들이 새마을 運動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힘찬 決意와 團結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企業體의 自律的인 새마을 運動과 品質管理 活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와 企業의 發展, 나아가서는 國家 產業 發展과 勤勞者 福祉增進에 이바지하신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보냅니다.

아울러 그 勞苦가 크기에 오늘 榮譽로운 賞을 받으신 受賞者 여러분에게 眞心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겹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先進各國의 通商압력, 北傀의 KAL機 爆破 등 북한공산당의 對南威脅의 增大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民主化 時代로 가는 過程에서 유발된 勞使紛糾 등 갖가지 社會의 變化와 史上 유례가 없는 水害, 그리고 憲法改正과 大統領選舉 등 그야

말로 歷史에 한 획을 긋는 試鍊과 忍耐로 점철된 격변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企業人 그리고 産業役軍 여러분께서 知慧와 忍耐를 다하고 서로의 理解와 妥協의 精神을 發揮해주심으로써 모든 難關을 克服하고 우리의 産業과 經濟는 世界에서 제일 높은 成長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國際收支도 무려 100억\$에 이르는 등 先進經濟圈으로 進入하는 基盤을 마련하고, 아울러 憲政 40년만에 처음으로 平和的인 政府의 移讓과刮目할 만한 民主 發展의 旅程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막 닳을 올리고 民主福祉國家라는 목적지를 向하여 出航한 第6共和國이 보통사람들의 時代를 위하여 보람찬 航海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歷史의 章은 모든 分野에서 變化와 發展을 要請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 運動이 보다 새롭게 活性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 運動은 70년대초 가난과 停滯를 벗고 잘 살아보자는 國民的 信仰 아래 農村 새마을 運動에서 시작하여 도시 새마을 運動, 職場 새마을 運動으로 불길이 번졌으며, 또한 物質 運動에서 精神 運動으로 昇華되고 成熟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마을 運動은 어느 시점에서만 必要했던 잘살기 運動이 아니라, 지난날의 새마을 運動이 가난을 몰아내는 自立化의 國民運動이었다면 오늘 우리 時代에는 先進社會 先進國家로 가는 祖國의 보다 차원높은 先進化 運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工場새마을운동 指導者 여러분!

職場의 霧圍氣를 새로운 希望과 信念으로 가득 채우고 健全한 勞使關係를 實現하면서 西海岸時代의 展開와 더불어 國家發展의 核心地域으로 浮上되는 내고장의 産業과 地域經濟를 위해서 더 한층 분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信念과 實踐을 통해서만이 지금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世界 各國의 通商압박 등을 헤치고 우리 經濟가 安定成長을 持續해 나갈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새마을의 씨앗, 여러분이 힘차게 가꾸는 새마을 運動의 열

매는 곧 서울올림픽의 成功과 더불어 先進韓國이라는 民族繁榮의 光장으로 成熟되어 우리 겨레 歷史의 한 페이지를 裝飾할 것입니다.

世界人들이 하나의 奇蹟이라고 말하는 오늘의 우리 經濟를 만들어낸 공장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다짐을 늦추지 않을 때 2,000년대 우리가 기대하는 先進韓國의 成就, 꿈에도 素望하는 祖國 平和統一의 그날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부디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에게 知慧와 協同과 實踐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믿어마지않으면서, 이 뜻깊은 大會를 準備하신 李麟求 工場새마을 運動 忠南道 支部長님을 비롯한 關係人士 여러분께 感謝드립니다.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의 앞날에 幸運과 健康을 빕니다.
感謝합니다.

道內 企業體長 및 有關團體長에게 보내는

1988년 3월 6일

書 翰

만물이 生動하는 이때 貴下의 幸運과 經營하시는 企業의 繁榮을 祈願합니다.
평소 積極的인 參與와 聲援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 忠南 道政이 道民의
福祉增進과 地域社會 開發에 알찬 成果를 거두고 있음을 깊이 感謝드리는 바
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忠南道에는 많은 어려움이 連續的으로 겹쳤던 한해
였습니다.

民主化 慾求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混亂과 거듭된 水害, 그리고 勞使紛糾의
擴大는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試鍊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貴下를 비롯한 300 만 道民의 智慧와 忍耐 그리고 勇氣를 바탕으로
歷史的인 民主化 時代의 開幕에 寄與한 道民의 底力에 우리는 뿌듯한 自負와
矜持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기만 했던 勞使紛糾가 對話
와 妥協의 精神을 發揮, 그 어느 고장 보다는 먼저 模範的으로 解決할 수 있
었던 것은 禮節과 倫理의 傳統을 지닌 道民 精神이 십분 발휘된 때문이라 믿
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經驗을 바탕으로 앞으로 원만한 企業環境의 造成은 물론
各界各層의 地域社會 雰囲気 造成과 和合에 큰 유산으로 삼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混亂과 對立의 時代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安定

과 和合을 바탕으로 成熟한 새사회를 建設하는데 있어 國家的 意志와 努力들이 결
집되고 있는 해로써 貴下를 비롯한 社會指導層의 役割이 더욱 절실한 오늘입
니다.

다가오는 4월중에 實施될 제 13대 國會議員 選舉와 더불어 180일 앞으로
성큼 다가선 88 서울올림픽 등은 깨끗하고 안정된 社會秩序와 성숙된 意識속
에서 우리 300萬 道民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參與하고 成就해야 할 課業이
라고 하겠읍니다.

당초의 憂慮와는 달리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치뤄진 大統領選舉에 이어 國
會議員選舉도 成熟된 道民의 參與下에 실시하여 民主發展의 歷史的 轉機를 마
련해야 하겠으며, 또 88 서울올림픽의 일부 경기가 우리 고장에서 開催 되는
만큼 올림픽을 직접 치루는 道民으로서의 自負와 矜持에 따르는 우리의 역량
을 더한층 끌어 올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노사간의 원만한 和合氣 造成은 작년 勞使紛糾의 體驗에서 보았듯
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강요는 설 땅이 없으므로
勤勞者도 살고 企業人도 사는 共存共榮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의 事前豫防과
解決의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고 풀어나가는 產業風土를 이끌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올림픽을 우리 손으로 開催하는 만큼, 世界 160餘 나
라의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인다면, 우리 韓國은 이제까지 피땀
으로 이룩한 經濟發展의 토대와 미래의 跳躍 可能性은 일시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企業人 有關機關, 社會團體長님 그리고 地域社會 指導者들은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실줄로 믿읍니다.

아무쪼록 地域社會나 國家發展이 政治, 經濟, 社會의으로 安定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의 責任이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올 한 해의 알
찬 成長과 내일의 跳躍을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부디 하시는 일마다 所願成就하시고, 繼續的인 道政의 指導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읍니다.

1988 년 3 월 7 일

인 사

우리 道の 여러 反共聯盟 運營委員님들 오랫동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國內 安保狀況을 살펴 보면 지난 아시안게임 직전의 空港 爆破企圖, 지난해 추석 漁船攻擊, KAL 858機 空中爆破 등 앞으로 우리의 安保基盤 瓦解를 目標로 갖은 술책이 豫想됩니다.

이러한 國家 安保의 要請을 십분 뒷받침하는 우리 忠南道支部의 反共活動을 더욱 聲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랫동안 우리 反共聯盟을 남모르게 도와 주신 功勞로, 오늘 功勞牌를 받으신 여러분에게 祝賀를 드립니다.

바로 열흘 전에 온 國民의 期待와 希望 속에 第13代 大統領의 就任式을 갖고 第6共和國이 出帆하였읍니다만 새 政府와 時代의 指向과 要請에 따라 民族自尊의 時代를 열어 나갈 安保 姿勢와 對共 態勢의 確立이 더욱 重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올림픽의 開催로 인한 世界 各國의 손님들이 대거 왕래하는 해로써 우리의 安保活動이 그 어느 때보다도 重要的 해입니다.

오늘 여러 運營委員님들을 오랫동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反共聯盟 道支部의 事業과 活動을 뒷받침해 주시는 運營委員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해의 事業을 돌이켜 보고 또 올해의 事業을 議論하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뒷받침과 聲援을 바탕으로 우리 道の 反共安保 活動이 어느 고장

보다도 活潑하고 또 活氣찬 모습을 보여 주고 忠節의 본고장을 誇示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늘 한해동안 우리 道의 反共啓導事業을 보다 効率的으로 推進하도록 좋은 말씀과 대안이 討議되기를 期待하는 바 큼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高見과 知慧를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개인택시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

1988년 3월 10일

祝 辭

오늘 우리 市民交通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택시運送事業者 여러분이
和合과 團結된 모습을 보여주는 네번째의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우리의 經濟發展과 自動車生産能力의 擴大에 따라 택시는 이제 庶民生活에
없어서는 안될 交通手段으로서, 우리의 가장 편리하고도 친숙한 일상의 同伴者
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交通文化의 主役으로 등장한 택시는 전국적으로는 10만대를 넘어섰
으며, 우리 고장에도 6천여대의 택시가 24시간 300만 道民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업계의 종사자 여러분은 仔詳한 親切과 아늑한 乘車氛圍氣를
顧客에 善事하는 가운데 밤낮없이 道民 交通의 서비스의 提共에 獻身的으로
努力하신 結果 그 水準이 크게 向上된 점에 대하여 본인은 장태광 理事長님을
비롯한 組合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는 社會와 國家 發展이라는 하나의 時代的 轉換期에서 불어닥친
業界 勞使紛糾의 와중에서도 가장 激烈하고 열띤 紛糾를 개인택시 事業者 여
러분의 積極的인 그 緩衝역할로 조속히 매듭지어지므로써 道民交通의 불편을 최
소화하는데 寄與하신 功勞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
다.

더우기 우리 고장의 개인택시업계는 모든면에서 다른 고장을 앞서가고 模範을 보여온 傳統이 있는 만큼 이러한 自負와 矜持를 더욱 擴散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러한 獻身的인 努力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택시 運送業界는 써어비스면에서 先進國 水準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를 다녀간 많은 外國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韓國旅行中 不便事項의 하나가 택시의 利用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셔야 옳을 줄 압니다.

더우기, 우리는 겨레의 숨은 底力을 世界 人類에게 과시하고 國家發展과 民族統一에 크나큰 里程標를 세울 88 서울올림픽 大會가 불과 200여일도 채 남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이 人類의 祝典이 國家發展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跳躍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打算을 생각하기에 앞서, 半萬年 歷史와 傳統文化를 가꾸어온 민족의 自尊과 矜持를 앞세워 秩序있고 親切하며 品位있는 先進택시의 모습을 꼭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개인택시 家族은 民間外交使節이라는 使命을 가지고 競技場 밖에서 우리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내노라하는 世界의 先進國들과 어깨를 겨루어 모자랄 것이 없다는 國民性과 높은 文化水準 그리고 世界歷史의 前面에 나설 수 있는 몇몇한 能力을 그들의 눈앞에 擴散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道는 앞으로 다가올 西海岸 시대의 開幕과 더불어 發展 可能性과 變化가 있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지방과 비교하여 볼 때 예상밖의 人的, 物的 왕래와 交流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개인택시업계도 이러한 發展과 可能性있는 미래에 對備하면서 先進택시의 運送水準을 向上시키는 것이 當面한 課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時代的인 變化와 展望에 따라 우리 道에서도 앞으로 깨끗하고 親切한 개인택시像의 定立에 注力할 것이며, 地域與件을 勘案하여 交通의 需要에 調和되는 增車를 檢討하고 大都市로부터 段階的으로 “中型택시” 運行制를 實

施하여 택시先進化事業을 積極 推進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택시運送組合의 定期總會가 先進祖國으로 跳躍하는데 寄與하는 내고장의 旗手로서 큰 마음 속의 다짐이 되어 줄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개인택시運送事業組合의 無窮한 發展과 개인택시運送家族 여러분의 家庭에 平和와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第32回 버스組合 定期總會

1988년 3월 11일

祝 辭

오늘 우리 大衆交通의 王者인 버스運送事業組合의 尹錫元 理事長님을 비롯하신 業界의 代表者와 運輸家族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를 돌아켜보고 금년도의 새로운 發展을 摸索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이제까지 大衆交通文化의 發展에 獻身 努力하신 여러분의 功勞에 대하여 致賀와 더불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새로운 시대로 發展하는 轉換期의 過程에서 불어닥친, 勞使紛糾라는 뜨거운 열기와 難關을 오히려 業界發展의 계기로 삼으신 智慧와 團結에 대하여 激勵을 보내는 바입니다.

모든 自動車 運送事業이 저마다 이 社會의 公益事業으로서 그 機能과 使命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여러분이 이끌어 주시고 있는 버스運送事業은 그야말로 우리 道民들이 한시라도 없어서는 아니될 道民의 발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公益事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大衆交通의 막중한 所任을 認識하면서 業界의 發展과 더불어 이제는 世界の 先進交通水準을 앞당겨 達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課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第13代 大統領 就任式과 더불어 第6共和國이 國民적인 기대와 希望 속에 出帆하였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目標은 모든 分野, 모든 水準이 國際化時代의 모든 役割에 있어 世界の 先進水準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國民的인 合意와 團結 속에 지금 막 始作한 民族自尊時代의 成就라고 하겠습니다.

더우기 금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史上 最大規模로 161個國이 參加하는 24회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번다시 주어지지 않을 이 기회에 우리의 格調높은 傳統文化와 韓民族의 底力을 世界人에게 誇示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先進經濟의 大國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運輸家族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國民의 代表者요 民間外交官이라는 姿勢와 矜持를 가지고 先進交通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世界人들의 韓國에 대한 民族文化와 底力있는 國民性, 또는 經濟成長 潛在力의 可能性 등을 먼저 認定받고 信賴를 얻어야만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불신을 받는다면 그와 반대의 結果를 가져올 것이 分明합니다.

이러한 信賴와 認定을 먼저 外國손님들이 쉽게 目擊하고 確認할 수 있는 大衆交通의 親切, 遵法, 秩序 등을 통해서 저울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觀點에서 요즈음 시내버스를 보면 案内嫌없어도 自律的으로 運行되는 모습, 버스 出入門이 낮고 넓고, 또 깨끗한 車內環境, 利用이 便利한 차임벨과 案内放送 등 우리 先進忠南 運輸行政을 자랑하는 水準으로 나날이 向上되는 것을 저는 크게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社會的 變化, 時代的 要請, 國家發展의 時點에서 우리 버스運送業界는 꾸준히 努力하고 發展해 나가는 自己革新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道에서도 여러분의 經營難 解消을 위한 支援에 注力할 것이며, 地域의 與件과 特性을 勘案하여 交通의 需要에 調和되는 增車를 檢討하고, 아울러 合理的인 路線의 調整과 裝備의 改善 등을 積極 推進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처럼 버스運送組合 家族 여러분의 努力과 行政의 支援, 그리고 道民의 聲援이 調和될 때, 우리의 所望인 先進交通 水準은 達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第 32回 버스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를 다시한번 祝賀드리면서 組合의 無窮한 發展과 버스運送家族 여러분에게 幸運과 發展이 넘치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忠清南道 老人聯合會 定期總會

1988년 3월 11일

祝 辭

오늘 우리 고장의 여러 老人 어른들께서 스스로 보람된 老後를 즐기시고 또 오랜 人生의 經綸과 知識으로 이 社會에 助言을 주시고자 하는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우리의 發展과 내일의 벽찬 希望이 있기까지 온갖 風霜을 겪으시면서 저희 既成世代에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값진 精神遺産과 傳統文化를 물려주시고 또 저희를 이만큼 키워주신 恩惠에 대하여 300萬 道民을 代身하여 感謝를 드립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어른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신 傳統倫理의 確立이라던가 崇祖敬老 그리고 愛幼思想의 宣揚에 모든 力量을 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고 기성세대를 더욱 指導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近者에 우리 忠南道內 곳곳에서 老人會의 組織과 活動力을 土臺로 放學이나 休日 등을 이용하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의 傳統文化와 倫理 歷史意識을 가르치고 계신데 대하여 道政을 맡은 저희뿐만 아니라 道民 모두가 感謝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世代를 責任지게 될 요즈음의 靑少年들이 지난날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버이들이 겪었던 苦生이나 經驗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걱정도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구김살 없이 자라고 있다는 觀點에서

肯定的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歷史와 뿌리, 根本과 傳統을 疎忽히 하거나 忘却한다면, 그가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또는 民族이나 國家이든지, 결코 底力있는 發展이나 끈질긴 生命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오랜 歷史가 가르쳐주는 敎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社會의 發展과 國家의 繁榮이라는 것은 옛 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傳統과 歷史의 尊重이 옛 것을 踏襲하고 保存하는 것만이 아닌 것은 여러 어른들께서 더 잘아시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키고 익숙해진 것 중에서 무엇이 계속 간직할 것이며, 어떤 것을 고쳐야 할 점인가를 分別하는 것이 所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날로 擴大되는 國際化的 시대에 밀려오는 새로운 文物中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이로우며 또 해로운 것인가를 잘 判斷해서 取捨選擇을 하는 것이 곧 이 社會의 發展과 國家發展의 關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第13代 大統領의 就任式을 갖고 民族自尊의 새로운 時代를 열어 나가려는 국민적 열기가 高調된 지금입니다.

여러 어른들께서는 그 많으신 經驗과 긴 眼目으로 저희 既成世代와 자라는 2世들을 이끌어 주시으로써, 자유, 평등, 평화를 目標로 하는 새 希望의 社會, 繁榮하는 나라가 앞당겨지도록 老益壯을 發揮해 주십사하는 祈願을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大韓老人會 忠南道聯合會를 마련해 주신 金明煥 會長님을 비롯하신 여러 어른의 幸運을 빕니다.

感謝합니다.

새마을운동 市·郡 會長團 懇談會

1988년 3월 11일

인 사

地域發展과 새마을 運動에 獻身的으로 奉仕하고 계신 市, 郡, 區 會長團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대다수가 오늘 처음 대하는 새얼굴이지만 意慾에 찬 늠늠하고 毅然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더없이 마음 뿌듯하고 흐뭇하기만 합니다.

새마을 運動은 그동안 여러분이 앞장서 이끌고 指導해 주신 德澤에 이제는 農村과 都市를 막론하고 全國 坊坊曲曲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며 國家發展의 튼튼한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을 主軸으로 하여 전 새마을가족이 한데 뭉쳐 땀흘려 일해온 愛國, 愛族의 信念이 낳은 努力의 結晶이라 하겠습니다.

그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지난 大統領選舉 당시 政局 安定을 위해 支持하여 주신 여러분의 協助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最近 社會적으로 輿論化되고 있는 새마을 運動과 關聯된 物議로 여러분의 心氣가 매우 불편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하지만 전체의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을 만큼 크나큰 障礙가 될 수 없습니다.

出産을 위해 產母의 苦痛이 따르듯 보다 나은 發展을 위한 企圖에서 無理로 빚어진 일일 것입니다.

失敗은 成功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이일을 契機로 전 새마을가족이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意氣投合해 나갈 때 祖國의 繁榮과 地域發展을 期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信念으로 每事에 所信을 가지고 자신있게 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새시대에 걸맞게 새로이 選出된 斬新하고 意慾에 찬 여러분에 대해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는 사실을 留念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13代 大統領 就任과 더불어 이제 “民族自尊의 時代”가 열렸습니다.

大統領께서 闡明하신 것처럼 “새시대는 變化하며 發展하고 刷新하여 跳躍하는 活力에 가득찬 進步의 時代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民主化時代, 보통사람의 시대는 期必코 정직하고 공정하며, 正義로운 새시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나친 다툼이나 地域的 感情, 고질적인 偏見과 我執 등 葛藤의 殘骸를 果敢히 씻고 서로 容恕하고 서로 讓步하는 互讓의 精神 아래 一致團結해 나간다면 祖國의 未來는 밝은 비전이 비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產婆役을 바로 指導者 여러분이 擔當해야 하겠습니다.

小選舉區制 國會議員 選舉法이 國民의 輿望대로 國會를 통과하므로써 내달 中에는 總選을 치루어야 하고 약 6개월 후에는 161個國이 參加하는 史上 最大規模의 서울올림픽이 開催되는 등 國家의인 大事가 目前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時代的 潮流에 따라 道, 市, 郡 등 地方單位에서도 總選을 치루기 위한 選舉準備, 올림픽 對備 손님맞이 새마을 運動과 環境整備 등 실로 많은 일들이 山積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道政은 그 어느해보다도 바쁜 日程에 놓여 있으며 政局 安定 또한 切實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計劃된 일이 착實하게 推進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主導하여 全 道民이 參與한 가운데 國家 繁榮과 政局 安定을 위한 國道政施策에 積極 協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民族自尊의 普通사람 時代 開幕과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葛藤과 對立을 말끔히 清算하고 社會 全般에 對話와 和解 氛圍氣가 造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市・郡・區 單位로 邑・面・洞 새마을協議會 親睦 團體를 構成하고, 構成된 組織機能을 強化하여 新시대의 前衛隊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 모처럼 맞이한 民族雄飛의 希望찬 新시대가 間斷없이 永續될 수 있도록 이번 總選에서도 政局安定勢 確保를 위한 全幅的인 支持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올림픽을 對備한 秩序, 親切, 清潔 運動의 擴散과 새봄맞이 大 清掃, 環境整備 事業에도 全力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個人이나 國家를 막론하고 機會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주어진 機會는 어떻게 活用하느냐에 따라 國家의 興亡盛衰를 가름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올해는 하늘이 우리에게 안겨준 國運隆盛의 絕對絶好의 機會라고 하겠습니다.

40年 憲政史上 처음있는 平和的 政府移讓, 民主化時代가 열리는 보통사람시대의 開幕, 50億 世界人의 祝典이 될 서울올림픽,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所望하는 自由, 豊饒, 幸福이 充滿하는 福祉로운 先進祖國이 앞당겨 이룩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成就하는데 心血을 기우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勞苦를 致賀하며 여러분의 奮發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第18回 京湖驛前 마라톤대회

1988년 3월 16일

인 사

오늘 서로 다른 자기고장의 名譽를 걸고 京湖마라톤대회에 出戰한 選手團의 임원 여러분을 歡迎합니다.

아울러 마라톤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中央日報社의 關係人士와 후원해주신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최남단 목포에서 이곳 대전까지 장장 326.5 km를 힘차게 달려 오신 市·道 選手 여러분들을 300萬 道民과 함께 힘찬 拍手를 보냅니다.

우리는 육상에 뛰어난 才質을 지닌 國民으로서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制覇, 서윤복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壯舉 등 民族의 優秀性을 전 세계에 誇示한 바 있는 歷史와 傳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훌륭한 선배들의 傳統을 이어나갈 좋은 記錄이 나오지 않아 많은 國民들이 안타까와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韓國 마라톤 中興의 旗幟아래 政府를 비롯하여 본 京湖역전대회와 같이 마라톤을 아끼는, 뜻있는 團體의 꾸준한 努力이 하나하나 結實을 거두어 이제 우리 나라의 마라톤도 2時間 12分대의 記錄을 達成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6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육상에서 임춘애 선수가 3冠王을 차지하는 등 육상한국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今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東洋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世界에서는 16번째, 그리고 2次 大戰 後에 獨立한 開發途上國家에서는 첫번째로

올림픽을 開催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그 歴史的인 올림픽이 180일 앞으로 성
큼 다가온 이 시점에서, 본 京湖역전 마라톤대회의 意義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욱 至大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이제 希望찬 새봄의 薰香 속에 저마다 郷土의 名譽는 물론, 이 나라 마라톤
의 將來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꿈나무들이 본 大會에서 마음껏 자기 技倆을
發揮하여 새로운 新記錄을 豐盛하게 맺으므로써 다가오는 서울올림픽은 물론
우리 韓國 육상의 옛 榮光을 되찾는 契機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大田에서의 하룻밤이 이제까지의 피곤을 모두 풀고 다시 힘
찬 새힘을 일으킬 수 있는 편안한 休息이 되므로써 남은 競技에서의 더욱
豐盛한 記錄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韓國 마라톤 中興을 위한 모든 努力을 기울이시는 이종기 中央日
報社 社長님과 關係人士 여러분, 그리고 젊은 꿈나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보
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犠牲을 바치고 계시는 선수와 指導者 여러분들께
深甚한 謝意를 表明합니다.

忠淸南道 醫師會 第39回 代議員 定期總會

1988년 3월 16 일

祝 辭

오늘 서른아홉번째의 忠淸南道醫師會 定期 代議員總會가 이처럼 뜻있게 베풀어 지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아울러서 趙炳得 會長님을 비롯하신 代議員 여러분이 道民 保健向上과 내 고장 發展에 앞장서 주시는 貢獻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致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산적첩 물겹겹이 어려운 일들이 겹쳤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道 醫師會 會員 여러분을 비롯한 道民들의 智慧와 忍耐力를 바탕으로 難關을 오히려 跳躍의 契機로 승화시킬 수 있었음에 대하여 큰 感懷와 矜持를 갖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을 휩쓴 史上 前例없는 물난리로 인하여 水災民은 물론 道民 모두가 失意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水害現場 곳곳에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醫療奉仕活動은 우리 道民 모두에게 勇氣와 希望을 주었던 점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돕는 人情과 和合 그리고 自己職分에 最善을 다해 나가는 社會的 雰圍氣와 價値觀을 바탕으로 우리 地域社會는 물론 國家의 繁榮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의 40년 憲政史에 처음으로 平和的인 政府를 移讓하고 第6共和國이 힘차게 出帆하였읍니다만 앞으로도 國民의 希望과 기대 속에 國

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制의 實施, 그리고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여 世界人이 한마당의 祝典에서 손을 잡는 서울올림픽의 開催 등으로 우리는 先進國隊列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希望찬 앞날中에서 몇 가지를 우선 살펴보아도 中部圈開發의 着手와 國家中樞機能의 持續的인 收容을 위한 大田 大都市圈 開發의 본격적인 推進, 그리고 3百萬 道民의 젖줄인 錦江綜合開發計劃의 着手 등 실로 2,000年代 이 나라 繁榮의 中心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地域社會나 國家的 發展의 加速化에 있어 가장 重要한 것은 무엇보다도 民主의 理念과 價値 속에서 道民和合을 創出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政府에서는 모든 分野에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社會福祉政策을 早期에 實現하고자 今年부터 農漁村地域 醫療保險을 實施하고 있으며 1989年부터는 全體國民이 醫療保險의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의 皆保險實施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醫療界의 當面課題인 醫療傳達體系의 確立, 그리고 保險酬價의 現實化 등 어려운 問題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當局에서는 幅넓게 各界各層의 意見을 收斂하여 合理的인 解決方案을 研究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政府와 우리 地域社會 醫療人 여러분의 努力이 경주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가 滿足할 만큼의 充分한 醫療惠澤을 받지못하는 이웃들에게 여러 분께서 醫療惠澤을 베풀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道民들이 늘 感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값진 社會奉仕活動을 展開하시어 地域社會 福祉向上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서울올림픽이 開催되는 뜻깊은 한해로 國民의 底力 發揮를 통한 人類의 祝典에 우리 醫療界가 一翼을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大田까지 와주신 文太俊 大韓醫療協會會長님께 感謝를 드리면서 忠淸南道醫師會의 무궁한 發展과 代議員 여러분

의 앞날에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女性團體聯合會 定期總會

1988년 3월 16일

祝 辭

오늘 生動하는 季節을 맞아 女性界를 指導하고 이끌어 주시는 女性團體 協議會 여러분이 다섯번째의 年輪을 거뒀한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요즈음에 와서 여성의 社會的인 役割과 寄與에 대한 새로운 視覺과 더불어 모든 分野에서 여성의 地位와 影響力이 커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며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옛날에는 여성의 活動을 家庭에만 묶어 두려는 價値觀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의 눈부신 活躍이 家庭과 社會發展의 原動力이다”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할 時代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價値와 社會的 理念이 보다 밝고 肯定的인 方向으로 變化하고 發展하기 때문에 그 發展의 올바른 趨勢를 能動的으로 收容하고 適應하고자 하는 努力이 그 어느때보다도 切實한 지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近世 100年の 試鍊과 苦難만 하더라도 일찌기 새 文明의 趨勢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學者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發展의 原理는 비단 우리 女性界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지금 새로운 價値와 民主의 理念을 定着시켜 나가는 우리들 모두를 일깨워 주는 教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視野를 넓혀 世界 여러 나라를 눈여겨 볼 때, 家庭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地位와 役割이 크게 保障된 社會 또는 國家와 先進文明과의 關係는 正比例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女性 指導者들이 더 잘아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치는 곧 여러분 女性 스스로와 女性界의 發展이 크면 클수록 이 地域社會와 國家發展이 加速力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第13代 大統領의 就任式을 갖고 第6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새로운 民族自尊의 時代를 열어갈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時代의 創造와 跳躍 그리고 成熟에는 물론 우리 女性들의 보다 큰 役割과 責任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政治的인 役割增大가 곧 女性界 發展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女性 長官, 女性 國會議員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의 文化, 藝術, 體育 등 모든 면에서 男性보다 오히려 世界的인 名聲과 權位를 자랑하는 우리 女性들의 底力 속에서 이 社會와 國家發展의 將來에 큰비중을 두고 싶은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더우기 歷史에 빛을 남긴 偉大한 女性像,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이 고장의 傳統을 지키려는 李在榮 會長님을 비롯하신 女性 指導者 여러분들의 오늘날 活躍에 저는 道民과 더불어 뜨거운 聲援과 期待를 갖는 것으로 오늘 이 모임에 대한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溫陽市一洞事務所間 FAX施設 開通에 즈음한

1988년 3월 17일

멧 시 지

萬物이 躍動하는 이때 溫陽市の FAX施設 開通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急速한 産業化의 時代 變遷에 따라 地方行政이 擔當하여야 할 奉仕의 領域도 廣域化, 高度化를 要請받고 있습니다.

오늘 開通을 보게 되는 溫陽市廳과 洞事務所間の FAX施設이야말로 이와같은 地方行政의 重要な 役割을 充實히 도와줄 것으로 確信합니다.

오늘을 契機로 溫陽市政이 더한층 發展하기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印度 大使 禮訪

1988년 3월 18일

인 사

바쁘신 日程에도 不拘하시고 이렇게 本道를 訪問하여 주신 「수디르 투카람 데바레」 大使님을 眞心으로 歡迎합니다.

아침 일찍 서울을 出發하셔서 午前에 忠南大學校에서 大學生들에게 特講을 하셨는데 大學生들이 印度를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 믿고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大田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 釜山, 木浦와 등거리에 位置한 우리 나라 交通의 中心地로서 政府에서는 大田圈을 國土의 中核地域으로 育成할 計劃이며 또한 政府의 外廳이 漸次 大田으로 移轉해올 展望이어서 行政都市로 發展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忠南은 典型的인 農業의 高장으로 1次産業의 比重이 높은 반면 2・3次産業이 相對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하여 2次産業 比重을 漸進적으로 늘이기 위한 工業振興 計劃을 推進, 都市와 農村에 알맞는 工業을 誘致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는 매우 成功的입니다.

우리 忠南은 옛 百濟文化의 中心地로서 찬란했던 文化遺産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 우리 道民은 이러한 文化의 遺産을 慎重히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또한 百濟後裔로서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忠南은 값진 文化財와 아름다운 山과 바다, 江, 그리고 溫泉 등 豊富한 觀光資源을 가지고 있습니다.

大使께서도 시간나시는데로 우리 道の 觀光地를 자주 찾아 주시기를 勸誘합

니다.

또한 명일 大使께서 訪問豫定인 大德專門研究團地는 韓國 科學技術의 要覽地로서 科學技術大學을 비롯한 各種 研究機關이 자리잡고 있어, 앞으로 研究團地가 完成되는 날엔 大田이 世界的인 科學都市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本道の 訪問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앞으로 大使님과 親交와 友誼가 持續되기를 바랍니다.

晚餐時에 다시 뵙기로 하고 韓國과 印度의 親善友好關係가 더욱 敦篤해 지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忠清南道 青年指導者聯合會 定期總會

1988년 3월 19일

祝 辭

새 봄기운이 大自然을 가득 채운 이때 우리 고장의 青年指導者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이 뜻있는 모임은 여러분 젊은 知性人들이 各者의 바쁜 自己職分中에도 이 時代와 歷史의 現住所를 正確하게 認識하여 내 고장과 國家發展의 最先鋒에서 올바르게 이바지하려는 다짐으로 알며, 道民과 더불어 이를 歡迎하고 여러분의 活動에 無限한 期待를 갖습니다.

일찌기 이 땅의 先覺者들은 젊은이의 意慾과 活躍이야말로 巨大한 汽船을 움직이는 기관실의 박동과 같다는 표현으로 청춘을 禮讚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民族自尊의 時代를 열고, 自由・平等・平和・希望의 새 歷史와 繁榮된 社會, 先進韓國을 創造할 主役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한 도도하게 흐르는 歷史의 강물소리에 귀기울일 줄 알고 그 물줄기를 智慧와 意志의 삼으로 다스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霸氣와 力量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임에 분명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國際化時代를 맞는 環境의 變化, 보다 多樣한 欲求와 期待가 噴出되는 社會的인 與件 등 信念과 實踐이 必要한 挑戰의 時代는 열렸습니다.

이제, 活氣찬 젊음과 霸氣, 挫折과 停滯를 모르는 끈질긴 應戰을 부르는 이때, 진정으로 이 時代와 國家에게 必要한 것은 조용한 實踐, 작은 愛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조용하고 작은 愛國이 모아지고 蓄積될 때 큰 보람과 結實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偉大한 보통사람들의 時代가 여러분의 조용하고 작은 愛國들이 結集되므로써, 크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靑年指導者들에게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새시대 公職者의 姿勢

1988년 3월 21일

特 講

여러분 반갑습니다.

道政에 沒頭하고 있다 보니 사실 一線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機會를 갖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個別的으로 對話할 수 있는 時間은 없었으나 구리빛 얼굴로 고생한 痕迹이 역력하지만, 그러나 빛나는 視線과 다부진 표정에서 여러분의 信念과 意志를 읽을 수 있고 또 한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一線行政의 테두리 속에서도 묵묵히 地域社會 發展과 國家의 施策 具現을 위해 맡은 바 所任에 最善을 다해온 公務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따뜻한 慰勞와 致賀를 보냅니다.

특히, 昨年 한 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예기치도 못한 일들이 겹친데 덮치고 또 겹치는 多事多難의 連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獻身的인 奉仕와 피땀어린 努力으로 모든 시련을 슬기롭게 克服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道政이 새롭게 發展할 수 있는 奮發과 跳躍의 契機로 승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잘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方向을 찾는다는 姿勢와 業務推進能力을 쌓는 것이 必要합니다.

그 理由는 恒時 時代는 變化하고 行政의 客體인 住民들의 意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公務員들은 그보다 앞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本人도 오랜 公職 生活을 통하여 많은 教育을 받아 왔지만 이 教育도 그러한 次元에서 行政의 새로운 姿勢와 知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被教育者가 되면 이유없이 피곤하고 被動的인 姿勢가 됩니다.

더구나, 우리 公務員教育院의 施設과 教育環境이 滿足스럽지 못해서 여러분이 教育을 받기에는 적지 않은 不便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改善되리라 믿고,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職務遂行 能力을 再充填하는 所重한 機會로 活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들어 창밖을 보면 밝고 화사한 새 봄이 바로 우리 손끝에 닿을 것처럼 가까이에 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은 흔히 萬物이 蘇生하는 希望과 躍動의 季節이라고 일컬으며 出發과 始作 그리고 奮發의 意味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한달 전에 “보통사람”으로 불리는 새로운 指導者와 함께, 自由・平等・平和를 追求하고 希望의 나라를 향해 “第6共和國”이라는 배가 힘차게 닻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른바 “民族自尊의 새 時代”를 향해 民主主義와 先進國家의 成就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始作하면서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國家의 모든 分野에 걸쳐서 새 물결과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西海岸時代가 우리의 豫想보다도 앞당겨 到來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地域開發事業이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습니다.

權威主義行態 改善을 위한 150가지 道政의 改善 施策을 發掘하여 推進중에 있으며, 各種 法令 및 民願書式中 權威主義的인 用語 1,233件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2件의 道 行政事務를 市長, 郡守에게 그 權限을 委任하였으며 道民 提案制度를 活性化하는 등 全國 市・道中 가장 能動的이고 轉向的으로 道政 全般에 걸쳐 다시 始作한다는 心情에서 새로운 時代 變化에 呼應하고 民主的인 環境과 制度의 定着을 試圖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時點입니다.

여러분들도 過去와는 뭔가 달라지고 있고, 종전에 보고 들던 것과 다른 價値와 方法을 지향하고 있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으로는 우리 地方 行政環境이 時時刻刻 달라지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선 社會環境 즉 우리 地方行政의 環境으로 볼 때 “民主化” 雰圍氣가 확산되고 또한 이에 대한 國民的 興望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產業化, 都市化, 情報化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社會는 다원화, 다양화, 다층화되는 社會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1960年代以後 꾸준히 구축되어온 產業化, 近代化의 產物입니다.

產業化, 近代化가 進行되면서 牧歌的이던 우리의 農村中心 社會가 흔들리는 대신 都市가 늘어나고 社會의 流動性이 높아졌으며 言論媒體에 접하는 人口가 늘어나고 教育水準이 크게 向上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農村社會의 單純한 社會環境, 價値, 倫理 등이 複雜하게 되는 것은 必然的입니다.

우리가 백년 전만 해도 鎖國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輸出入國의 旗幟아래 輸出을 크게 장려하고 國民의 海外進出과 學術文化의 交流가 活潑해짐으로써 急速한 國際化, 開放化 時代를 經驗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最近 輸出第一主義로 치달은 지난 30년 가까이 우리 社會는 急速한 發展과 跳躍을 이룩했으나 폐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소 毀損된 傳統의인 價値, 倫理, 制度, 意識의 復元과 再生 宣揚 등에 혼신의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住民意識과 慾求가 顯著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高學力 人口의 增加로 中產層의 幅이 넓어짐에 따라, 보다 나은 삶의 質을 원하는 階層, 分配의 改善을 要求하는 勤勞者들의 큰 목소리, 또한 相對的으로 文化生活, 教育, 所得 등 疎外感을 느끼는 農村社會의 不滿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行政 自體的으로 地方化, 分權化가 促進

되고 무엇보다도 4半世紀 만에 住民自治制의 復活을 통해 “中央의 論理”와 “官廳의 論理”대신에 “地方의 論理”와 “住民의 論理” 그리고 그 원활한 關係가 擡頭되고 이를 원만히 設定하고 維持하는데서 地方自治의 成功與否가 左右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 政府가 出帆하고 地方 行政環境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데 對應하여 우리 地方公務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行政環境이 달라짐에 따라 公職者の 位置와 役割이 새로워져야 되고 公務員에게 要求되는 德目이 再定立되어야 함은 必然的인 歸結입니다.

우리가 成長함에 따라 心에 맞는 옷을 새로 맞춰 입듯이, 새 政府의 出帆과 새로운 環境變化에 適應하여 새로운 改革意志를 地方的으로 具現하기 위해서는 地方公務員의 認識과 發想의 大轉換이 要求됩니다.

時代的 潮流에 따라 民主合理行政의 새로운 章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艱요한 課題가 權威主義行態를 刷新하는 일입니다.

盧大統領이 闡明한 “民族自尊의 時代”는 바로 權威主義를 청산하고 평범한 常識과 順理를 尊重하는 “보통사람들의 時代”를 열어가고자 하는 意志의 集中된 表現입니다.

大統領 就任式 場所를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議事堂 앞으로 옮겼고, 大統領讚歌와 閣下라는 尊稱을 없앴으며, “나는” “본인은”이라는 어투를 “저는”이라는 겸손한 表現으로 바꿨으며 봉황의 문양 대신에 무궁화를 많이 쓰는 등 우리에게 신선감을 주는 새로운 모습과 雰圍氣를 就任式바로 그날부터 우리들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權威主義體制로서는 다원화, 다양화, 다층화된 社會의 복잡미묘한 構造와 갈등을 効率的으로 管理해 갈 수는 없을 것이며, 社會 各部分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제 자리를 지키면서 利害의 상충을 自律적으로 調節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時代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公職者들은 이러한 時代의 새 흐름에 同參해 나가기 위하여 마치 병아리의 誕生과 같이 나 스스로 구태의연한 알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世界로 나서는 각고의 自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公職內部에 있어서는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行政慣行이나 風土를 과감히 버려서 부드럽고 自律의이며 生産의인 行政風土를 造成할 要請을 받고 있으며 上級者는 指示하고 下級者는 무조건 服從만 하는 上命下撰의 형태에서 이제는 의견이 上下左右로 스미고 交流하는 水平과 垂直관계가 조화되는 人和와 結束의 行政風土를 造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住民과 公務員의 關係에 있어서도 官權 爲主의 군림하는 行政姿勢와 독선적이고 수직적이며 “무엇을 하시오” 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수평적 關係로 轉換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往復行政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道는 이미 150가지의 實踐課題를 發掘, 앞서가는 民主時代의 忠南道政을 全國에 誇示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道民에게 약속한 이상 實踐이 용이한 것부터 段階別로 推進하고 우리의 助長 行政機關뿐만이 아니라 모든 有關機關과 住民에게 이를 과급 擴散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道가 전국의 示範道로서 손색이 없도록 계속 實踐課題를 發掘 改善하여야 할 책임과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公職者들이 “보통사람시대”를 指向하고 있는 時代의 흐름을 잘못 理解하여 無事安逸과 소극적인 業務姿勢로 當面한 業務 推進에 소홀한 感이 없지 않습니다.

權威主義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高壓的이며 경직된 姿勢 등 위화감을 주는 行政行態를 改善하자는 것이지 住民에 대한 상대적 권위나 신뢰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行政內容에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를 解釋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權威主義 불식과 함께 法秩序를 깨뜨리는 一切의 行爲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하고 엄격하게 處理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傳統的으로 지켜온 美風 良俗은 더욱 所重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地方公務員은 그 地域社會에서 國家를 代表하는 “政府의 얼굴” 이요 “國政의 거울”이기 때문에 住民으로부터 尊敬과 신뢰를 받는 모범된 行動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住民들은 地方公務員 한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내뱉는 불손한 言辭 한마디나 무례한 行動 하나를 보고 公務員 社會와 政府 全體를 評價하는 基準으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사람이 잘하면 公務員 모두가 稱讚을 듣고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욕을 먹게 됩니다.

아울러 地方公務員 한사람의 잘잘못이 곧바로 行政의 잘잘못 또는 政府의 잘잘못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公과 私를 구분하고 부정, 不義와 타협해선 안되며 節度있고 예의바른 태도를 持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姿勢는 職場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公務員의 私生活에 있어서도 倫理와 秩序를 지키며 品位있고 尊敬받는 模範市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公務員은 住民慾求와 國內 情勢의 變化에 대한 바른 감각을 가지고 모든 施策의 決定과 推進을 與件과 狀況에 유리하게 彈力, 伸縮의으로 운용하는 姿勢가 必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住民보다 앞서가는 專門人의 能力과 時代보다 앞서가는 재빠른 적응력 내지 창조력을 갖추어야 하며, 問題의 核心을 파악하는 관찰력과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分析力 그리고 結論에 대한 강한 推進力은 公務員資質의 三大要素입니다.

종전에는 住民들의 知識水準보다 우리 公務員들의 水準이 높다고 認識되어 왔으나, 最近에는 知識의 보편화 高學力化 現象과 매스컴의 發達이 促進되면서 오히려 住民들의 知識水準이 公務員들보다 앞서가는 傾向이 있습니다.

일찌기 國家社會發展의 原動力으로 스페터가 “創業家 精神”을 강조하였고 토인비가 “創造的 少數”를 내세웠듯이 地方公務員이 계속 地域發展의 主役이 되기 위해서는 住民보다 앞서가는 專門家の 能力과 眼目を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一人三役을 하는 바쁜 시간 가운데 教育을 받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보다 次元높은 能力開發과 보다 確固한 時代感覺을 갖추어 地方行政을 擔當하는 건인차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습니다.

특히 1988년今年 한해는 13代 國會議員選舉와 서울올림픽 개최 그리고 地方自治制 實施 등 民主와 繁榮의 탄탄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는 歷史的 轉換期입니다.

이러한 時期에 우리모두는 한 배를 탄 共同運命體로서, 精誠과 힘과 슬기를 모아 希望과 무게를 함께 지고 오늘의 轉換期에 先進韓國 創造의 탄탄대로를 달려야 합니다.

歷史는 단순한 사실의 피동적인 記錄이 아니라 人間의 부단한 挑戰과 應戰의 過程에서 創造되는 것이며 發展과 變化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끈질긴 努力에 의해서 成就되는 것입니다.

우리모두 近世 100년의 시련과 60년대 이전의 無에서 有를 만들어낸 開拓者로서 創造的인 불길을 새로 지피고 우리 世代와 우리 後孫들이 거두어 들일 民主와 福祉의 풍요로운 열매를 낳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을 기약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教育期間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變化와 挑戰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發展을 主導해 가기 위한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研究하고, 새로운 心性과 眼目を 키우는 所重한 契機가 되기를 바라며 希望찬 새 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와 家庭에 더욱 健康과 幸運이 充滿하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의 健闘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行政行態의 民主化實踐 다짐 教育

1988년 3월 23일

訓 示

우리는 이제 새 時代를 맞았습니다.

主觀的으로는 民族自尊의 時代이자 客觀的으로는 先進國家의 成就時期로 그 出發點이 바로 第6共和國 出帆임은 우리 公務員뿐만 아니라 國民 모두의 共感이요 合意입니다.

이에 따른 根本理念은 民主化요 原動力의 하나가 行政의 刷新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權威主義 清算과 行政行態의 民主化實踐”을 다짐하는 全職員에 대한 教育과 다짐을 갖게 되어 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盧泰愚 大統領께서는 就任과 더불어 “보통사람 시대”를 主唱하시고 政治, 經濟, 社會, 教育文化 등 모든 分野에 걸쳐 權威主義를 清算하고 普通사람의 常識과 順理에서 出發한 哲學과 行動을 強調하시면서 各種 行事를 비롯 모든 國政을 펴나가는데에 直接 模範을 보이고 實踐하고 있음을 目擊하였을 것입니다.

現在 中央은 물론 地方 곳곳에서 “보통사람의 시대”具現이 可視化되고 있어 國民들의 共感과 社會 雰圍氣를 밝고 明朗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도 일찌기 “權威主義 清算과 行政의 民主化”를 道政의 重點施策으로 내걸고 幹部會議 때나 全職員 朝會時를 비롯 지난 年初 市郡 一齊巡視時 이 分野를 무엇보다도 強調하였고 또 道 企劃團에 이 問題를 重點 研究토록 課題를 주어 이미 中央日刊誌를 비롯한 매스컴에 大的으로 報道된 바

있습니다.

136 가지의 自體推進計劃을 樹立 實踐中에 있고 앞으로도 繼續 補完하면서 實踐 體質化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行政行態의 民主化 實踐”은 새 時代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거스를 수 없는 課題임을 銘心하고 “거듭 태어난다”는 覺悟로 認識과 發祥의 大轉換과 함께 스스로 實踐하고 業務推進이나 對民接觸을 통해서 波及, 擴散시키므로써 새 時代 行政環境에 積極 副應해 나가야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事項은 “權威와 權威主義에 대한 概念”을 確實히 區分해야만 하겠습니다.

權力和 威勢로서 服從을 強要하는 權威主義, 다시말하면 목에다 힘주고 거드름 피고 不遜, 倨慢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強壓의이고 高壓의인 姿勢 등은 果敢히 清算해 나가되 能力과 人格을 바탕으로 한 權威는 반드시 지키고 尊重해 나가는 公職社會 또는 地域社會의 雰圍氣가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 助長行政은 住民으로부터 信賴를 바탕으로 한 權威가 없다면 行政을 推進할 수도 없고 結實도 없거나 있어도 微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公職社會內에서나 對外的인 住民關係에 있어서 형식은 부드럽고 民主的이되 行政의 內容이나 過程, 結果만큼은 權威를 가져야 합니다.

第13代 大統領 就任辭에서 昭詳히 밝혀졌듯이 그 뼈대를 간추려 보면,

安定 속의 民主改革 推進

國民的 團結과 大和合의 實現

고루 잘 사는 先進經濟 發展

質 높은 教育, 學術, 文藝의 振興

安保態勢와 統一基盤의 確立

서울올림픽의 成功的 完遂

등 國運開拓의 國政方向을 充實히 이끌고 나감은 물론 地自制 實施를 비롯 地方化 時代를 여는 地域發展事業의 推進 등이 闡明되었습니다.

이러한 國政方向을 道民들에게 昭詳히 알리고 함께 成就해 나갈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山積해 있는 이때 權威主義가 아닌 行政의 權威는 地方

行政의 絶對的인 生命입니다.

다시말해 스스로 權威를 상대방으로부터 강요하는 것이 權威主義이고 남이 自發的으로 認定해 주는 權威있는 行政이 우리가 바라는 行政의 行態이고 目標인 것입니다.

앞으로 “民主化다 自律이다 開放이다”하며 보통사람이나 普通化 時代를 잘못 理解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비리 그리고 무질서 등의 추방에 우리 公務員들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특별히 이 문제를 연구한 李明洙 係長으로부터 詳細한 說明이 있겠지만 오늘 敎育의 核心인 “權威主義 清算과 行政行態의 民主化 實踐”을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 前提되어야 할 세 가지와 實踐課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강조하겠습니다.

前提되어야 할 세 가지는,

첫째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과 같이 上級機關 上級者の 率先實踐이 本施策 成敗의 關鍵임을 銘心하고 윗사람이 模範을 보이면 下級機關 下級者는 自然的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손쉽고 즉시 施行이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하되, 의식전환, 비예산, 雰圍氣 造成, 制度化的 推進

셋째, 指示 일변도의 무리한 방식을 지양, 機關別, 業務別로 창의적으로 實踐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實踐課題 세 가지는

첫째, 組織內部的 民主化가 行態改善의 첫걸음이고 組織 活性化의 열쇠임을 자각 “組織內部的 民主化”부터 推進

둘째, 地方行政의 當面課題가 國民信賴에 있음을 認識하여

— 過去의 惰性的 信賴 沮害要因을 根源的으로 摘出 改善하는데 앞장서야겠으며,

— 展示行政, 報告爲主行政, 拙速浪費 行態를 完全 拂拭하고 住民 生活現場의 些少한 不便·不滿이라도 摘出 是正,

셋째, 住民參與, 公開, 輿論 對話行政 強化 등을 통하여 行政過程을 民主的으로

로 運營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와같이 國民 個個人の 自由와 權利를 중시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의 實踐 課題가 充實히 履行될 때 깨끗하고 正直하며 信賴받는 政府像 具現은 達成될 것 입니다.

結論的으로 公務員 저희들끼리 바쁘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教育에는 外部人士를 招聘하지 않고 우리 道の 李明洙 사무관을 위촉, “진리는 평범 속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權威主義 清算과 行政行態의 民主化 實踐課題는 特出한 理論이나 深奧한 學問 등 專門性を 要求하지 않을 뿐 아니라 李사무관은 기획단 요원으로 동시책 창안시 實務總責을 맡아 直接 關與하였고, 教育院, 교관요원으로 강의기법도 익혔으며 公務員 組織社會와 道政을 폭넓게 企劃해 왔기에 우리가 새롭게 바뀌야 할 公務員의 姿勢를 잘 說明할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마련합니다.

아무쪼록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우리의 地方行政 發展이 行政行態의 民主化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認識, 새 時代를 맞아 民主, 合理行政의 새로운 章을 펴나가는데 우리 모두 主役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感謝합니다.

道内 機關長, 企業人에게 보내는

1988년 3월 23일

書 翰

새 時代 새 봄을 맞아 貴下의 幸運과 事業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우리 道에서는 그동안 農漁村의 힘찬 開發과 農漁民 農外所得의 增大를 위하여 農漁村 工業化 7個年計劃을 樹立하고 農工地區 開發과 創業企業의 誘致에 道政의 모든 力量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農漁村 工業化를 成就하는 일은 農漁村地域 工業의 立地與件과 環境이 아무래도 都市地域에 比하여 여러 가지로 不利한 점이 있고 아울러 農漁村地域의 與件上 入住希望業體의 誘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도 事實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우리 道가 農漁村 工業化施策을 推進한지 4年째 접어 들었습니다만 2年前만 하여도 道内 入住企業 需要와 入住후 正常的인 事業經營을 매우 憂慮하였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初부터 이른바 3低시대의 호기로 加速화된 國家經濟의 高度成長과 우리 道가 지닌 交通, 地形, 用水, 電力利用의 便利한 점 등 企業環境에 最上의 立地로 各광을 받으면서, 道・郡圈을 비롯한 全國 各處에서 많은 企業들이 우리 道内 農工團地에 工場入住를 競爭的으로 申請함으로써 '87年내 현재 관내에 22個의 農工地를 開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道에서는 내 고장 發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優秀業體를 選別하여 300餘個의 工場을 入住토록 하였으며, 창업 지원시책에 의한 창업기

업만도 23個 業體를 誘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올 해에도 현재 150個 以上の 企業이 道內 農工地區에 入住를 申請하고 있어 90年度까지 우리 道가 造成하고자 하는 50個 農工地區 開發計劃은 그 目標 時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地域經濟 發展을 위하여 더없이 기쁘고 所望스러운 農漁村 工業化의 加速化 現象은 모두가 우리 고향에 오셔서 企業을 일으키신 企業人 여러분의 뜨거운 呼應으로 생각되어 다시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우리 道에서는 앞으로 入住企業의 圓滑한 運營과 發展을 위하여 工場建築, 雇傭人力, 企業管理 등 事業競爭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問題들과 隘路事項을 항상 把握하여 우리도 自體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事項은 早速한 措置를 講究하고자 합니다.

또한 該當機關에서 취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는 有關機關과 協議하여 誘致 企業의 所望이 最大限 收斂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入住企業인 여러분의 意慾을 북돋아 드리고자 하오니 주저없는 意見을 建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機會에 入住企業인 여러분에게 다음 몇 가지 事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工場建築의 促進입니다.

우리 道에서는 入住業體의 工場建築을 促進하기 위하여 農工地區의 工團이 完備하게 造成되기 전이라도 公正상으로 보아 工場建築이 可能할 때는 工場建築工事を 並行하도록 市郡에 示達하였아오니 貴社의 工場建築과 稼動을 最大限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地域住民의 優先的인 雇傭입니다.

農工地區 開發과 創業企業 誘致施策의 優先的인 課題는 農漁村 地域의 農外 所得增大에 두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같은 施策의 취지를 惠諒하시어 地域住民을 優先的으로 雇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原·副資材의 現地調達입니다.

貴社에서 所要되는 原·副資材중 그 地方에서 購入할 수 있는 資材는 地域

의 發展과 地域經濟의 生活化를 위한 次元에서 最大限 그 地域 안에서 購入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네째는 勞使間의 圓滿한 協同體制의 構築입니다.

企業의 健全한 發展과 勞使間의 紛爭을 미리 防止할 수 있도록 健實한 企業倫理를 바탕으로 서로 信賴하고 共存共榮하는 새 時代의 企業環境을 能動的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道에서는 앞으로 農漁村地域의 開發과 所得增大와 여러분의 企業經營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智慧와 努力을 아끼지 않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倍前의 協助가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貴下와 貴社에 無窮한 發展이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在釜 忠友會報 創刊

1988년 3월 23일

祝 辭

이번에 故鄉을 떠나 멀리 港都 釜山을 中心으로 따스한 情을 나누며 오순도순 살고 있는 40萬 在釜 忠友會員 여러분이 그 結束과 發展을 加速시켜 줄 會報를 創刊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故鄉땅을 굽이치고 때로는 비단결로 흐르는 錦江의 姿態와 같이 묵묵히 그러나, 그침없이 未來를 追求하는 忠淸人의 底力을 고향을 떠나서 더욱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반갑고 가슴 뭉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여름, 여러분의 고향이 歷史에 그 記錄이 없는 水害를 당하여 茫然自失해 있을 때, 在釜 忠友會員 모두의 뜨거운 情誠을 모아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을 이곳 고향사람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鄉友會員 代表 여러분이 本道 道廳을 訪問했을 때 마침 市長・郡守들이 모여 水害對策을 熟議하는 중이어서 여러분을 紹介하자 뜨거운 박수와 더불어 이에 勇氣 百倍하여 災害復舊의 삼길에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本人의 公職生活를 통해서도 가장 感銘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釜山에 계신 鄉友 여러분이 잠시도 잊지 못하고 또 잘되기를 비는 이곳 고향 忠淸道는 정말 새로운 跳躍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國家發展의 核心地域으로 浮刻되는 大田圈의 開發 그리고 國家 中樞機能의 擴大와 더불어 西海岸時代의 展開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날 中原大陸과 文物交流의 橋頭堡요 海上활동의 찬란한 본거지였던 옛 영화가 이제 긴 歷史의 回廊을 돌아서 다시금 벽찬 未來와 希望이 동트고 있는 내 고향입니다.

더 넓게 바라본다면 世界 經濟와 文明의 焦點이 서서히 太平洋으로 모아지는 2,000 年代를 앞두고 그 물결의 中心地가 될 곳이 韓半島中에서 西海岸地方, 바로 여러분의 고향 忠淸땅이라는 事實은 世界의 專門家들이 指摘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고향이 이처럼 부푼 期待와 希望을 가졌기에 그 期待와 希望이 앞당겨지고 더욱 繁榮할 수 있도록 보다 큰 聲援과 鄉土愛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 땀흘려 일하고 團結해야 마땅하지만 고향을 떠난 분들의 愛鄉心이 또 큰 힘이 된다는 事實은 하나의 眞理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한 民族이나 國家의 發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 곳곳에 퍼져있는 이스라엘 民族과 그들 國家의 再建 그리고 華僑의 活躍과 中國民族의 潛在力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향을 떠난 여러분이나 고향에 있는 우리들이나 다 같이 뜨거운 鄉土愛와 질긴 結束力으로 歷史와 文化의 뿌리깊은 忠淸의 繁榮을 위해 우리後悔없이 일하자는 다짐으로 在釜 忠友會報의 創刊을 心祝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大韓電氣協會 忠南支部 定期總會

1988 년 3 월 25 일

致 辭

오늘 새 時代 새 봄을 맞아 그동안 地域社會 發展에 남모르게 기여해 오셨던 大韓電氣協會 忠南道支部 會員 여러분이 한데 모여 民主和合의 새歷史 創造에 앞장서고자 하는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한달 전에 우리는 國民의 選擇과 合議에 의한 直接選舉로 뽑은 大統領의 就任式을 感銘깊게 지켜 본 바 있습니다.

그것은 大統領의 就任式이라는 하나의 行事に 단순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就任式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希望과 自負心으로 우렁찬 民族의 自尊時代를 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새 抱負와 힘찬 出發이 있기까지 우리는 적지않은 試鍊과 葛藤도 있었으나 이것은 하나의 成長과 跳躍으로 가는 길목에서 社會와 國家發展의 에너지로 승화되고 또한 값진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난날의 허물이나 아쉬움 그리고 부족함에 戀戀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課業의 보람있는 改善과 成就에 혼신의 努力을 기울여 나가는 意志가 必要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의 發展過程에서 빚어진 아쉬움이나 조그마한 잘못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經驗은 오늘과 내일을 사는데 있어 所重한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電氣分野에서 열심히 일 하시면서 經驗하신 일이지만 하나의 試鍊을 克服하거나 잘못된 점을 고치고 만회하는 過程에서 技術도 蓄積되고 事業도 풀리게 된다는 점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까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좋은 技術과 가다듬으신 人格을 내고장 發展을 위해 유감없이 發揮해 주실 것을 오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電氣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必須不可缺少한 公益技術로서 무엇보다도 誠實하고 正直한 姿勢로 精誠을 다하여야 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억도 생생합니다만 2년전 民族正氣의 道場이요 우리 300萬 道民의 自負와 矜持가 모아진 獨立記念館의 火災가 電氣工事에서 일 하던 몇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점입니다.

一線 現場에서 이 分野에 從事하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工事의 規程을 지키면서 精誠을 기울였더라면 것처럼 크나큰 不幸은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을 크나큰 教訓으로 삼아서 평소 電氣協會 忠南支部 會員 여러분의 地域社會의 產業經濟活動을 圓滑하게 하고 아울러 住民의 貴重한 生命과 財産을 보호한다는 점을 새겨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先進社會의 建設 그리고 2,000년대 初까지 世界의 10대 經濟大國으로 成長하려는 原動力은 바로 모든 分野에서 最善을 다하는 각자의 獻身이 모아지고 結集될 때 비로소 可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當局에서는 電氣協會와 같은 民間團體의 斬新한 活動과 創意的인 努力을 最大限 保障하고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活氣찬 奉仕, 그리고 團結과 和合을 통해서 李載赫 支部長님을 비롯한신 會員 여러분의 無窮한 發展과 幸運이 계시기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忠南體育會 代議員總會

1988 년 3 월 25 일

인 사

代議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會議에 參席하여 주시고, 또 저희 道政發展을 언제나 支援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87년도 忠南體育의 成果와 豫算決算을 마무리 짓고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決算總會는 제가 道知事로 赴任한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 會議에서 마음 속으로는 열심히 일한 한해였다고 생각해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86년보다 體育振興에 많은 成果가 있었다고 봅니다.

少年體典에서 綜合成績은 前年보다 뒤졌지만, 메달 獲得面에서는 2位를 차지하고 全國體典에서는 綜合점수면에서는 1等級 浮上한 4位를, 메달면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메달을 獲得했으며, 高等部 全國1位, 女子最優秀選手賞 獲得과 韓國新記錄 8個를 樹立, 競技力 向上에도 크게 寄與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各種 全國大會에서도刮目할만한 成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야구의 大田高, 天安北一高 優勝을 비롯하여 모두 38個 大會에서 優勝을 안았고, 準優勝 10個를 獲得하였습니다.

또 85년부터 日本 구마모도縣과의 體育交流競技에서도 우리 道가 3連覇라는 優位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88 서울올림픽大會에 우리 道の 많은 選手가 태능選手村에 入村金메달을 多數 차지할 希望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選手와 任員들의 피나는 努力과 이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會長님의 뜨거운 支援의 結果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會長님들의 뒷바라지에 대하여 衷心으로 感謝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成果만을 믿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課題가 解決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포츠는 冷情한 勝負의 世界로 努力하지 않으면 落伍者가 되는 법입니다.

選手와 任員은 혼연일체가 되어 繼續 精進해 나아가야 하며 會長님들이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選手들의 뒷바라지에 온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은 서울올림픽 때문에 全國體典과 少年體典을 各 聯盟別大會에 綜合 開催하므로 選手를 보살피기가 과거 어느때보다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事務局長으로부터 綜合體典 出戰計劃 報告가 있겠습니다만, 種目別로 日程이나 開催方法이 틀리고 開催場所도 全國에 散在되어 支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會長님들이 이끄시는 團體가 自律적으로 積極 대처하여 難關을 克服해야 하겠습니다.

또 새로 出帆한 第6共和國에서는 體育誠金 등 準租稅性 誠金募金을 一切 容납치 않는 關係로 團體運營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정된 豫算으로 늘어나는 支出을 감당치 못하는 現實情을 勘案할 때, 자체 해결에 依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든 支援方案을 檢討할 豫定입니다만, 團體別로 結緣된 後援團體와 能動的으로 대처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大田市の 直轄市昇格에 따라 體育會도 分離해 나가게 됩니다만은 벌써 우리 體育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全國體典을 눈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때문에 더욱 苦楚가 크

다고 봅니다.

大田市の 體育會 新設問題は 연말이나 내년초에 舉論될 事案이므로 會長님들께서는 조금도 動搖치 마시고 體育會를 위해 끝까지 聲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탁만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忠南體育發展에 한 마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會長님들이 이끄시는 各團體의 無窮한 發展과 會長님들께서 하시는 事業이 늘 繁昌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第6回 忠清南道 演劇祭

1988년 3월 29일

激 勵 辭

화창한 새봄에 이고장 演劇人들의 큰 잔치인 忠清南道演劇祭가 그 여섯번째의 幕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演劇藝術을 통해서 鄉土文化의 새로운 活力素를 부어 나가고자 하는 이 演劇祭는 그동안 地方演劇界의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꾸준한 發展을 거듭하여 이제 演劇人 뿐만 아니라 道民의 사랑을 받는 藝術祭典으로 그 基盤을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演劇의 熱氣는 이고장 演劇藝術 發展을 위해 鄉土 演劇人들이 오로지 藝術이라는 한 길로 精進해온 情熱과 이에 呼應하는 道民들의 聲援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기꺼이 歡迎하는 바입니다.

演劇은 우리의 삶과 意識世界를 보다 사실적으로 照明해보는 綜合藝術이며, 삶을 위한 메타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어느 藝術分野 보다도 많은 精誠과 努力이 要求되고 있습니다.

특히 今年은 各 地方 演劇人들이 서로의 藝術魂과 創作力量을 선보임으로써 地方演劇의 보다 힘찬 前進과 跳躍을 摸索하는 해입니다.

또한 全國演劇祭가 우리 고장 大田에서 開催된다는 점에서 이고장 演劇人은 물론 온 道民의 聲援과 智慧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今年에는 2個 劇團만이 參加하여 量的인 면에서는 多少 아쉬운 感도 없지만 두 作品 모두 훌륭한 藝術性을 간직하고 있으며 充分한 練習으로 다

들어진 것이기에 어느해 보다도 알차고 水準높은 舞臺藝術의 眞價를 보여주리라 確信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演劇祭를 契機로 忠南演劇이 보다 次元높게 꽃핌으로써 地方化時代를 여는 郷土文化의 旗手로 成長하기를 期待하면서 道民 여러분의 아낌없는 參與와 聲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演劇祭를 主管하며 行事準備에 勞苦가 크신 韓國演劇協會 忠南支部 吳南世 支部長님을 비롯한 우리 고장 演劇人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感謝합니다.

“해돋는 한발” 出版 紀念會

1988년 3월 30일

祝 辭

오늘 李在奂 博士님의 力著 “해돋는 한발”이라는 政治隨想集 出刊을 진심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엇그제 冊을 받고 읽어 본 所感은 政治 隨想이라기 보다는 社會 隨想集 또는 우리들 人間의 生活 隨想集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政治가 人間의 삶 속에 介在된 모든 領域의 問題이고 또 庶民들의 보다 나은 生活 向上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찌기 大學의 講壇에서 가르쳐도 보시고 中央部處의 要職을 두루 거친 高位 公務員으로서 또 부지런한 庶民의 代辯者인 國會議員으로서 넓고 깊은 經驗을 쌓으신 李 博士님의 人間的인 모습이 잘 담겨진 책이 이번 出刊된 著書의 內容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을 精讀해 보지는 못하고 몇 가지 읽어본 소회로는 여기 李 博士님의 人生觀에 “사랑”이 많이 깃들여 있다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표현해 봅니다.

그 사랑의 程度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 段階로는 關心이요, 그 다음에는 무언가 도와주고, 함께 苦樂을 하는 同參이요, 더 깊은 사랑이라면 그 對象에 대한 信念에 찬 獻身과 奉仕가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定義를 해봅니다.

이 博士님의 책에서 發見되는 사랑의 對象은 그 周邊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친지요, 마을이요, 고향이며 地域社會 그리고 國家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이웃, 苦痛스런 親知의 期待와 渴求가 있는 故郷과 地域社會의 일입니다. 또한 人間的인 關係와 因緣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對象입니다.

저는 늘 同僚 公務員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愛情을 가져주시오. 그리고 魂을 불어 넣으시오. 같은 일 같은 業務라도 그냥 義務的으로 하는 일과 愛情을 갖는 일, 魂을 불어넣은 作品은 그 量이나 質에 있어, 또 형식과 內容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여러분 분야의 經綸을 쌓으신 李在奐 博士님께서 다시 내 고장과 이 시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뛰어 나가는 歷史를 더욱 사랑하기 위한 出師表를 내신 이 時點에서 그의 모든 人生과 抱負 그리고 哲學을 담은 力著의 出刊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88 년 3 월 30 일

인 사

會員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우리 고장의 發展을 위해서 恒常 獻身的으로 奉仕活動을 하고 계신 朴浩達 會長님을 비롯한 會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진심으로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今年도 벌써 3月이 다 지나고 봄기운이 무르익는 4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國民들의 期待와 祝福 속에 이제 새 共和國이 出帆한지 1個月餘가 지났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地域이 安定되고 活氣에 차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8日에는 大統領께서 就任 後 처음으로 우리 道를 巡視하시면서 道政의 여러 分野에 걸쳐서 깊은 關心表明과 함께 忠南의 開發에 관하여 매우 고무적인 希望을 안겨 주고 가셨습니다.

이미 報道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關心을 表明하신 事項을 紹介해 드리면, 百濟文化圈 開發에 그동안 未洽했던 點을 指摘하시고, 短時間內에 集中 投資하도록 이미 文公部에 指示하셨다는 말씀과, 앞으로 百濟文化圈을 慶州에 버금가는 觀光地로 開發할 것도 檢討 指示하셨으며 또한 西海岸 開發에 관하여 깊은 關心을 表明하시면서 中央과 協助하여 開發하되, 開發 利益이 住民에게 還元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大田直轄市昇格時 行政區域改編問題는 住民의 輿論을 반영하도록 하는 동시, 準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도 아울러 指示하

섰고 大田市民의 關心이 集中되어 있는 屯山新市街地 開發과 市街化調整區域의 規制로 因한 市民들의 不便을 소상히 아시고 中央과 協助하여 市民의 不便을 最小化하도록 하라는 指示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밖에 農漁村醫療保險料의 政府支援率을 30 %에서 50 %로 引上할 것을 政府에서 檢討하고 있으니 早期에 定着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올림픽 準備와 水害復舊의 完璧한 마무리에도 關心을 가지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道에서는 百濟圈 開發과 西海岸圈 開發을 中央과 協助하면서 말로만의 開發이 아닌 實質的인 開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道政에 가장 力點을 두어 推進해 나갈 計劃입니다.

開發委員 여러분께서도 깊은 關心을 가지시고 指導해 주시고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자리를 빌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서울올림픽이 170 여일 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道와 市郡에서 道民 參與霧圀氣 造成이나 環境淨化, 各種 業所 水準높이기 運動 등을 推進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렇다할만 한 曇造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화창한 봄날과 함께 올림픽 새 마을 運動에 會員 여러분께서 積極 參與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開發委員會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 여러분의 健康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第6回 忠清南道演劇祭 施賞式

1988년 3월 30일

激 勵 辭

오늘 和暢한 봄기운이 더욱 완전한 3월의 마지막 길목에서 이고장 演劇人은 물론 많은 演劇 愛好家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忠南演劇의 새로운 發展을 摸索하는 道演劇祭의 여섯번째 結實을 나누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演劇祭에서 훌륭한 作品과 뛰어난 演技力으로 入賞의 榮光을 안으신 受賞者 여러분께 祝賀를 보내며 비록 受賞은 하지 못하셨지만 最善의 努力으로 水準 높은 舞臺를 보여준 劇團 및 演技者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激勵을 보냅니다.

우리 道演劇祭는 그동안 道民의 뜨거운 사랑과 精誠 속에 꾸준히 成長 發展하면서 格調 높고 鄉土色 짙은 舞臺藝術을 선보여 왔음은 물론 鄉土文化 暢達을 위한 和合과 우정의 廣場으로 그 幅과 깊이를 더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成長과 發展은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이고장 演劇 振興을 위해 땀과 情熱을 아끼지 않은 鄉土演劇人들의 刻苦의 精誠 그리고 뜨거운 藝術魂이 낳은 成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文化藝術의 創作과 함께 創造된 文化藝術에 대한 대중의 수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모두의 生活 속에서 文化藝術이 수용되고 活性化됨으로써 우리 社會는 더욱 아름답고 튼튼하게 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今年 5월에는 地方演劇人들의 큰잔치인 全國演劇祭가 이곳 大田에서

開催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忠南演劇의 새로운 活路 開拓은 물론 演劇藝術에 대한 理解를 넓히기 위해 더욱더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忠南演劇이 아직까지 全國演劇祭에서 뚜렷한 成果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 이전에 忠南演劇을 새롭게 照明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번 道演劇祭는 여러 가지 의미로 重要な 意義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무리가 갖는 또 하나의 出發의 의미입니다.

아무쯁도 이번 演劇祭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問題點을 發展的으로 改善해 나감으로써 忠南演劇의 새로운 前進과 跳躍을 다지는 契機가 될 것을 期待합니다.

끝으로 이번 演劇祭를 위해 애쓰신 吳南世 演劇協會 忠南支部長님을 비롯한 鄉土演劇人 여러분의 勞苦에 感謝드리며 忠南演劇 發展을 위해 멀리서 와 주신 審査委員 여러분께도 심심한 感謝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大韓專門建設協會 忠清南道支部 第3回 定期總會

1988년 3월 31일

祝 辭

오늘 새로운 希望과 成就의 열기 가득한 民族自尊의 時代가 활짝 열린 가운데 大韓專門建設協會 忠南道支部가 세번째의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아울러서 地域社會의 모든 開發 事業에 建設活動을 통하여 直接的으로 寄與해 오신 專門建設人 여러분의 勞苦와 크신 功勞에 대하여 慰勞와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建設業界는 國內는 물론 海外에서 대형빌딩 建築과 高速道路의 建設, 大規模 工場과 港灣, 灌溉施設 등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國家經濟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建設分野가 國家 產業發展을 크게 뒷받침한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役割은 오늘에 와서도 변함이 없는 비중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國民總生産의 약 10분지 1에 달하는 비중이 곧 建設事業이며 就業人口의 비중 또한 큰 것이기에 政府에서도 建設產業에 대한 政策 배려에 관심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建設業界의 展望을 살펴보면, 그동안에는 大規模 綜合 建設業體에서 모든 技術과 人력을 運用하고 하나의 建設業體가 모든 技術과 裝備를 自給自足하는 傾向이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高度産業社會에서는 같은 建設分野라 하더라도 專門 建設人들

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깊고 넓은 技術을 蓄積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建設業界의 發展을 主導하는 建人 材의 役割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建設業界는 그동안 값싼 賃金을 바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原動力으로 삼아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國民所得 3,000弗시대라는 高度 產業社會의 문턱에 들어선 만큼 값싼 賃金이나 時間外 勤務로 企業의 利潤을 도모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建設業界가 發展할 수 있는 한길은 오로지 끊임없는 技術의 開發과 蓄積을 통한 自己 革新의 길이며, 또한 專門 建設協會 會員 여러분이 서로 돕고 和合하는 共生共存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社會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自由, 平等, 平和를 우리의 理念으로 希望한 先進社會를 앞당겨 建設하려는 오늘, 우리 세대의 努力은 무엇보다도 나 혼자만이 아닌 나와 同僚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 내 고향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團結하는 것이 所重한 일입니다.

오늘 專門建設協會 會員 여러분의 이 定期總會도 이러한 和合과 團結, 平和와 共存, 그리고 自律과 責任을 要請하는 民族自尊 時代에 積極 同參하기 위한 다짐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李炳周 支部長님을 비롯한 會員 여러분의 하시는 事業에 幸運과 繁榮이 있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4 月 月例朝會

1988 年 4 月 1 日

訓 示

今年도 어언 하나의 分期가 지나고 4月과 함께 2/4 分期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두 차례의 단비가 우리 地域에 내려서 오랜 가뭄을 解消하여 營農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28 日에는 大統領께서 就任하신 後 처음으로 우리 道를 巡視하셨습니다.

從前과는 달리 巡視하는 方法이라던가 또한 의전문제 등 普通사람 時代에 맞게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報告場도 特別한 格式없이 對話式的 恠圈氣였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關係部署에서 빠른 時日內에 準備를 잘 해 주어서 차질없이 치루게 되는데 대하여 여러분의 勞苦를 다시한번 致賀하며, 特히 警護業務를 擔當했던 警察官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大統領께서 우리 忠南의 開發 年代를 맞이해서 이地域 發展에 깊은 關心을 表明하셨으며, 道政運營에 많은 指針을 주고 가셨습니다.

大統領께서 指示하신 事項은 이미 示達되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知事가 朝會時間을 利用하여 여러분에게 大統領의 당부말씀과 아울러 指示事項을 直接 傳達하고자 합니다.

먼저 大統領께서는 水害와 大統領選舉 등 政治日程과 關聯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300 萬 道民과 全 公職者가 合心하여 모든 일을 잘 마무리 함으로써 새 共和國이 圓滿하게 出帆하게 되는데 대하여 勞苦를 致賀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今年度 業務計劃 中 汎道民 스승 尊敬運動은 禮節을 崇尚하는 고장다운 좋은 施策의 發想이어서, 時宜에 適切한 施策으로 좋은 成果를 擧揚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道の 가장 關心이 있는 百濟文化圈 開發과 西海岸 開發에 대하여 必要性을 明白하게 強調하시고, 이에 대한 全幅的인 支援을 約束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大統領選舉時 約束한 西海岸 高速道路 建設, 天安~論山間 高速道路, 그리고 公州師大의 綜合大學 昇格 등 21件에 대하여도 在任中에 반드시 實踐하겠다고 굳은 意志를 表明하셨습니다.

指示하신 事項의 具體的인 內容은

農漁村醫療保險制度는 政府에서도 現在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어서 앞으로 改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道에서도 이 制度가 早期에 定着될 수 있도록 努力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고, 百濟文化는 日本文化의 源流로 民族自尊의 矜特와 보람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며, 그동안 開發이 미흡하였던 점을 勘案하여 文公部 報告時에도 事業期間도 短縮해서 集中 投資하도록 指示한 바 있으니 道에서도 文公部 등 關係部處와 協調하여 觀光開發과 併行 開發에 나가도록 하고, 이 內容을 道民에게 알리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不動產投機는 政府의 努力만으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地方과 中央이 相互 協調하여 投機行爲를 源泉의으로 對處해 나갈 것이며, 특히 都市사람들의 投機行爲에 地域住民의 輿論을 수렴하여 앞으로 市昇格에 必要한 行政區域을 改編하고 大邱와 仁川, 光州直轄市 昇格時 露出되었던 問題들을 敎訓삼아 行政區域이 分離된 後 예상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미리 없애도록 할 것과, 水害復舊는 現在 80%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으나, 營農에 支障이 없도록 서두르고, 서울올림픽에 대한 住民弘報를 徹底히 하여 道民 各者가 한가지라도 올림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參與方案을 講究하는 한편, 瑞山 A·B地區 등 干拓事業 被害補償에 대한 漁民不滿이 너무 오래 持續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西海岸時代 開幕에 따라 各種 事業이 活潑히 이루어질 것인 바 앞으로 建設部, 農水産部 등 關係部處와 充分한 協調를 통하여 問題點을 事前에 除去하는 등 對處토록 할 것과 아울러 建設部는 西海岸綜合開發에 있어 忠南道에서 計劃하

고 있는 西海岸開發事業을 最大限 수렴反映토록 하고, 地域開發에 따른 利益은 반드시 地域 住民에게還元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시면서, 地方化時代에 對備하여 中央 各部處는 中央權限을 地方에 大幅 委任할 것이며, 아울러 地方에서는 開發이나 財源 등 無條件 中央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이를 脫皮, 地方單位에서 現實的으로 對策을 세워 나가는 方案을 講究할 것과, 屯山新市街地 開發과 市街化調整區域 指定 등과 關聯하여 事業의 早期補償 등으로 各種 民願이 많음을 指摘하시고, 關係部處와 協調하여 早期에 매듭짓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와같이 大統領께서는 우리가 重點을 두어 開發해 나가야 할 分野와 우리 道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昭詳히 아시고 適切히 指摘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指示事項이나 당부말씀에 대하여 더욱 더 깊은 關心을 가지고 細部的인 實踐計劃을 마련, 中央이나 關係部署와 緊密히 協調하면서 알차게 實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大統領께 報告드린 今年度 主要 事業計劃은 細部施策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具體的인 實踐計劃을 樹立, 알차게 實踐함으로써 大統領에게 報告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實踐에 옮겨서 成果를 이룩하는데 그 目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本格的으로 일할 時期입니다.

道政報告가 알차게 成果를 擧揚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끝으로 4월에 力點을 두어 推進할 事項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서울올림픽도 이제 160餘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重要的 秩序運動과 깨끗하고 밝은 環境造成, 聖火奉送路 整備의 徹底, 그리고 나무심기와 산불조심에 대한 持續的인 啓導와 本格的인 農事철을 즈음하여 苗板管理和 논물가두기 등 營農指導에도 정성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最近에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서 보겠지만 京鄉各地에서 많은 산불과 큰 火災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조심에 대하여는 4月 5日 한식을 前後하여 例年에 비추어 보면 많은 산불이 있었습니다.

徹底한 啓導를하여 애써 가꿔 놓은 山林이 일시에 毀損되지 않도록 注意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4월 26日에는 第13代 總選이 있을 豫定입니다. 前에도 指示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公職者들은 地域의 過熱된 選舉雰圍氣에 휩쓸려 特定候補를 支持하는 發言이나 誤解를 사기 쉬운 言動을 一切 삼가해 주고, 法定選舉管理業務인 選舉人名簿 作成과 閱覽, 投票通知票 作成, 交付 등을 正確히 處理하여 한치의 錯誤나 物議가 없도록 하여 어느 地域보다도 우리 地域이 公明하고 模範的인 總選을 치를 수 있도록 市・郡에 대한 指導監督을 잘 해 주고 市郡에서도 여기에 必要한 準備나 邑面에 대한 管理 등 市長・郡守 責任下에 指導監督을 徹底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4월 한달 동안 조용한 가운데 總選을 잘 치르고 活潑히 展開될 모든 事業들이 알차게 推進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感謝합니다.

第20周年 豫備軍의 날 紀念式

1988년 4월 2일

式 辭

오늘 우리는 鄉土와 國家 安保의 대들보인 豫備軍이 創設된지 스무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民族自尊의 時代를 활짝 열어준 第6共和國의 出帆과 함께 이제 成年의 年代를 맞은 우리 鄉土豫備軍의 生日은 더욱 뜻깊은 바 있습니다.

지난 26年 동안 地域社會의 안정과 國家 發展에 크나큰 울타리가 되어주신 豫備軍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저는 먼저 3百萬 道民과 더불어 慰勞와 찬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經濟的으로나 軍事的으로 우리가 저들 北韓 共產集團과의 對決이 보다 숨막혔던 當時, 만약에 우리의 豫備軍이 創設되지 않았던들 과연 우리가 마음놓고 國家 發展에 매진해 나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물음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지난날의 實戰經驗과 現役이나 다름없는 戰力を 지닌 오늘의 믿음직한 350萬 豫備軍 將兵 여러분이 있었기에 北韓 共產軍은 감히 우리 自由大韓을 挑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成長과 내일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鄉土 豫備軍은 지난 20年 동안 쌓아올린 확고한 自衛意識과 막강한 戰力を 갖춘 제2의 國軍으로서 戰線이 따로 없는 오늘날 敵과의 對決에서 꼭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마땅합니다.

특히 길고 복잡한 海岸線을 지니고 있는 우리 고장의 특수한 안보적 環境으로 볼 때, 내 고장 豫備軍 여러분은 그 어느 地域의 鄉土 豫備軍보다도 地域 실정에 알맞은 鄉土 防禦戰術의 연마와 신속한 出動態勢의 運營能力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平素부터 여러분 豫備軍의 斬新한 安保活動과 非常時의 部隊運營이 一次的으로는 國土防衛의 豫備戰力으로서 그 임무가 막중할 뿐만아니라 여러분에 의해 向上되는 部隊의 모든 精神戰力과 安保力量이 이 地域社會 전체에 크나큰 影響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國防力은 비단 軍事力 뿐만이 아니라, 國民의 透徹한 對共態勢와 軍과의 긴밀한 유대 그리고 調和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한 國家의 완벽한 國防力이 可能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두말 할 必要도 없이 지난 60年代말 자유월남의 敗亡이 우리에게 준 敎訓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天文學的인 戰費와 가공할 첨단 武器를 앞세워 공산월맹과 싸웠던 월남이 敗北한 것은 戰力の 相對的인 열세가 아니라 軍의 기강 문란과 國民의 安保意志力 弱화, 그리고 腐敗에 그 原因이 있었던 것은 우리 自由世界에게 준 큰 경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民族自尊의 時代가 활짝 열린 이때, 國際化, 開放化 그리고 先進化를 뒷바침하는 國家安保의 原泉이 바로 우리의 精神 武裝이요, 豫備軍 여러분이 내 고장을 스스로 지키는 戰力임을 다시 한번 깊이 認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豫備軍 創設 스무 돌을 契機로 하여 더욱 믿음직스럽고 莫強한 鄉土防衛의 戰力培養에 民·官·軍의 紐帶와 協助 그리고 300萬 道民의 聲援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感謝합니다.

道政諮問委員會 全體會議

1988년 4월 6일

인 사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參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우기 委員님들의 健康한 모습을 대하니 더욱 고맙습니다.

실은 2月中에 會議를 開催할 計劃이었으나, 諮問委員님들께서 大統領 就任式에 參席하시는 關係로 會議를 미루고 오늘에야 모시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지난해에는 엄청난 水害와 학원·勞使문제, 政治일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諮問委員 여러분들께서 積極的인 指導와 協調를 해주신 德澤으로 이를 잘 克服하고 어느 해보다도 道政에 많은 成果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諮問委員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共和國이 出帆한지 한 달 남짓 됩니다마는 大統領의 보통사람 時代의 哲學과 自律化的 意志와 社會 全般에 파급되어 이제 社會 분위기가 한층 활기를 띄어가고 있음은 諮問委員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大統領께서 지난 28일, 就任後 처음으로 우리 道를 순시하실 때 諮問委員長께서도 茶菓場에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보통사람 時代에 걸맞게 아주 자연스러웠고, 道政보고도 격식없이 討議형식으로 進行되는 등 저 자신도 많은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우리 道政도 이와같이 변화하는 새 時代에 副應해 나가기 위하여 今年度 道政의 重點方向을 첫째, 權威主義를 청산하고 낡은 行政행태를 改善해 나가는데 道政의 제1의적 과제로 하여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實踐해 나가고 있으며,

둘째, 우리 忠南의 입지적 여건을 最大한 살려 앞으로 다가올 西海岸 時代를 先導할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支援을 강화해서 고루 잘사는 福祉社會를 建設하기 위한 각종 施策을 強力히 펴서 300萬 道民에게 期待와 希望을 주는 道政을 具現해 나가는데 모든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諮問委員 여러분들께서도 이와같이 우리 地方行政이 새로운 變身을 試圖해 나가는데 忌憚없는 忠告와 鞭撻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年度 주요 業務計劃에 대하여는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마는 이번 大統領께서 巡視하셨을 때 우리 道の 開發에 깊은 關心을 表明하시면서 가슴 뿌듯한 希望을 주고 가셨읍니다.

몇 가지만 紹介해 드리면, 먼저 백제文化圈 開發에 대하여 그동안 開發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빠른 期間내에 集中 投資하여 公州, 扶餘地域을 慶州에 버금가는 文化 觀光 遺蹟地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다음은 道에서 推進하고 있는 西海岸 綜合 開發 計劃도 忠南의 重要性을 認識하시고 瑞山에서 長項까지 道에서 計劃되고 있는 事業을 政府次元에서 받아들여 開發해 나가겠다고 하시고 大田 直轄市 승격, 瑞山읍의 市昇格, 公州師大 종합대학 승격, 西海岸 高速道路 建設, 천안-논산간 高速道路 建設 등 本道에 해당하는 공약사항 21건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任期中에 實踐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읍니다.

그밖에 우리 道の 현안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事業에 대해서도 中央의 關係부처에 검토토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解決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읍니다.

諮問委員님들께서 이와같은 밝은 소식을 道民들께 널리 傳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諮問委員 여러분!

이달 26일에는 제 13대 國會委員 選舉가 있을 예정입니다.

諮問委員님 중에서도 두분이 공천되어 立候補者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17년만에 처음으로 小選舉區制가 實施됨에 따라 地域的으로 치열한

競争이 예상되어 자칫 하면 혼탁한 選舉 분위기가 造成될 우려가 있어 큰 걱정입니다.

道나 市·郡에서는 법정 選舉 管理業務인 選舉人名簿 작성과 열람, 投票 通知表 作成 交付 등 일체의 選舉 管理業務를 가장 正確하고 公明하게 처리하여 한치의 錯誤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方針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協調 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모처럼 모이신 자리인만큼 忌憚없는 말씀과 道政 發展에 좋은 提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人事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第16回 保健의 날

1988 년 4 월 7 일

記 念 辭

道民 保健 向上을 위해 勞苦가 많으신 保健・醫療人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오늘 제 16회 保健의 날은 世界保健機構(WHO)가 創設된지 만 40 周年이 되는 뜻깊은 날로써 道民과 더불어 國民保健에 대한 重要性을 다시한번 認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자리를 빌어 평소 道民保健의 增進을 위하여 獻身奉仕하고 계시는 保健・醫療界人士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며, 그중에서도 남다른 業績을 쌓아 오늘 榮光스러운 賞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眞心으로 祝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憲法은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享有할 權利와, 保健에 관한 國家의 保護 義務를 明示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는 健康한 福祉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 부단히 努力한 結果, 保健・醫療分野에서 刮目할만한 成果와 發展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忠南道는 지난 83년부터 現在까지 5年 동안이나 繼續하여 日本 뇌염 등 主要 傳染病이 發生하지 않도록 하는 完璧한 防疫能力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防疫史에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 保健의 垂範道로서 그 傳統을 誇示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장 深刻한 社會問題의 하나였던 人口 增加率을 80年度의 1.57%에서 지난해에는 1.21%로 낮추는 成果를 거두었고, 또 全國民 醫療保障의 基盤을 造成하였으며 國民生活 全般에 걸친 保健衛生 水準을 向上시키

고 老齡, 障 碍 等에 對 備 한 國 民 年 金 制 度를 出 帆 시 켜 段 階 的 으 로 擴 大 實 施 하고자 努 力 하고 있 습 니 다.

올 해 世 界 保 健 機 構 (WHO) 에 서 는 “모든 사 람 에 게 健 康 을, 모든 사 람 은 健 康 을 위 하 여 ”라 는 目 標 를 내 걸 고 모 든 國 家 가 國 民 의 保 健 增 進 을 위 하 여 努 力 하 도 록 勸 告 하고 있 으 며 이 에 따 라 政 府 에 서 는 例 年 과 마 찬 가 지 로 4 월 을 保 健 의 날 로 정 하 여 全 國 的 으 로 國 民 保 健 意 識 을 높 이 기 위 한 캠페 인 을 展 開 해 나 가 고 있 습 니 다.

世 界 保 健 機 構 가 創 設 된 지 40 주 년 이 되 는 날 인 오 늘 을 “담 배 피 우 지 않 는 날”로 정 하 고 자 결 의 한 데 따 라 우 리 나 라 에 서 도 保 健 의 날 인 오 늘 하 루 를 금 연 의 날 로 정 하 였 으 며 民 間 차 원 의 금 연 운 동 또 한 활 발 히 展 開 되 고 있 으 므 로, 道 民 여 러 분 께 서 도 많 이 同 參 해 주 시 길 당 부 드 립 니 다.

우 리 道 에 서 는 올 해 에 도 政 府 施 策 에 副 應 하 여 道 民 의 健 康 과 福 祉 를 增 進 시 키 기 위 하 여 農 漁 村 地 域 에 대 한 醫 療 保 險 實 施 擴 大, 國 民 年 金 制 擴 大, 低 所 得 層 의 生 活 向 上 과 障 碍 者, 老 人 등 脆 弱 階 層 에 대 한 保 護 施 策, 그 리 고 疾 病 管 理, 食 品 衛 生 등 保 健 衛 生 의 先 進 化 를 위 한 事 業 들 을 착 실 히 推 進 해 나 감 으 로 써 先 進 福 祉 社 會 의 建 設 을 앞 당 기 고 자 最 善 을 다 하고 있 습 니 다.

道 民 여 러 분!

올 해 는 온 世 界 人 의 祝 典 인 '88 서 울 올 립 껍 대 회 와 장 애 자 올 립 껍 대 회 가 우 리 나 라 의 서 울 에 서 開 催 됩 니 다.

이 世 界 人 類 잔 치 의 成 功 的 인 開 催 를 위 하 여 서 는 모 든 분 야 에 서 서 로 힘 을 모 으 는 準 備 가 重 要 합 니 다 만, 道 民 의 保 健 과 生 命 을 다 루 는 保 健 · 醫 療 分 野 關 係 者 들 의 獻 身 的 인 參 與 가 더 욱 요 청 되 고 있 습 니 다.

完 璧 한 防 疫, 最 高 水 準 의 醫 療 支 援, 여 러 接 客 業 所 의 衛 生 水 準 向 上 그 리 고 競 技 場 周 邊 의 環 境 改 善 등 그 準 備 에 完 璧 을 기 하 도 록 하 여 야 하 겠 습 니 다.

道 民 여 러 분 의 아 김 없 는 聲 援 과 關 係 人 士 들 의 積 極 的 인 參 與 가 한 데 어 우 리 진 다 면, 88 서 울 올 립 껍 과 障 碍 者 대 회 는 世 界 史 속 에 榮 光 스 린 記 錄 을 남 기 게 될 것 으 로 確 信 하 는 바 입 니 다.

끝 으 로 오 늘 保 健 의 날 을 맞 아 道 民 의 健 康 增 進 을 위 해 疾 病 없 는 社 會 를 이

루고자 더욱 努力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幸福과 健康
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聯合電線株式會社 工場移轉 竣工式

1988년 4월 8일

祝 辭

오늘 우리 忠南道の 工業化 施策을 先導해 나가는 이 고장에 聯合電線株式會社가 새로운 工場을 擴張 이전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아울러서 電線生産分野에서 國內 最高 水準의 傳統과 能力을 지닌 優秀企業이 이곳 天原으로 옮기게 된 것을 郡民 여러분과 더불어 歡迎하는 바입니다.

이 竣工의 기쁨이 있기까지 모든 智慧와 努力을 아끼지 않으신 李秉吉 社長님과 社友 여러분, 그리고 協助와 聲援을 베풀어 주신 郡民 여러분에게도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道에서는 地域社會의 均衡된 開發과 都農間의 隔差를 解消하기 위한 忠南 工業化 7個年 計劃을 세우고, 그동안 農工地區의 造成과 優秀企業의 유치 등 과감한 工業化施策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또한 創業을 원하는 企業의 지원과 유치 등 실로 다각적인 施策을 道民의 성원속에 펴온 바, 그동안 우리 道가 1次産業 위주의 産業構造로서 다른 고장에 비해 相對적으로 所得과 生産性이 낮던 것이 이제는 보다 앞서 나가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더우기 世界의 視線이 모아지고 있는 中共의 開放과 黃海 바다 건너 大陸의 沿岸에 經濟特區의 設置 등은, 우리 나라에게 매우 相對적이고 큰 可能性을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西海岸 時代의 開幕이라는 말로 表現되는 巨大한 貿易市場의

浮上이며 그 西海岸 時代의 核心地域이 바로 우리 고장이라는 사실은 自他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竣工을 보게 된 聯合電線의 대규모 工場이 멀리 부천에서 이곳 天原에 發展적으로 擴張 이전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5백여 聯合電線 社友 여러분은 會社代表를 中心으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이곳 忠南道의 새로운 企業家族으로서 지난날의 歷史와 傳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참신한 企業文化의 창조, 원만한 勞使관계의 유지 그리고 地域社會 開發의 새로운 기수로서 큰 몫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또 이 地域社會 住民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地域社會 產業과 經濟에 이바지하려는 이 企業을 뜨거운 마음으로 歡迎하고 또 聲援해 주셔야 옳을 줄 압니다.

그것은 이 企業의 發展이 비단 企業 스스로나 그 종사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 天原郡의 發展, 더 나아가서는 忠南道의 發展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이곳 天原郡이 獨立紀念館의 建立, 學園의 誘致 등 地域發展에 비약을 가져온데 더하여 오늘 이 聯合電線의 준공은 地域社會 開發에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期待로 이만 祝賀의 말씀에 대 합니다.

感謝합니다.

發 刊 辭

우리의 行政이 住民의 不便한 일, 원하는 일을 積極的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은 오늘날의 行政에 있어 하나의 큰 義務이며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能動的 行政의 한 方法으로 많은 사람들의 注視와 期待 속에 爲民奉仕制度가 出發한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苦衷과 難關도 있었지만 이 分野에 關心과 聯關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參與와 聲援 아래 좋은 成果를 거두면서, 爲民室 周邊에는 人情의 꽃이 피고 값진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훈훈한 奉仕와 溫情을 爲民奉仕 行政의 門을 두드리고 參與한 사람들만 간직하기보다는 300 만 道民 모두가 그 뜻과 成果를 理解하고 共感帶를 擴散해 나가면서 함께 結實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追求하는 民主의 理念과 福祉의 均霑을 成就하는 期待와 所望을 담아 아름답고 純粹하고 뜨거운 情이 담긴 事例를 간추려 하나의 작은 冊子로 꾸며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所重한 事緣들이 自由, 平和, 平等, 希望으로 集約되는 새 시대를 成就해 나가는데 있어 道民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奉仕의 一念으로 수고해 주신 爲民奉仕委員 여러분, 參與와 聲援을 베풀어주신 有關機關, 醫療界, 社會團體의 모든 분들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忠清南道文藝振興委員會議

1988년 4월 10일

인 사

움추렸던 겨울도 지나고 봄기운이 宛然한 季節 3月을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會議에 參席해 주심에 感謝를 드립니다.

平素 本道の 文化施策은 물론 우리 고장 文化藝術 振興에 깊은 關心과 支援을 아끼지 않으시는 委員님들께 謝意를 표합니다.

“民族自尊의 새 時代” 開幕을 宣言한 第6共和國은 盧泰愚 大統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찬란한 文藝復興의 時代라는 大命題를 안고 있습니다.

文化部の 新設이 積極적으로 檢討되고 있으며 地域間의 文化隔差 解消는 물론 地方文化 活性化에 대한 政策的 關心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文化와 藝術은 이를 創作하는 文化藝術人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生活 속에 格調높은 文化藝術을 調和시킴으로써 윤기있고 次元높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時代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 文藝振興을 道政施策의 하나로 삼고 地方文化 暢達에 注力하는 것도 이와같은 時代에 副應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道가 다른 道보다 越等하게 道 文藝振興基金을 造成 '85年 부터 各種 文化事業을 支援해 온 것도 地方文化 藝術人들의 創作意慾을 鼓吹하는 가운데 郷土文化 藝術活動을 活性化시키고자 하는 趣旨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道 文藝振興委員會는 地方 文藝振興에 대한 基本施策,

傳統文化 遺産의 繼承發展, 其他 文化藝術 創作活動에 대한 支援方向을 審議하고 各界의 高見을 收斂 反映하기 위한 制度입니다.

여기서 審議決定된 事項을 內實있게 推進하고 그 結果를 우리 關係部署에서 評價 檢討하고 施策에 反映시키게 됩니다.

흔히 舉論되고 있는 地方文化時代나, 地方文化의 活性化에 대하여 그 必要性이나 役割은, 굳이 本人이 말씀드릴 必要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地域의 文化藝術人 個個人이나 團體의 活動이 忠南文藝의 原動力이 되고, 다시 이 地域 文化活動이 이 時代 民族文化의 根本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格調높은 文化藝術의 고장으로 이 名譽와 傳統을 繼續 가꾸고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課題입니다.

오늘 會議에서는 '87年度 文藝振興基金 造成 및 支援實績을 들으신 후, 本道에서 樹立한 今年度 文藝振興 施策과 '88年度 文藝振興基金 支援計劃을 審議하는 順序로 進行합니다.

아무쪼록 審議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高見을 바라오며 案件以外의 事項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道政施策에 反映코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感謝드립니다.

反共安保決議大會

1988년 4월 13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의 反共基幹要員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새 時代 새로운 安保意志를 가다듬고 그 實踐을 다짐하는 決議大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反共・安保 活動은 이 社會와 國家의 生存과 繁榮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며 또한 未來의 發展을 열어 주고 國運의 方向을 提示해 주는 나침반의 役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통해서 社會的 葛藤과 混亂을 直接 經驗해 보고 아울러 團結과 和合 속에서 噴出되는 엄청난 國民的 에너지와 거기에서 얻어지는 값진 結實도 스스로 거두어들인 바 있습니다.

이 多樣的 體驗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透徹한 信念과 確固한 理念으로 武裝된 地域安保의 基盤이 없이는 그 어떤 分野의 發展이나 希望도 虛像에 지나지 못한다는 事實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난 80年代初 우리가 一時的으로 겪었던 社會的 不安이었으며, 지난 해 “6.29”宣言에서 비롯된 國民的 歡呼와 새 時代의 誕生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民族自尊의 時代를 힘차게 열어 나가는 第6共和國이 새로운 大統領의 就任과 더불어 第13代 國會議員 選舉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모든 國政의 方向이나 國民的 에너지의 結集도 安保와 對共態勢의 盤石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認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民主 秩序 속에 國民和合을 꽃피우고 世界人類에게 우리의 國力を 誇示하게 될 서울올림픽도 결국은 北韓 共產集團의 挑發을 막을 수 있다는 우리의 安保能力과 그것을 世界各國이 信賴하기 때문에 可能的 것이 分明합니다.

지난 '86年度 아시안게임 때의 金浦空港 爆破企圖나 지난 해의 KAL機 空中爆破事件, 그리고 아웅산 테러蠻行은 결코 우리의 먼 記憶 속에 잊혀진 事件이 아니라 지금 이 時刻에도 우리가 放心한다면 얼마든지 再發될 수 있는 事件이요, 北傀의 凶計라는 점을 認識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올림픽이 끝나면 우리는 더한층 開放된 社會, 頻繁한 國際的 交流의 擴大局面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들 北韓 共產黨의 對南工作과 挑發이 이 地球村의 멀고 가까운 곳을 마다 하지 않는 마당에 우리의 國力を 위해 不可避한 共產圈과 交流에는 반드시 보다 높아진 安保意志, 더욱 強化된 對共態勢, 그리고 活氣찬 反共活動이 要請되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安保力量이란 共產主義者들보다 더 강한 총칼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民族自尊의 時代를 보다 成熟시켜 나가는 地域社會의 民主力量이며, 스스로 地域社會와 國家發展에 參與하고 獻身하는 自律能力의 擴散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道內的 反共基幹要員이 이제까지 내가 먼저 實踐하고 남에게 勸誘해온 反共啓導와 地域安保活動이 오늘날 더욱 所重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團合大會를 契機로 아무쪼록 내가 기꺼이 參與하고 앞장서 나가는 우리 300萬 道民의 鄉土安保를 期待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大會를 위해 이곳 大田에 오신 朴元根 韓國反共聯盟 理事長님, 이병익 忠南道支部長님과 指導者 여러분에게 幸運과 榮光을 빕니다.

感謝합니다.

韓南大學校 開校紀念 學術심포지움

1988년 4월 13일

祝 辭

尊敬하는 이한빈 前副總理님, 李元高 總長님을 비롯하신 韓南大學校 教職員 그리고 學生 여러분!

오늘 開校 32 周年을 맞아 國內外的으로, 또한 이 地域社會에서 가장 關心이 큰 “中國經濟의 對外開放과 西海岸時代”에 關한 學術심포지움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를 歡迎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지난 해 1月 故鄉의 道知事로 赴任하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發展은 地定學的인 狀況이나 隣近國家들의 與件으로 보아 반드시 西海岸時代가 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고장 西海岸은 바야흐로 國家發展과 더불어 가장 脚光을 받는 地域으로 浮上되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는 지난 해 이미 西海岸圈 綜合開發計劃을 構想하고 現在 學術團體를 통하여 本格的인 計劃을 樹立中에 있으며, 지난 3月 28日 盧大統領께서 大統領에 當選된 後 처음으로 우리 道에 오셨을 때 이러한 內容을 報告드린 바, 우리 道の 西海岸에 대하여 그 重要性和 潛在力에 깊은 關心을 표하시고 道에서 計劃된 事業은 中央單位에서 最大限 收斂하여 反映하겠다는 約束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最近 政府에서는 “西海岸開發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 政策的인 次元에서 集中 檢討하고 있으며, 이러한 政府次元의 지난 2月 1日 中共 “對外

經濟 貿易部”가 發行하는 日刊誌 “國際經濟 消息”에 全面 紹介되면서 中共은 歡迎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蘇聯도 고르바초프 執權以後 “그라스노스트”라는 이른바 開放政策과 “페레스트로이카”라는 改革政策에 그 基調를 두고, 對外的으로는 西方世界와 INF 協定 등 新데탕트 政策을 追求하면서 對內的으로 經濟發展을 圖謀하고 있습니다.

특히, 蘇聯은 1986年 “블라디보스톡 宣言”으로 太平洋國家임을 強調하고 이 地域에 比重을 두어 中共과 비슷한 開放政策을 追求할 것을 標榜한 바 있고, 서울에 貿易 事務所도 開設할 것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變化는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지나 3國에서도 積極的으로 參與할 意思를 보이고 있어, 우리 나라의 西海岸 開發政策과 符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는 西太平洋 時代의 到來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西海岸 時代란 現在 大部分의 사람들이 中共과의 貿易去來에 큰 比重을 두고 있지만, 저는 이를 더 크게 보아 위에서 말씀드린 西太平洋 時代에 國家가 積極 對應하는 것으로 보며, 이 過程에서 空間的으로 西海岸 地域의 開發 與件을 最大限 活用하고, 아울러 우리 忠南이 能動的으로 先導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忠南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對內外的 變化를 예의 注視하면서, 西海岸 時代의 核心地域으로서 그 開發需要를 能動的으로 收用하는 同時에 우리 地域住民이 그 開發 利益을 最大限 얻을 수 있도록 努力해 나가고자 합니다.

歷史란 自然的으로 우리의 편이 될 것이란 幻想보다는, 그 歷史가 우리에게 主役이라는 役割을 줄 수 있도록 이 地域에 사는 우리 모두가 그 智慧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視角에서 볼 때, 韓南大學校가 일찌기 地域開發大學院을 開設한 것과 이번 32周年 開校紀念 行事로 세미나를 開催하게 되었음은 產學의 觀點에서 좋은 先例라고 생각하며 行政機關에서 하지 못한 일을 大學에서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感謝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세미나를 開催하도록 여러모로 애써주신 李元高 總長님을 비롯하
신 韓南大學校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感謝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를 契機로 하여 우리 忠南發展에 대한 보다 깊은
關心과 더불어 起爆劑가 될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韓南大學校 開校紀念 學術심포지움 리셉션

1988년 4월 13일

인 사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韓南大學校 李元高 總長님께 感謝드립니다.

아울러 이 심포지움에 깊은 關心을 가지시고 서울에서 이곳까지 參與해 주신 崔東섭 建設部長官님께 이 자리에 모이신 忠南道 機關長님을 비롯하신 모든 분과 함께 感謝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움 主題가 “中國經濟의 對外開放과 西海岸 時代” 였읍니다만, 저는 西海岸 時代란 潮流에 깊은 感懷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忠南知事로 처음 赴任하면서 道政의 第1課題로 提起하였고, 이에 따라 “西海岸圈 綜合開發計劃”을 樹立中에 있다는데 있어서도 그렇지만,最近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政治 狀況이나 經濟的 狀況으로 보아도 이를 더욱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西海岸 時代란 中國經濟의 對外開放 政策이 큰 모멘트를 주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西歐 先進國家의 保護貿易傾向과는 對照的으로 蘇聯등 東歐國家를 비롯한 인도지나 3個 共產國家에도 일어나고 있는 開放의 물결이 美·蘇間 INF 協定 등 신데탕트 政策에 便乘하여 西太平洋 時代라는 새로운 國際經濟 形成 趨勢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西海岸 時代란 時代的 潮流를 對內的으로 受容하는데 있어서는 地域間 均衡 開發이란 消極的 戰略보다는 그 開發需要를 어떻게 効率的으로 受容할 수 있는가 하는 大乘的 次元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니다.

이와 關聯하여 國家에서 檢討되고 있는 牙山港을 비롯한 一連의 計劃들은 뉴욕港보다도 더 큰 港灣與件을 갖고 있다는 점을 勘案하여 積極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大統領께서 지난 3月 28日 初度巡視 때 本道の 西海岸 開發 構想에 대하여 共感하시고, 忠南道の 計劃을 中央單位에서 最大限 收斂하여 反映하겠다는 約束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崔東섭 建設部 長官님께서 參席하시었기 때문에 앞으로 忠南의 西海岸圈 計劃을 政府次元에서 積極 檢討해 주실 것을 建議드리며 이 자리에 參席하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道の 計劃이 좋은 結實을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智慧와 힘을 모아 協助하여 주실 것을 付託드리면서 人事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988年度 汎道民 交通安全 促進大會

1988년 4월 15일

致 辭

尊敬하는 來賓 여러분!

그리고 오늘 榮光을 안으신 受賞者和 秩序現場에서 수고하시는 交通關係者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汎道民 交通安全 促進大會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全國의 交通家族 여러분과 더불어 衷心으로 祝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大會를 開催하게 된 것은 交通安全과 秩序維持에 功이 顯著한 분을 選拔 施賞하고 아울러 交通安全 秩序運動에 모든 國民이 함께 參與하여 決意를 다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今年은 우리가 歷史上 처음으로 地球村 161個國에서 많은 選手, 任員들이 參加하는 올림픽 大會를 主催하는 뜻깊은 한 해로서 國民의 秩序意識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도 切實히 要請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160餘萬대의 自動車와 運轉免許 人口가 530餘萬名을 넘어섬으로써 바야흐로 本格的인 自動車 大衆化時代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自動車 産業側面에서 볼 때 自動車 輸出國으로서 先進國隊列에 와 있으나 아직도 自動車 文化水準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秩序를 尊重하고 快適한 交通環境을 造成하여 올바른 自動車 文化를 享有하는 文化國民으로서의 矜持를 着實히 다져나가 世界 속의 韓民族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當面한 우리의 時急한 課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急速한 産業化에 힘입어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해 냈고, 第6 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모든 分野에서 새로운 秩序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秩序는 文化國民으로서의 實踐意志에 그 成敗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交通事故로 7千餘名の 貴重한 生命을 犧牲당했는가 하면 20餘萬名이 負傷을 당하는 엄청난 社會的 損失을 겪었고 最近에는 大形 交通事故가 연이어 發生했습니다.

이러한 人命의 犧牲과 經濟的 損失의 原因은 90%以上이 文明의 利器인 自動車를 다루는 사람들이 秩序를 外面하거나, 不注意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데 深刻한 問題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坐視하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政府는 이 大會를 契機로 全國 各 市道別로 大的인 秩序運動을 展開하는 한편 이미 樹立한 交通安全 綜合對策을 果敢히 實踐하는데 앞장서서 交通安全 施設도 擴充하고, 道路의 構造的 缺陷도 改善하며 交通事故를 減少하는데 全 行政力を 傾注할 것입니다.

그러나 交通秩序의 確立은 政府의 努力만으로는 達成할 수 없으며 國民의 積極的인 呼應과 強力한 實踐意志가 없이는 이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社會指導層 人士의 率先垂範과 交通現場에서 수고하시는 運轉者 여러분과 秩序維持에 온갖 精誠을 다 바치고 있는 綠色어머니會, 어린이 交通警察隊, 交通安全 指導教師, 그리고 有關機關 團體의 獻身的인 努力과 參與가 없이는 不可能하다고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世界的 大祝典인 “'88 서울올림픽大會”는 우리에게 先進跳躍의 劃期的인 契機가 될 뿐만 아니라 이 大會의 成功的 遂行은 21世紀를 向한 우리의 方向을 決定하는 分岐點이 될 것이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은 政府만의 課題가 아니라, 모든 國民에게 주어진 歷史的인 召命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하여 交通文化의 後進國이라는 不名譽를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先進祖國의 創造는 自律秩序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銘心하고 서로 讓步하고 協助하여 질서정연한 交通環境의 美德을 確立함으로써 文化國民으로서의 矜持와 보람을 갖도록 最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榮光의 受賞者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致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第28周年 4.19記念行事

1988년 4월 19일

記 念 辭

오늘 우리는 우리 民主主義 歷史에 自覺과 反省과 教訓이라는 그 所重한 意味의 蠟燭로 타올랐던 4.19義舉 스물 여덟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民族自尊의 時代에 民主化 成就의 國民的 熱氣와 召命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가득한 이 時點에서 맞는 4.19 紀念日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感懷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年前 民主와 正義 그리고 올바른 主權을 외친 젊은이들의 絶叫과 高貴한 犠牲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뜻은 歷史의 갈피 속에 고이 간직된 한장의 記錄이 아니라 이 時代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精神遺産이 되어야 한다는 事實입니다.

또한 한 世代의 歲月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때 그 젊은이들의 뜨거운 情熱과 祖國愛 그리고 純粹한 犠牲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과연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는 反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 4.19義舉가 우리에게 준 教訓은 끈질긴 生命力과 正統性을 지닌 겨레의 歷史가 軌道를 벗어나면,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나설 수 있다는 自生과 自主能力을 보여준 것이며 國家의 主權을 항시 理性으로 지키겠다는 決然한 意志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眞正한 民主社會가 서로간의 葛藤이나 鬭爭의 結果에서 얻어지는 보람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認識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 날의 絶叫와 鬭爭과 爭取는 더이상의 希望이 없는 한낱 不幸한 時代의 産物에 지나지 않으며 오늘의 民主主義社會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낱말이며 現實이라는 점을 直視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시 相對方을 認定하고 對話하며 妥協할 줄 아는 새로운 價値觀, 내가 提示한 建設的인 意見의 51% 反映에 滿足할 줄 아는 雅量 속에 自由, 平等, 平和로 가는 이 時代가 더욱 所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엮어나가는 앞으로의 民主化 時代, 民族의 繁榮에는 지난 날과 같은 葛藤, 高貴한 犠牲, 그리고 不幸한 抵抗이 없는 和合과 團結의 밝은 時代입니다.

그리고 그 “밝은 時代”는 이 社會의 意識이나 制度의 統一과 劃一이 주는 單純한 和合과 團結이 아닙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多樣的 價値와 欲求가 活氣차게 發散되는 가운데 서로를 認定하고 讓步하고 妥協하는데서 最善의 結論에 到達하고 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社會를 앞당겨 成就하는 것이 오늘 이 4.19 紀念日이 우리에게 주는 召命입니다.

이 召命의 完遂가 곧 꽃다운 젊은이들의 犠牲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民族自尊의 時代로 가는 捷徑임을 銘心하면서 가신님들의 冥福을 빌고 그 遺家族들에게 神의 보살핌을 祈願합니다.

水害復舊 早期完了 및 營農準備에 대한 당부

1988년 4월 19일

書翰

우리에게 期待와 使命을 함께 안겨주는 歷史의 成就에 대하여 貴職을 비롯한 公務員 여러분의 獻身を 致賀드립니다.

試鍊과 難關이 있을 때마다 우리 公職者들이 앞장서서 이를 슬기롭게 克服하고 새로운 發展과 跳躍의 길을 여는데 所重한 役割을 다 했듯이 앞으로도 그 所任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지난 해에 겪은 우리의 史上類例없는 災難의 克服에도 우리 一線 公職者들의 獻身과 奉仕의 힘이 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水害復舊에 沒頭한 市長, 郡守, 農地改良組合長 여러분의 超人的 努力에 힘입어 營農期 以前の 早期復舊에 밝은 展望을 보여주고 있음은 꼭 多幸한 일입니다.

그러나 今年の 降雨量이 例年에 비해 極히 低調할뿐더러 一部 主要 農業用水施設의 復舊가 未洽한 狀態에서 天災를 딛고 일어서 8年 連續 豐年을 맞으려는 우리에게 한갓 不安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率直한 心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昨年度 水害復舊의 早期完了에 最善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旱害에 對備한 물管理 徹底, 水利施設과 揚水裝備의 點檢整備, 耕地整理의 期限內 完工이 그 어느때보다도 切實히 要望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貴職도 自體計劃을 세워 細密히 實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음 事項을 다시 強調합니다.

水害復舊의 早期完工을 위해서 첫째, 모든 水害復舊工事は 4月末까지 끝내도록 순기표를 세워 推進해 주시고 둘째, 現場 指揮所를 設置 毎日 人員과 裝備動員狀況을 把握, 作業量の 調整과 所要資材의 需給을 圓滑히 하면서 세째, 設計와 施工 그리고 行政事項에 疎忽하여 被害의 再發이나 民怨이 惹起되는 事例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旱害의 對備를 위해서는 첫째, 못자리 用水는 논물 등 地表水를 利用하고, 貯水를 最大限 아끼면서 水害地區에 대한 給水對策 등 農業用水의 事前計劃 節水對策의 講究, 둘째, 地域實情에 알맞는 灌溉給水效果가 큰 水源發掘工事的 早期推進, 세째, 揚水裝備와 水利施設의 100% 稼動을 위한 完璧한 維持管理를 強調하는 바이며, 끝으로 耕地整理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첫째, 모든 事業場은 用排水路 工事까지 4月末 안에 完工토록 하여 못자리 設置에도 支障이 없도록 人員 裝備를 充分히 投入해 주시고, 둘째, 工作物 施工組를 充分히 編成 工事監督에 萬全을 기하면서 假換地는 늦어도 4月 20日限 耕作者에게 通報, 營農에 蹉跌없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貴職을 비롯한 公職者 여러분의 奮發과 크나큰 보람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第18回 忠清南道美術大展圖錄 發刊

1988년 4월 19일

激 勵 辭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美術界의 滋養이 되어온 忠清南道美術大展이 열여덟번째의 展示會를 갖고 그 入賞作品을 모아 세번째의 作品集을 發刊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忠清南道美術大展圖錄은 이 고장 美術人의 자량과 道民의 사랑을 받으면서 全國 美術界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입니다.

忠清南道美術大展이 연륜을 거듭하면서 美術人口의 底邊擴大와 더불어 質的인 面에 있어서도 크게 向上되었음은 지난 '86年 서울 展示會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圖錄의 發刊으로 水準높은 이 고장 美術作品을 한눈에 鑑賞할 수 있는 機會와 함께 먼 훗날 鄉土美術 發展過程을 昭明할 수 있는 貴重한 資料가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優秀한 文化遺産에 대한 記錄과 保存에 疎忽한 점이 없지 않았던 지난 날에 비추어 이 圖錄發刊은 매우 깊은 意味가 있다 하겠읍니다.

무릇 藝術이나 文化는 한순간에 創造되고 消滅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時間과 歷史를 통해서 갈고 닦아가는 가운데 끈질긴 生命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過去와 現在의 藝術을 슬기롭게 受容하고 調和하면서 轉向的인 姿勢로 오늘과 내일을 꽃피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藝術은 곧 삶의 眞實한 投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장 美術잔치의 소담한 結實이 冊字에 담겨지게 된 것을 다시한번 祝賀하면서 이 圖錄發刊을 위해 애쓰신 趙鍾國 藝總 忠南道支會長님을 비롯하신 藝術人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讚辭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第8回 장애자의 날

1988년 4월 20일

激 勵 辭

오늘 여덟번째로 맞이하는 障礙者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고장 7萬餘 障礙者들이 보다 밝은 웃음과 삶의 勇氣를 갖게 된 이 자리를 뜨거운 마음으로 激勵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能力이나 資質을 가졌으면서도 教育이나 就業의 機會를 얻기에 어려움을 겪고 또 滿足한 生活을 누리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過程은 비단 여러분만이 겪은 어려움은 아니었으며 우리가 오늘의 成長과 發展이 있기까지 모두가 함께 겪고 참아온 過程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社會적인 現實로 볼 때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不便한 사람들에게 보다 깊은 關心과 사랑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反省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教育機會가 넓어지고 意識이 높아져서 自己 自身の 삶뿐만 아니라 남의 生活과 어려움에도 關心과 사랑을 베풀 수 있을만큼 餘裕와 土臺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周邊사람들의 여러분에 대한 認識의 變化, 理解의 幅이 넓어졌다고 해서 障礙者들의 生活이 저절로 밝아지고 삶이 保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智慧를 앞세워 忍耐하고 努力하는 만큼 여러분의 앞날과

人生은 保障될 것입니다.

오늘 구김살없이 자라나는 靑少年들의 갖가지 다채로운 藝能發表와 作品發表會도 이러한 智慧와 勇氣, 忍耐와 強靱한 意慾의 結果라고 생각되어 더욱 기쁘고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들 삶이란 무엇이나, 또 값진 人生이란 무엇이나, 그 解答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價値와 人生觀 그리고 抱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또 무엇이 되고자 하든간에 먼저 眞摯해야 하고 誠實해야 하며 끝까지 成就해 나가는 끈질긴 努力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어남, 여러분의 成長, 그리고 成功은 결코 偶然이 아닙니다.

그리고 永遠한 것도 아닙니다.

엇그제까지 눈보라 속에 앙상한 나무가지만 있던 겨울이었는데 벌써 새싹이 돋고 벚꽃이 피고 봄이 다하러 하고 있습니다.

限定된 靑少年時節 짧은 人生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寸陰을 아껴쓰고 끝까지 배우고 活用하여 後悔없는 結實을 거둘 것인가?

이것이 곧 우리 모두에게 주는 물음이요 課題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남들보다 두배, 세배 그리고 때로는 열배의 忍耐와 努力이 必要的한 것도 事實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끝까지 보살피는 부모님과 家族 선생님과各界의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가슴뭉클하게 해주는 才能과 勞苦 정말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아서 1年 365日 모두가 여러분 障礙者날이 되도록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힘을 한데 모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승호 韓國障礙者再活協會 忠南支部長님을 비롯하신 後援人士 여러분에게 讚辭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蠶種場 竣工式

1988년 4월 20일

激 勵 辭

오늘 이 地域社會 出身 國會議員이신 李相宰 議員님, 여러 機關長님과 이 고장 蠶業篤農家, 그리고 關係公務員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가운데 忠淸南道蠶種場의 新築廳舍 竣工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蠶業은 먼 先祖로부터 물려받은 오랜 傳統과 신비스러운 東洋文化를 일으킨 根本으로서 그 有名한 Silk Road 를 남긴 歷史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累千年의 歷史와 名聲을 누린 비단은 지금도 世界 모든 人類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비단의 生産을 뒷받침하는 것은 뽕밭을 늘리고 누에를 칠 수 밖에는 다른 方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무리 科學文明이 發達한 오늘날에도 비단을 만드는 다른 材料나 技術을 發明하지는 못했다는 事實입니다.

이처럼 누에고치로 만든 비단의 價値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漸次 潤澤해지는 生活의 向上에 따라 고급옷감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우리 忠南道의 境遇를 보면 뽕밭面積은 蠶業의 全盛期를 謳歌했던 지난 10年前의 約5분의 1로 줄어들어 지난날 農家所得의 큰몫을 차지 하던 때가 아쉬운 實情입니다.

國家的인 次元에서 보더라도 每年 누에고치 需要量의 70%를 外國에서 들여오는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原料의 品貴現狀으로 生絲業界가

어려움을 겪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蠶業農家나 關係公務員, 그리고 道民 모두는 一年農事の 收益性を 따지기보다 먼 앞날을 내다보는 眼目과 將來를 생각하면서, 養蠶 中興에 보다 積極的인 姿勢를 갖추고 또 聲援을 보내 주셔야 옳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道蠶種場의 移轉新築도 蠶業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活氣를 불어 넣으려는 道當局의 努力과 蠶業에 關心있는 聲援에 힘입은 조그마한 結實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뽕나무를 심을 수 있는 野山과 丘陵地가 얼마든지 있는 만큼, 養蠶의 收益性和 將來性の 弘報와 養蠶團地의 造成, 大規模 養蠶農家와 主産마을 重點 育成, 그리고 養蠶의 科學化를 통해서 養蠶의 中興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날 이름있는 蠶業고장으로서의 名譽와 所得을 되찾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과 더불어 다짐합니다.

오늘 이 竣工이 있기까지 工事を 맡아서 애써주신 技術陣 여러분, 關係公務員, 그리고各界의 聲援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韓國 4H聯盟 忠南道支部 會員大會

1988년 4월 22일

祝 辭

오늘 젊은 날의 4H理念과 活動을 바탕으로 내 故鄉 農村과 地域社會 發展에 앞장서고자 하는 韓國 4H聯盟 忠南道支部의 結成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半世紀에 가까운 歷史와 傳統을 지닌 4H運動, 오늘의 農村을 있게 한 使命의 4H活動, 또한 來日의 福祉農村을 創造할 꿈의 4H精神, 이것이 곧 여러분의 所望이요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여러분의 靑少年 時節 꿈과 情熱을 수놓았던 4H의 理念을 壯年이 된 지금에도 더 나아가 一生을 통해서 이를 信奉하고 昇華시키려는 여러분의 信念, 정말 讚辭를 보냅니다.

아울러 知性과 德性, 勤勞와 健康의 4大精神으로 가다듬는 여러분의 精神運動은 나 個人에 그치지 않고 同僚들을 모아 組織化, 信念化, 行動化시키려는 여러분의 意慾에 큰 期待를 갖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비록 出發의 깃대를 세운 여러분이지만 지난 날의 經驗과 새로운 智慧를 바탕으로 내 고장 農村의 先進化에 큰 몫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價値와 論理, 傳統과 文化 그리고 마음의 고향은 農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 都市를 憧憬하고 또 農村을 떠나는 傾向도 있지만, 결국 그들도 人生의 黃昏期를 맞으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마

련입니다.

삶을 누리기에 조금 不便하다고 해서 일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보다는 그 不便한 점을 便利하게, 不足한 것을 豐饒롭게 가꾸려는 여러분의 意志, 이것이야말로 人生을 거는 正面 勝負이고 텃줄을 가른 내 고장을 사랑하는 愛鄉이며, 祖上의 뜻을 받드는 崇祖의 實踐입니다.

이 고장에는 여러분 壯年 4H회원이 30萬名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또 지금 여러분의 뒤를 잇고 있는 5萬의 새마을 靑少年 會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의 支援이나 도움도 없이 스스로 組織하고 團結하여 自身의 人格을 가꾸고 이웃을 사랑하며 마을에 貢獻하려는 여러분의 純粹한 精神, 強靱한 意慾, 끈질긴 實踐 그리고 소담한 結實을 期待합니다.

오늘 뜻깊은 모임의 結成을 主導하신 최동원 支部長님과 會員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第18回 忠清南道美術大展 施賞式

1988년 4월 23일

激 勵 辭

우리 고장에서 가장權威있는 藝術饗宴인 道美術大展이 藝術人들의 뜨거운 사랑과 參與 속에 열여덟번째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道美術大展은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읍니다만, 藝術의 一念이라는 오직 한길로 꾸준한 成長을 持續하면서 力量있는 新人들의 登龍門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既成 藝術人들의 水準높은 作品活動으로 그 權威를 더욱 드높여 왔읍니다.

이와같은 發展의 原動力을 내 고장 畫壇, 나아가 忠南의 創作熱과 次元높은 藝術魂을 불태워온 鄉土藝術人들의 刻苦의 結晶으로 생각되어 이에 讚辭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傳統과 오늘의 삶은 물론 多樣的 個性과 普遍的인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調和되는 鄉土藝術을 통해서, 새로운 地方文化時代를 꽃피울 召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要請은 이미 모든 分野에서 肯定的인 活動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비단 藝術人뿐만 아니라 우리 300萬 道民 모두의 藝術에 대한 愛護가 또한 必要한 지금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 道展이 鄉土文藝의 先驅者로서 그 役割을 다할 것으로 期待합니다.

이번 道美術大展에서 斬新한 作品世界와 藝術性으로, 入賞의 榮譽를 안으신

受賞者 여러분에게 뜨거운 祝賀를 보내면서, 오늘에 安住하지 말고 더욱 精進함으로써 郷土文化 그리고 民族文化 暢達에 큰 발자국을 남길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道美術大展이 盛況리에 치뤄질 수 있도록 애쓰신 이 고장의 藝術人, 그리고 審査委員 여러분의 勞苦와 道民 여러분의 聲援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弘益大學校 鳥致院 캠퍼스 起工式

1988년 4월 23일

祝 辭

오늘 이곳 우리 고장 燕岐에서 弘益大學校의 第2캠퍼스 起工式을 갖게 된 것을 道民과 더불어 眞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이곳에 人材育成의 搖籃이 될 大學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道內에서 가장 有利한 立地的 環境과 活氣찬 稼動이 期待되는 農工團地와 더불어 產學의 調和 속에서 이 地域社會의 發展은 크나큰 加速力을 갖게 될 것이 分明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고장 住民들이 내 고장을 사랑하는 뜨거운 愛鄉心, 그리고 先進고장을 이룩하려는 意志가 倍加된다면 그야말로 燕岐郡은 꽃피는 地域社會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鳥致院은 오래전부터 大田, 公州와 더불어 大田圈 發展에 하나의 軸이 되었 으면서도 다른 地域의 成長에 比하여 比較的 뒤떨어진 都市라는 말도 먼 옛날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機會, 跳躍의 環境, 그리고 成就와 繁榮의 時代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0年代에는 우리 忠南道가 脚光을 받는 西海岸의 時代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視野를 더욱 넓히고 보면 世界 歷史의 主된 活動舞臺가 大西洋에서 서서히 西太平洋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漸漸 다가오는 이 西太平洋의 中心地域이 바로 東北亞地域이

요, 그 東北亞의 核이 바로 韓半島라는 事實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世界 歷史의 推移와 時代的인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이 巨大한 世界史의 흐름을 앞서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거센 世界史의 潮流에 떠밀리고 당당히 맞서 우리의 智慧와 信念과 努力을 실은 希望의 배를 띄우고 우리 함께 노저어 간다면 우리는 分明히 21世紀의 主役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西海岸의 깊숙한 배후지역에 知性의 殿堂이요, 人材의 產室을 세우는 것도 이러한 歷史의 展開를 展望하면서, 이 고장 發展에 이바지하고 밝은 地域社會를 이끌며, 國家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指導者의 養成에 그 目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忠南道의 發展은 결코 한 都市나 한 地域의 越等한 開發이나 成長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地域社會, 都市와 農村, 山間과 漁村, 海岸과 內陸이 서로 補完과 均衡을 이루면서 開發되고 發展할 때 비로소 잘사는 先進社會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發展과 成熟을 誘導하고 先導하는 成長據點과 背後都市가 있다는 事實입니다.

오늘 여기 弘益大學校가 들어서면서 이웃하고 있는 高大캠퍼스와 더불어 이 鳥致院은 더욱 그러한 成長據點都市로서의 面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起工이 있기까지 온갖 心血을 기울여 주신 崔愛卿 弘益學園 理事長님, 그리고 많은 聲援을 보내 주신 이 고장 出身 千永星 議員님, 郡民 여러분께 깊이 感謝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988년 4월 24일

特 講

먼저 우리 保健診療所長님이 남들은 다 都市에서 좋은 條件으로 勤務를 하는데 僻地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道知事로서 形式的인 人事가 아니라 眞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勞苦를 위로합니다.

道知事が 여러분이 이처럼 한데 모였을 때 만나보지 못하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故郷에 와서 道知事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會議라든가 또는 教育이라든가 懇談會, 對話 등에 수없이 참여하지만 오늘 우리 道政과 道民을 위해서 여러분이 연약한 女性의 몸으로 獻身하고 또 奉仕하는 여러분을 만난 것은 내가 赴任하고나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農村 出身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勤務環境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醫藥業界에 從事하는 분들이 흔히 仁術 또는 醫術을 말하지만 그것이 다 하기 좋은 말이고 여러분이야말로 실제로 하나의 仁術이고 奉仕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大都市에 즐비한 病院이나 醫院은 누구든지 손쉽게 이웃집에 訪問하는 것 같이 손쉽게 가서 診療도 받고 또 入院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 山間農漁村에서 아주 僻村에서 勤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道民의 참 奉仕者이고 眞實한 醫療人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人生에서 가장 幸福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概念을 設定할 때 슈바이처의 人生觀이나 그 人生의 價値觀이 이 世上의 많은 사람들中에서 역시 幸福한 사람이다.

그래서 슈바이처의 幸福觀에 대해서 世界人類가 하나같이 尊敬을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슈바이처가 그렇게 尊敬을 받고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推仰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個人的 人格도 人格이지만 社會에 奉仕한다, 남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結果적으로 한 인간이 죽을 때 제일 價値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나라의 재계의 거물 이병철 씨가 作故했습니다마는 그 분은 많은 社會事業도 하고 재계에 많은 影響도 끼쳤지만 그분 이병철씨 個人的 人生을 살아서 棺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人生 전체를 통하여 價値있는 生活을 했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幸福의 價値概念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評價할 수는 없고 보통 죽는 것은 남을 위해서 奉仕하는 것 이상 아무 것도 더 높은 것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도 죽어보진 않았습시다만 눈을 감는 순간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면 아! 내가 죽는다.

그 죽는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 世上에 나서 무엇을 하고 죽느냐 여기에 終着한다고 합니다.

終着點을 그 때 제일먼저 느끼는 것이 내가 누구누구를 도와 주었지, 내가 젊었을 때 무엇무엇의 아름다운 일을 했지, 내가 몇살 때 누구누구하고 좋은 일을 했지, 이렇게 대개 죽기전에 人間이 자기 自叙傳을 쓸 때라든가 또 눈을 감을 때 그 나쁜 것 누구를 惡하게 한 것 보다는 可能하면 자기가 저 世上으로 갈 때 人生의 아름다움을 찬미를 하고 대개 人生을 보람으로 기억하면서 종언을

고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共通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世上에서 그런 價値 위에 놓는다고 보면 슈바이처까지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奉仕精神으로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都市에서 여러 가지 條件이 좋은 與件下에서 보다는 人生의 價値 그 Valuable 한 그러한 價値面에서 볼 때는 나는 여러분들이 더 고귀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보면 내가 오래 敎職에 있었읍니다.

國民學校 선생도 하고 高等學校 先生도 하고 敎鞭을 오래 經驗했다가 行政界로 돌아왔읍니다마는 엇그제도 學校 先生님, 校長, 校監先生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러면 道知事を 했다, 內務部 무슨 企劃管理室長을 했다, 局長을 했다, 뭐했다, 그러면 學校 校長先生님이나 校監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굉장히 높이 됐으니까 말이야 저사람 잘 됐구나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또 나는 판사람이 볼 때 이병철씨가 엇그제 죽었지만, 아! 그 財界의 큰 별이 죽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훌륭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내 人生 道知事 내 자신으로 볼 때는 내가 과연 學校 先生할 때 보다 지금 내가 幸福하나, 내가 僻地에서 아주 시골에서 敎鞭을 잡았읍니다.

저는 師範學校를 卒業하자 마자 아주 남들이 希望을 안하는 곳에 가서 學校다닐 때 文學을 한다, 詩를 쓴다고 하는 그런 浪漫的인 精神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바다가 보이고 조용한 農村, 그러한테가 어디 있겠느냐 싶어 그때의 실속에 비해 바보같은 짓을 했지요.

그때 教育委員會에 물어가지고 제일 변두리라는 곳이 서산군 근흥면, 瑞山에서 오신분이 오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한번은 “내가 그곳을 잘 아는데 아침에 朝會할 때 이렇게 臺에 올라서보면 앞에 바다가 흰히 보이고 海棠花가 피고 그토록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희망지로 써넣고 말았지요.

내가 그곳에 간다고 써넣으니까 판 사람은 發令이 안났는데 나는 석달전에 혼자 發令이 나버렸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나한테는 特典을 주는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차를 타고 걸어가도 버스가 없는 僻地니까 그 무거운 짐, 그때만 해도 이불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방을 들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리인가 30리인가를 泰安邑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했구나, 내가 공언히 希望을 했구나, 그래서 그 20대 초에 한참 文學을 하고 책을 읽고 할 때니까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라도 참 한심한 地域이에요. 정말 바다는 보입니다.

그래 海邊도 보이고 하지만 실망하기 전에 방 하나 얻어 이불보따리 하고 冊을 던져 놓고 그날 赴任도 않고 海邊에 나갔어요. 海邊에 나가서 보니 海棠花도 있고 그래요. 야! 이만하면 됐구나! 그런데 오래 있을게 못됩니다.

그래 6개월쯤 되니까 詩도 그렇고 文學도 그렇고 더이상 못있겠어요.

내가 그래 야! 이게 人生의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튀어나와 가지고 大田市로 와 버렸어요. 大田市로 와봐도 6.25事變 때니까 어려운 때라 教鞭生活로 여기저기 전근만 다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해서 자유당 때 길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젊은날에 海棠花가 피고 詩쓰고 文學을 좀 해보겠다고 덤비던 그 때가 역시 나의 人生中에서 아름다웠다고 봅니다.

요새 새벽부터 아침에 밥도 못먹고 朝餐會에 나가서, 講義나가지, 11時부터 또 會議있지, 12時에 누구 만나지, 3時에 만나지, 4時짜리가 또 있지. 오늘 스케줄은 秘書 말을 들어 보니까 밤 10時까지 있지, 하루에 8번 9번 일정에 쫓기고 집에 가게 되면 밤 12時 1時되면 폭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되면 내 人生은 그럼 뭘 뵈니까? 그래 내가 엇그제 교장선생님들에게 말했어요. 참 幸福하시다 하고, 내가 후회막심하다는 것을, 지금 道知事가 되고 그랬지만 아 여러분이야 일요일날 가족들 하고 즐기시고, 讀書라도 하시고, 신문이라도 제대로 읽으시고, 家族하고 對話를 하고, 子女들하고 즐길 수 있고, 運動도 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일요일이 있습니까? 저는 엇그제 저녁 11시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 6시에 또 내려와 가지고 또 8시에 會議하고 일요일날 12시에 會議하고 또 오후 6시에 會議들어가고 일요일날도 없이 바쁘게 되다보니

까 내 人生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感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려한 俳優들이 舞臺에 들어가면 孤獨해진다는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俳優들이 화려한 것 같이만 보여도 일단 幕이 내리고 聽衆들이 다 가고 쓸쓸하게 텅빈 의자를 보면 孤獨感을 느끼고 밤늦게 저희 집에 가면 운다는 俳優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같이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여러분들이 僻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意味에서는 人生全體를 볼 때 매우 값있는 生活을 하신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慰勞를 하시고 어려움을 克服하시는 것이 全體로 볼 때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人生을 고향할 때 아! 먼저 내가 그 뭔가 忠南에 있을 때인데 조그마한 道知事가 와서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人生이 다 좋다고 그 때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때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에 가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은 慰安이 될겁니다.

특히 나는 여러분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啓蒙에 큰 힘을 입어서 여러분도 아시죠? 家族計劃 事業에서 우리 道가 3年 동안 연속 全國에서 最優秀 實績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늘 잘해 주시고 고생하신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꾸준한 醫療奉仕와 또한 住民啓導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이 農漁村醫療에 先進고장을 目標로 우리 忠南이 건강한 地域社會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늘 期待하고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地方行政이 거의가 住民들에게 될 해주시오, 뭐좀 도와주시오, 하는 것이 많고 또 協調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行政도 人間과 人間 사이에 오고가는 有形無形의 交流라고 본다면 나는 반대로 항시 住民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여러분의 指導나 또는 勸誘야말로 邑面長이나 다른 어떠한 公務員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들의 말을 무게있게 들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平素 이점을 念頭에 두시고 단순히 住民들에 대한 診療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道 行政에 있어 核心이 되고 또 地域社會의 輿論이나 나가서 國家的인 그러한 課題를 일깨워 준다는 큰 成果를 아시는 그런 主役을 맡았다 하고 여러분께서 使命感을 가지시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業務에 관한 일이나 또는 勤務要領 등은 사흘 동안의 教育을 통해서 충분히 가다듬게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本人은 한가지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公務員뿐만 아니라 道民 모두가 深思熟考해야 할 하나의 國事に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사실 금년 제가 赴任한지가 11個月 조금 못됩니다만 제가 오면서 겪은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제가 赴任하자마자 記憶이 나시죠? 성지원 사건이 터져가지고 與野간 政治問題가 됐을 때 이에 휘말렸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조금 조용하나 하니까 또 學生들 데모가 급격히 번져가고 전경도 죽고 全國에서도 大田이 학생데모가 가장 격렬해져서 그것을 鎮壓하느라고 애썼으며 그것이 끝나기전에 7월달에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大洪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것도 한번도 아니고 네번이나 거듭하여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차드 메고 다니면서 復舊費를 다행히 많이 타고 그래서 여러분이 地域에서 느끼셨겠지만 수해 復舊費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補償費도 충분해서 水害났을 때 보다는 굉장히 좋은 結果를 가져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만족을 느끼는 걸로 매일 나한테 고맙다는 편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 7月, 8月달에 무슨 재앙이 있는지 한번 8月달에 많이 비를 맞아서 연거푸, 아무튼 금년도 정신 못차리는 와중에서 또 뭐가 터졌느냐 하면 잘 아시죠 勞使紛糾가 터지는 바람에 길거리에서 운전기사들이 차를 뒤집어 엎고 난리를 피우고, 工場마다 문을 닫는 고통을 두달쯤 겪으며 鎮壓하는 과정에서 오대양인지 육대주인지 하는 事件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鎮壓하느라고 겨우 애를 먹다가 이번에 숨도 못쉬는 사이에 國民投票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임 후 1년여 동안에 정신을 못차리게 단 하루도 영일이 없이 오늘날까지 지내서 아직 제가 健全하게 이 단상에 서는 것만 해도 제 자신이 아주 기적에 가깝고 다른 市道知事들이 나한테 오뚜기 知事라고 그러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잘 견디어낸다고, 그래도 이번에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그 우리 나라 水害豫算 追更額 總 4,500 億을 國會에서 追更豫算額을 세웠는데 제가 3,490 億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의 80%를 따왔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보시면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工事を 벌리고 제방을 쌓고 교량을 놓고 요즈음 굉장히 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호뭇한 것이 집집마다 쌀과 돈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 水害 한번 더 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도 없지 않습니다.

정말 歷史에 없도록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그러한 試鍊을 당했어도 잘 克服하게 된 것은 제가 道知事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얘기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런 僻地에 어려운 與件이면서도 여러분들이 奉仕를 보람으로 생각하고 늘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도 GNP가 2,300\$ 금년말되면 거의 3,000\$에 가까워지고 이제 5,000\$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도 이제 소득에서 앞으로는 그런 소득이나 GNP 보다는 어디를 行政의 重點을 두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福祉行政에 重點을 두지 않겠습니까?

福祉行政은 대개 어디에 重點을 두게 되느냐 하면 GNP 소위 開發途上國家에서 中進國家로 가는 여러분들이 專門學校를 다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I developing country 그다음에 開發途上國家나 先進國家의 경우는 in development country는 주로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6.25 事變 前에는 밀가루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딜가나 救護物資를 먹고 사는 時代는 지났지요.

우리도 무엇인가 물론 소득도 올려야 되겠고 增産도 해야 되지만, 그와 아

올리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社會, 그렇기 위해서는 역시 福祉行政의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道の 行政에서도 이 開發行政, 所得行政보다는 福祉行政의 分量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30%~40%, 過去에는 福祉行政 position이 10%~20%, 지금 30~40%가 福祉行政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Welfare에 대한 比重을 많이 두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 이제 저 쪽 西歐의 덴마크나 스위스나 스웨덴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完全히 先進GNP가 그만한 때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런 Welfare에서 그 다음에 뭘로 가느냐 Sprit 정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기를 1단계는 GNP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Welfare는 2단계 소위 5,000~10,000 \$사이를 뭘로 하느냐 하면 GNW로 씁니다. 學者에 따라서는 Welfare도 비슷하게 쓰지요. 그러니까 福祉行政에 重點을 두고 그 다음에는 정신으로 가서 죽을 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한 것 精神的으로 安定되는 것 이런 段階를 學者들은 區分합니다.

그럼 우리 나라는 어느 段階에 와 있느냐 하면 나는 GNP에서 GNW의 中間에 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직 GNS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全國民에 대한 國民皆保險을 내년도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들은 내가 볼 때는 점점 더 많이 있지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擔當한 業務는 바로 道知事業務의 바로 一翼을 擔當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道知事の 오른팔 역할을 해주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나는 반드시 단순하고 간단한 診療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地域社會를 啓導하고 知性人으로써 이 地域社會를 이끌어가는 그런 先導的인 知性人이다, 나는 지도자다, 이러한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나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時間도 없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의 現實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우리 나라가 지금 어떻게 처해 있느냐?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지구상에 우리 나라는 特殊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東獨, 西獨, 臺灣, 中共 그리고 大韓民國 이렇게 南北으로 갈라졌던지 東西로 갈라진 나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TV보셨죠. 이제 臺灣하고 中共하고는 交流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臺灣하고 中共은 완전히 大陸사람들의 기질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뭉쳐버리는 거예요.

말만 臺灣, 中共 그래 놓지 이제는 公務員, 軍人 빼놓고는 막 交流해버려요.

이제 합쳐지는 거지요. 얼마 전에 보셨어요? 東獨首相이 西獨가서 査閱받고 다같이 交流하고 親知訪問하는 것, 新聞보셨죠.

벌써 東獨, 西獨 게르만民族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地球上에서 유일하게, 지금 특히 아시아에서 공산권으로 안넘어가고 兩斷된 國家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로지 이 地球上에서 大韓民國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問題가 아니라 지금 우리 나라하고 이북하구요, 軍事的인 전력을 比較해보면 陸・海・空軍을 비롯해서 지금 空軍도 한 3배가 넘고 海軍도 한 4~5배가 되고 陸軍도 2배가 되고 다 3~4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經濟開發해서 工場만들고 잘 살기 위해서 이 程度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북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남침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언제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또 共產主義 社會라는게 요즘에 中共에서도, 엇그제 新聞보셨어요? 共產主義 體制를 가지고는 잘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結果的으로는 자본주의 體制를 導入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엇그제 등소평이가 얘기했죠. 蘇聯도 그렇게 됐죠. 中共 그렇게 됐죠. 이제는 모두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로지 지금 北韓만이 封鎖的인 特殊한 政策을 쓰고 있기때문에 돈 생기면 무조건 군비증강으로 쏟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사력의 $\frac{3}{4}$, 60% 이상을 휴전선 가까이에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그래놓고 엇그제 얘기 들어보면 그 金日成이가 얼마 전에 東獨에 갔었지요. 東獨에 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 “88年度에 남조선에서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는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엇그제 金日成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88年度 상반기는 남조선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고 자기 共產圈에 있는 大使들을 불러모은 만찬장에서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엇그제 뭐라고 했습니까? “南北間에 올림픽 會談은 않겠다, 언제 하느냐 大統領 選舉 끝나고 하겠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올림픽이 좌절되고 혼란이 오면 그때가서 얘기하지 지금 너희들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狀況은 어떤 狀態에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에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거예요. 민민투, 자민투, 서대협, 인대협 이렇게 해서 지금 젊은 좌경 大學生들이 얼마나 하면 수만명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보셨지요. 延世大學, 釜山大學 같은 캠퍼스의 대낮에 大字報 써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북은 樂園이다 金日成 首相 써놓고 무엇무엇하고 이북에는 더 이상의 樂園이 없다 우리는 빨리 이북하고 뭐한다.

대낮에 金日成의 사진 붙여놓고 낮에는 안 들킬려고 이렇게 커버썬위 놓고 저녁에는 거기다 절 하고 그러디다.

얼마 전에 법정에 가서 그 변호하는데 뭐라고 변호하느냐 하면 좌경의식된 학생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재판장! 좌경의식이라니 내가 왜 共產主義지 좌경의식이요? 말 똑똑히 하시오” 이렇게 대놓고 재판장한테 대드는 그러한 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이와 같이 이 地球上에서 가장 特殊한 사정에 있습니다. 불과 이북에서 3·4분이면 폭격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水原, 大田까지 평양에서 포를 쏘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처럼 特殊한 狀況입니다.

만일 社會가 극도로 혼란해진다면 國內全體가 시끄럽고 그러게 되면 돈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예금했던 것 다 찾게 되지요. 자 증권 떨어지지요. 失業者 생기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問題가 생기니까? 또 어떤 問題가 생기지는 않니까? 여권있는 사람 다 海外로 도망갈려고 할겁니다. 다 海外로 도망 갈려고 하고 또 海外로 도망가지 않는다 해도 다 밀항을 해서라도 日本이라도 갈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社會가 극도로 혼란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기억이 나요? 몇년전인가 中國 民航機가 여기 날라왔는데 民防空訓練하는 사람이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訓練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기가 와서 폭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避하십시오. 이것은 演習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 때에 그 순간에 서울에 있는 수퍼마켓에 라면이 完全に 동나버렸습니다, 몇분만에 말입니다.

주부들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라면을 사고, 이것주시오, 저것주시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避難가려고 쌀자루 만들고, 뭐 만들고 도망가려고 보따리 싸입니다.

蘇聯의 불세키혁명 때 몇명이 들고 일어나 蘇聯이 亡한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200 명이 해치운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안됩니다.

넘어가려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문제가 생기느냐 金日成이가 딱 쳐다보고 찬스가 이 때구나 절대로 전면 공격을 안 할 것입니다.

않는 걸로 판정이 나와 있어요. 왜 않느냐 금년이 올림픽 하는 해 아니예요.

地球上에서 모든 사람들이 올려고 그러는데 全面 攻勢를 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들이 計劃 꾸미고 있는 것은 지난 秋夕날 西海岸 앞바다에서 銃질을 해서 우리 어부들을 죽였잖습니까? 어부들 죽이는 것같이, 그런식으로 파상공격을 하는 겁니다.

절대 전면공격 않고 자! 東海岸은 옛날 올진 삼척사태 있었죠. 그식으로

일, 이소대가 와서 사람 몇십명이 동네에 와서 우리 인천이나 또는 우리 대천이나 보령이나 상륙해서 우리 국민들 몇십 죽여놓고,釜山 앞바다에 와 가지고 소란을 피워 休戰線으로 와서 몇소대 와가지고 몇 백명 죽여놓으면 온통 우리 나라가 벌집쭈신 것처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겁이 많습니다.

왜 五千年 歷史 동안에 아차 하면 매일 피난만 가고 맨날 外侵만 당하여 歷史上으로는 우리가 얼마만큼 外侵이 있었느냐 하면 9백 몇회인가 하는 侵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굶직 굶직한 것만 해도 몇번 있느냐 하면 400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야 빨리 먹어, 싸게 먹어, 급히 먹어치워, 그리고 어디 갈 때도 어서어서, 싸게싸게 가, 싸게싸게, 그래 막 밥을 먹어도 中國집에 가서도 금방 소리지르고 빨리 짜장면 가지고 오라고 소리소리 지르면, 지금 짜장면 만들지도 않았는데 예! / 갑니다.

곧 가요. 가기는 뭐가 가요, 지금 반죽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급하냐, 여러분 海外에 나가보셨지만 外國에서 무슨 食事に 招請되어 가 보면 우리는 오래 앉게 되어있어 징글징글해서 못 앉아 있어요.

나는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우리는 후다닥 먹고 입 싹 씻고 가지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먹고 조금 먹고 또 놓고, 정말 감질나서 못앉아 있어요. 한시 두시까지 먹어요.

도대체 나는 막 먹고나면 저녁 8時인데 4時間을 더 기다려야 해요.

나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우리 民族은 왜 그러느냐?

壬辰倭亂, 丙子胡亂, 蒙古族이 쳐들어와, 계속 쳐들어와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李朝 500年 동안에 外侵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그렇게 混亂하면 여러분 보셨어요? 越南의 映畫를 보실 때 그 중들이 돌 던지고 修女들이 돌 던지고 큰 愛國者 같지만, 그 이후에 越南 映畫를 보시고 茫茫大海에서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 어린애들이 울고 그 넓은 바다에서 갈 곳이 없어 철렁철렁 바다에 떠있는 難民船을 여러분은 보셨

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釜山에서 일부 받았지만 우리 나라가 잘못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計劃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民主主義를 持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나라가 제 2 캄보디아, 越盟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深刻한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즈음 新聞 보십시오. 每日 화염병 던지고 每日 갖다 집어 넣어도 그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 것은 重大한 問題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英國이나 佛蘭西나 獨逸이나 美國이나 先進國처럼 社會가 安定되어서 어떤 首相이나 大統領 하나만 바뀌어도 社會도 安定이 되었기 때문에, 리듬이 깨지지 않는 先進國家에서는 그게 아무런 支障이 없습니다.

우리가 每日 安保, 安保, 解放후 安保만 가지고 말해서 安保가 滿身病이 걸린 것같이 됐는데 올해에 우리 나라가 올림픽을 못 치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올림픽에 올 것입니까?

이곳 저곳에서 여기저기서 몇십명 爆彈 터져 죽으면, 여러분 재작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루는데 金浦공항 쓰레기통에서 爆發物 하나 터졌는데 新聞에서는 안났지만 얼마나 많이 안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內容적으로 1/3이 올려다가 그냥 가고 올려던 사람이 안 왔어요. 危險하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고 여기저기서 벌집 쑤신 것처럼 우리 나라가 시끄러운데 世界的인 選手를 우리 나라에 안 보내요. 想像이나 해 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안 오느냐 金日成이가 조정해서 요즈음 못가게 조장하지 않습니까?

中共, 蘇聯, 東獨,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이런 소위 共產 블록에서 손 들 것입니다. 그들이 당초 올려고 했더라도 그들의 세계적인 選手 하나가 國力を 좌우하는데 보내겠습니까?

제 2 차로 그러면 누가 못 오느냐. 美國, 英國, 日本서도 選手 못 내겠다 라

는 판단이 되면 올림픽 못 치룹니다.

그러면 올림픽을 못 치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 우리는 올림픽을 못 치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까 애기한대로 우리 나라가 잘못하면 民主主義 歴史가 終止符를 찍고 맙니다. 그리고 나면 越盟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누가 輸出합니까? 돈 있는 사람 다 내 놓으라고 하는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歴史는 일단 끝난다, 이런 深刻한 問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을 克服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금 우리 나라는 必要한 것은 옛날같이 割腹自殺하는 愛國者도 必要없고 革命가도 必要없고 투기력으로 뒤집어 엎는 것도 必要없고,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 勞使紛糾도 不拘하고 우리 나라 經濟成長이 가장 높은 位置를 占領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安定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한번 치루게 되려면, 여러분 體育會 行事を 보셨습니까. 日本이 1960年代 GNP 600 \$에 치루었습니다.

GNP 아십니까. 자기들은 올림픽을 치루고 나서 적어도 3-4年뒤에 1,000 \$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이듬해 後半에 가서 1,200 \$이 됐어요.

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日本이 그때부터 또 世界 사람들이 日本 東京 올림픽을 치루고 나서 世界 사람들이 日本을 “親切하다” “깨끗하다” “日本은 秩序를 지킬 줄 안다” 이 세가지를 가지고 그 이듬해 觀光客이 무려 몇 배가 왔느냐 8배내지 10배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觀光客이 오기 시작해서 貿易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輸出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 나라에 오실분들이 우리 나라에 오지않고 전부 出張命令은 韓國까지 갔다오는 것으로 거짓말로 앉아서 쓰고 東京이나 臺灣에서 오사카에서 出張費를 다 쓰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日本이 이때 世界的으로 強大國이 된 것 아닙니까?

經濟的으로 問題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地域 行사가 아니라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全般에 걸쳐 가지고 完全히 우리 나라가 先進國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 아니면 나라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岐路에 서있는 것이 오늘의 時代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特別히 말하는 것은 단순한 農村에서 診療行爲에서 뿐만의 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와 같이 여러분은 서서비스를 하시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시고 一般公務員이 가서 郡守나 面書記나 郡書記가 가서 잘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신빙성도 없지만 왜 자꾸 負擔을 주고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 주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든지 對話를 부드럽게 할 수 있고 항상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負擔감이 없고 그에 대한 거역이 없기때문에 抵抗감이 없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이런 특수사정이나 우리나라의 이런 중대사나 앞으로 전개될 예정 사항이나 따라서 이런 問題를 특히 農村의 主婦 이런 家庭 부인들 한테 우리 나라 現實의 어려움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安定을 그대로 持續하면서 점차적으로 安定의 基盤 위에서 經濟도 發展되고 平和리에 政府도 이양되고 그 다음에 大望의 올림픽도 멋있게 치루어서 “참 훌륭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해야 합니다.

제 親舊 한 사람이 有名한 製藥會社 社長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안 게임 하기전에 海外에 나가서 韓國사람 왔다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시안 게임 끝나고 國際空港에 내리면 어디서 왔느냐고 하여 韓國에서 왔다고 하면 코리아 넘버원 넘버원, 韓國이 최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사람은 돈도 안쓰고 저만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世界를 돌면서 호텔에서 많이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그 울음은 내 民族이 이렇게 世界에서 알아주는구나!

그동안은 日本人이나 中國人이나고 묻지 코리아냐고 묻는 일이 없었는데, 코리아라고 하니까 택시 운전사가 코리아 넘버원 하더랍니다.

그래서 호텔에 혼자 와서 벽을 보고 많이 울고 나서 그 이름날정도로 지독한 사람이 돈을 많이 씁니다.

地域 事業도 하고 어디에 현금도 몇억씩 냅니다.

美國 화이자會社 하고 獨逸 화이자 會社하고 합자해서 만든 會社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會社인데, 아 이 사람이 돈을 왜 쓰느냐, 갑자기 愛國者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아 아시안 게임이 그거 간단한 것 아니더라.

世界 사람들이 알아주더라 그런 얘기에요.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만 제대로 치루게 된다면 우리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全般的으로 完全히 先進國家의 軌道에 take up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북에서 언제 우리 나라를 쳐들어 올 힘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金日成이가 그 期間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國家的인 어려운 시련기에 여러분 地域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림픽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健康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奉仕를 많이 해 주세요.

제가 幸福의 概念도 말씀하고 슈바이처 얘기도 했읍니다만, 여러분의 많은 健康과 榮光이 있기를 빌고 특히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役割을 해서 우리 忠淸南道는 우리 소장님들 덕택에 좋은 道政을 올렸다는 것이 확고히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결실을 얻도록 부탁을 드리고 모두 健康에 留意하셔서 3일 동안에 좋은 教育의 結果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第13代 國會議員 總選에 즈음한

1988년 4월 25일

談 話 文

來日 實施될 第13代 國會議員 選舉는 民主主義와 國民和合을 指向하는 새 政府의 出帆과 더불어 이 땅에 先進 民主政治를 具現해 나갈 國民의 代辯者를 選出하기 위한 選舉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重且大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選舉가 民主發展의 確固한 試金石이 되기 위해서는 道民 여러분께서 貴重한 主權行事に 빠짐없이 參與하여 成熟된 民主意識을 드높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公職者들은 이번 選舉가 史上 類例없는 自由롭고 明朗한 雰圍氣 속에서 公明正大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選舉管理業務를 公正하고 誠實하게 執行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投・開票 過程이 한치의 錯誤나 缺陷도 없이 完全하고 公正하게 管理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 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投・開票 業務는 法令과 良心에 따라 한票의 不正이나 違法이 없도록 公正하고 完璧한 管理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確固한 國家觀과 透徹한 使命感을 갖고 法令에 어긋나는 行爲나 錯誤가 一切 發生되지 않도록 公平無私하게 業務처리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投・開票 過程이 秩序整然하고 安全하게 進行되도록 選管委, 警察官署

등 有關機關과 有機的인 協助體制를 構築하여 事故의 豫防과 安全에 萬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一部 不純勢力의 各種 妨害策動이나 投・開票 不正劃策에 대해서는 監視, 監督에 徹底를 기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投・開票 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들은 말은 바 職務에 恪別히 精勵함은 물론, 投・開票所 周邊에서 發生하는 違法・不當事例를 果敢히 是正하여 自由로운 投票 雰圍氣 造成에 全力을 기울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一般 公務員들도 勤務組를 編成하여 秩序維持에 일역을 擔當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強調합니다만, 이번 總選이 새 時代, 새 政府의 民主發展 意志를 드높이는 契機가 될뿐 아니라, 道民의 民主意識도 아낌없이 發揚되어 새 政治의 新紀元을 創造할 수 있도록 各者의 所任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8年 忠清南道地方技能競技大會

1988년 4월 28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고장의 젊은 技能人들이 그동안 땀흘려 研磨해온 技能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88년 忠南地方 技能競技大會가 이처럼 베풀어지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더우기 올해는 전국 技能競技大會가 우리 고장 大田에서 開催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 忠南 技能 發展에 새로운 里程碑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고장 技能界의 發展이 他地域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먼저 이 고장 工業基盤의 구축이 늦어짐으로써 잘 訓練된 技能人을 수용하여 地域社會 技能 發展을 북돋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우리의 젊은 技能選手들이 수준 높은 技能을 마음놓고 연마할 수 있는 모든 실습재료와 教育環境에 대한 주변의 關心과 支援이 부족하였던 점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技能選手 여러분!

그리고 내고장의 技能發展을 위해 애쓰시는 후원인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 고장 技能界 發展에 대한 아쉬움과 부족함을 박차고 일어나 技能先進고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技能發展의 일대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고장보다도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農村工業化 施策의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 우리 技能人들을 부르고 있으며 앞서가는 技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西海岸時代의 開幕과 더불어 급격한 忠南道의 工業化 추세가 韓國技能의 核心地域으로 부상할 수 있는 與件이 조성되고 특히 대덕연구단지와 連繫하여 尖端産業과 高級技能人力에 대한 수요가 날로 擴大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發展은 최근 이 地域에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벌써 技能人力 수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技能競技에 出戰한 젊은 技能選手 여러분은 이러한 高級 技能 需要의 現實을 누구보다도 正確히 認識하고 단결하여 우리 고장이 國家發展의 中心地域으로, 그 先導的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努力하고 또 後輩들을 積極 이끌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地方技能 競技大會가 그동안 여러분이 갈고 닦은 技術을 유감없이 發揮하여 全國 技能大會를 開催하는 고장으로서 자부와 矜持를 가질 수 있는 알찬 모습을 보여 주어야 옳을 줄 압니다.

끝으로 이처럼 우수한 技能選手 指導 育成에 心血을 기울여 주신 指導教師님들과 이 뜻깊은 技能人의 잔치를 준비하시기에 心血을 기울여 주신 이종완 技能 올림픽 忠南委員長님을 비롯한 後援人士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5 月 月例朝會

1988 年 5 月 2 日

訓 示

13代 總選으로 바빴던 4月도 지나고 이제 季節의 女王인 싱그러운 5月이 되었습니다.

이번 總選過程에서 前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混濁한 霧圍氣로 말미암아 많은 憂慮를 했었습니다마는, 多幸히 우리 地域은 다른 地域보다 比較的 큰 事故나 物議없이 選舉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300萬 道民들께서 秩序를 지켜 준 結果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傘下 公職者 여러분들도 法定選舉管理業務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誠實하게 遂行해 준데 대하여 그 勞苦를 높이 致賀합니다.

특히 選舉期間 동안 事故豫防과 投・開票場의 警備業務를 擔當한 警察官, 그리고 萬一의 事態에 對備했던 消防官, 그밖에 投・開票業務에 從事했던 教育公務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거듭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選舉가 國民들이 成熟한 民主力量을 發揮해서 새 時代에 副應하는 政治發展의 轉機가 마련될 것으로 크게 期待했었습니다마는 先進民主政治의 基本인 政黨政治를 指向하기 보다는 地域主義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結果를 가져와서 우리 나라 議政史에 새로운 課題를 던져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에도 不拘하고 投票結果에서 나타난 現狀에 대하여 우리 公職者들은 民意의 所在를 謙虛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이에 對處하는

行政을 推進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行政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強力한 與黨에 의하여 많은 保護를 받아왔었습니다마는 이제 새로 構成될 第13代 國회의 議席分布나 國회의 強力한 對政府 牽制機能으로 보아서 이에 能動的으로 對應해 나갈 수 있는 大轉換이 必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地方自治制가 實施될 것이므로 우리가 遂行하는 모든 行政은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나 地方議會의 監視와 審判을 받는다는 姿勢와 새로운 覺悟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公職者 여러분의 周邊管理는 말할 것도 없고 行政의 깨끗한 處理와 行政의 公開, 住民便宜爲主의 行政實踐으로 眞正으로 住民으로부터 信賴 받는 行政을 具現해 나가는데 心機一轉해서 더욱 努力해 주기 바라며 우리 公職內部的 人和團結과 아울러 職員相互間에 自重自愛하는 氣風을 振作시켜 和氣가 充滿된 가운데 毅然한 姿勢로 우리 本然의 業務에 總力を 기울여 精進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內務部長官의 特別指示도 있었읍니다만 過熱된 選舉過程에서 그동안 흐트러진 民心을 早速히 收拾하여 들뜬 雰圍氣를 鎮靜시키고 選舉期間中 露呈된 地域內의 一部 對立과 葛藤이 解消되는 地域和合雰圍氣 造成에도 全力을 기울여 國民 모두가 選舉結果에 기꺼이 承服하고 和合과 安定 속에 國力伸張을 期해 나가는데 모두가 同參할 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5월은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 스승의 날, 成年의 날들이 들어 있어 家庭의 달과 靑少年의 달이기도 하며, 또한 豐年 農事를 期約하는 모 심는 바쁜 農事철입니다.

그리하여 5월의 道政의 力點은 첫째, 汎道民 스승尊敬運動을 보다 大大的으로 展開하여야 하겠습니다.

스승尊敬運動은 지난 1年餘 동안 많은 成果를 거둔 것이 事實이지만, 그러나 公職者들이 主導해 왔거나 外形的인 行事に 치우친 感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 運動을 더욱 發展의으로 推進하여 汎道民運動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精誠을 다하여 推進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弟子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스승도 그의 스승이 있고 또한 弟子가 스승이 되어 또 弟子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尊敬心を 涵養하는 일은 結局 모든 사람들이 남을 尊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지름길이므로 이러한 次元에서 지난 1年餘 동안 推進해온 結果를 다시 한번 綜合해서 分析해 보고 補完 發展시켜서 이번 맞이 하는 스승의 날을 期하여 이 運動이 새로운 次元으로 昇華되어가는 契機가 될 수 있도록 加一層 努力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敬老・愛幼氣風의 振作입니다.

어른을 恭敬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은 5月만의 行事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스승尊敬運動과 마찬가지로 家庭이나 社會에서를 莫論하고 우리가 日常生活 가운데 반드시 實踐해야 할 가장 所重한 德目입니다.

우리모두는 公職人이기에 앞서 한 人間으로서, 이러한 德目を 實踐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으며 敬老・愛幼氣風을 振作하는 施策을 많이 發掘 推進함으로써 밝고 明朗한 社會를 建設하는데 더욱 努力해야겠습니다.

어린이 날과 아버지 날 行事を 알차게 準備하여 行事에 參與하는 어린이나 아버지들이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善行어린이나 孝子, 孝婦에 대한 表彰을 大的으로 實施하는 同時에 報道機關과 協調하여 이들의 善行을 道民에게 널리 弘報함으로써 波及效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째, 못자리 管理와 모내기 促進입니다.

營農行政은 指導中心에서 새로운 營農技術의 普及이나 營農에 有益한 情報提供 등에 重點을 두어 推進해 나가되 當面한 모심기 등 營農에 支障이 없도록 水利施設에 대한 水害復舊作業과 農業用水開發 그리고 耕地整理事業 등을 促進시켜 適期에 모내기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하고 移秧機 등 農機械 普及과 故障修理 등 行政的인 支援을 強化해서 農民의 便宜를 돕는데 注力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째, 봄철 行樂秩序 確立입니다.

觀光하기 좋은 季節을 맞아 많은 行樂人波가 觀光地에 몰리고 있습니다.

觀光地에서의 無秩序나 自然毀損行爲, 그리고 아무데나 마구 버리고 가는 쓰레기 問題 등 行樂秩序紊亂行爲가 恣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啓導를 強化해서 올림픽 國民으로서 成熟한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 새 마을 運動의 一環으로 推進하고 있는 全 道域 淨化運動을 大的으로 實施하여 觀光地는 勿論 마을과 들과 河川에 닳려 있는 汚物을 短時間內에 깨끗이 淨化하는 三無運動에 力點을 두어 推進해 주기 바랍니다.

公職者 여러분!

5 月은 2/4 分期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計劃된 모든 事業을 推進하는데 加一層의 奮發을 促求하면서 家庭의 달을 맞아 아무쪼록 5 月 한달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기쁨과 보람이 充滿한 한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第25回 法の 날

1988년 5월 2일

記 念 辭

오늘 스물다섯번째로 맞이하는 法の 날에 즈음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300萬 道民과 더불어 法の 精神을 깊이 吟味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와 함께 他人이 살아가는 共同社會의 規範이 잘 지켜지는 成熟한 民主時代의 定着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金道彦 檢事長님, 黃道淵 法院長님, 그리고 法曹界人事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慰勞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周邊에는 아직도 法이나 社會의 規範을 自由와 서로 相反되는 것으로 誤解하여 이를 嫌惡의 對象으로 삼는 傾向이 있다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世界觀, 人生觀, 宗教觀 그리고 價値觀을 가지고 複雜한 삶을 누리는데 있어, 그 多様な 慾求와 理解를 圓滿하게 調整하고 妥協할 수 있는 基準이나 事前約束이 없다면 이 社會는 큰 混亂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共同의 目的이나 理念을 追求하면서 한 社會를 이루고 사는 것이라면 서로 對立되고 相衝되는 目的이나 利害關係는 미리 調整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境遇 不當한 한쪽을 制裁할 수 있는 社會의 規範으로써 우리는 法을 세우고 지켜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民主社會의 規範으로써 法은 窮極의으로 모든 사람의 安寧과 福祉를

위해 必要하며, 法 앞에서는 누구나 平等한 것입니다.

힘이 있는 者나, 弱한 者나, 가진 者나, 못가진 者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모두가 法을 지키고 받들어야 함은 너무나도 마땅한 理致입니다.

우리의 法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任意性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그것이 法에 어긋나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規則이나 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遵法精神이 體質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人生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法の 隸屬이 아니라는 事實입니다.

우리가 生活의 規則과 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보다 자유롭고 理想的인 社會를 建設하려는 하나의 手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에덴의 樂園” 같은 理想郷에 到達할 수는 없을지라도, 한 사람이 땀흘려 일한만큼 所得과 待遇를 받고, 서로간에 妥協과 合議를 할 줄 알며, 무엇이 올바른 것이며 그릇된 것인가를 法보다 먼저 判別할 수 있는 正義로운 社會가 우리에게는 먼저 必要합니다.

때문에 우리 有關機關이 서로 協力하여 犯罪없는 마을을 精誠들여 가꾸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마을이 더욱 많아질 때 우리 고장은 한층 더 살기좋은 先進고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모두 法の 날이 주는 人間社會의 理解와 協調와 사랑의 깊은 뜻을 더욱 宣揚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遵法에 대한 功勞로 表彰을 받으신 분들에게 祝賀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범죄없는 마을”懸板式

1988년 5월 2일

激 勵 辭

오늘 加支里 住民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犯罪없는 마을”로 選定되어 榮譽로운 懸板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오늘의 이 榮譽는 이웃사촌끼리 서로 義를 쫓고 情을 나누면서 順理를 앞세우고 秩序를 지켜 熱心히 살아오신 값진 努力的 結實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이와같은 協同과 遵法の 精神이 더욱 昇華되기를 바랍니다.

法은 우리 生活秩序와 直接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는 社會規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遵法意識이 없다면 國家나 社會의 秩序가 破壞되고 混亂이 가득한 社會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社會는 物質 文明의 追求와 産業社會로의 急速한 變遷으로 利己的인 思考와 行動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法秩序의 自律的인 遵守가 退色되고 있습니다.

法은 萬人에게 平等하며 例外나 特權層이 있을 수 없습니다.

法과 秩序가 잘 지켜지고 우리의 傳統的인 美風良俗이 보다 宣揚될 때 보다 밝고 豐饒한 우리의 先進社會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民族自尊의 새 時代를 맞아 모든 사람이 서로 相對方의 意見을 傾聽하고, 尊重하며 讓步하고 妥協해 나가는 새로운 價值觀을 所重하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 가을에 치루게 될 서울 올림픽은 世界 161 個國에서 參加하는 史上 類例가 없는 大規模 國際大會로 50 億 世界 人類의 一大 祝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大會를 통해 世界人들에게 우리 民族의 偉大함을 보여 주는 契機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꽃도 精誠을 다하여 심고 가꾸는 올림픽 準備要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갈이, 모내기對備 등 當面한 영농準備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加支里를 보니 發展 可能性이 매우 높은 마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農村 마을로는 比較的 交通이 좋고, 靑陽郡과 境界를 이뤘 이웃郡과 서로 比較, 發展의 길을 摸索할 수 있는 利點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 葉煙草, 고추, 有實樹 栽培 등 所得展望이 밝은 特化作物을 많이 栽培하고 있어 所得을 올릴 수 있는 無限大의 潛在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쉽게 實現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合心하여 所得源을 開發하고, 알뜰살림을 펴는 健全한 消費 風土를 生活化할 때 비로소 더욱 잘 사는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奮發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禮山郡은 尹奉吉 義士를 輩出한 忠節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이러한 偉대한 人物을 輩出한 것은 이 고장의 先祖들이 正義를 사랑하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疎忽하지 않고 마을 일에 앞장서 일하고 愛鄉心을 더욱 昇華시킨다면, 福된 마을, 先進 社會가 이룩될 것입니다.

모조록 오늘의 榮光이 來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그치지 않고 繼續될 수 있도록 努力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加支里마을의 發展과 더불어 여러분과 家庭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感謝합니다.

市長·郡守會議

1988년 5월 3일

訓 示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總選過程에서 諸般 法定業務의 完璧한 推進과 함께 자유롭고 공명스러운 선거 분위기의 조성과 유권자에 대한 투표 참여의 홍보 등을 위하여 온갖 知慮를 다 짜내어 不撤晝夜 渾身の 努力을 기울여준 勞苦를 거듭 致賀드립니다.

특히 些少한 失手도 容納되지 않는 選舉人名簿 作成을 비롯 投開票 管理業務 등 諸般法定事務를 한치의 錯誤도 없이 充實히 遂行함으로써 우리 管內에서는 단 한건의 事件, 事故도 없이 이번 總選을 무사히 치루게 된 점을 픽고맷게 생각하는 동시 아울러 본業務 遂行을 위하여 不撤晝夜 맡은 바 所任을 다해온 傘下 關係公務員들의 勞苦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眞心으로 致賀드립니다.

다만 4.26 總選 結果를 놓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有權者 投票性向에 있어서 한마디로 “地域感情”의 깊은 양금이 지난 大統領選舉 때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選舉로 一部地域을 除外하고는 인물이나 政黨의 政策 등에 대한 選好傾向이 없이 無條件의 緣故政黨 本位로 投票한 점이고 또한 過去의 與村野都 現象의 變化와 함께 都·農 區分없이 國民 政治意識이 成熟되었음을 立證시킨 契機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小選舉區制 弊端이 豫想보다 너무 많은 問題點을 露出, 앞으로 政治圈에서 깊이 研究해야 할 課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한편 앞으로의 時局을 展望해 볼 때 이제 野黨 3個 정당이 뜻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는 강력한 野勢의 출현입니다.

會期の 無制限 延長可能, 國政調査權을 비롯 監査權 復活 등 國會權限이 크게 強化된 새 憲法 아래 與黨의 過半數 議席이 未達되었으며 大統領의 國會 解散權이 없어진 反面 法律案 拒否權을 行使하는 程度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3 金氏 모두가 次期大權을 노리고 있어 政局을 跛行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過去 與黨獨走에서 벗어나 牽制와 調和 協力關係 維持로 政治發展, 民主化, 國家와 歷史 發展의 起爆劑로 昇華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憲政史 40年間 거의 政府與黨에 의해 國政을 主導해 오던 蜜月時代는 이제 그 幕을 내렸으며, 이제는 毅然한 姿勢로 與黨議員 못지않게 地域出身 議員들과 서로 協助하는 姿勢를 가지고 各種 事業計劃 樹立時에도 事前說明과 意見收歛 등 摩擦과 不協和音이 일어나지 않도록 格別히 神經을 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行政의 一舉手 一投足이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와 머지않아 構成될 地方議會의 監視와 審判을 받는다는 것을 前提로 새로운 姿勢와 覺悟를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每事에 있어 正道에 어긋난다 싶으면 아예 발상부터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人事運營이나 豫算의 編成 및 執行, 公務員의 對民姿勢에 있어 前例踏襲式 固定觀念에서 果敢히 脫皮하여 人事運營에 있어서는 客觀的인 基準과 合理的인 方法에 依하여 이루어져 “될 사람이 됐다”, “시켜줄 사람 시켜줬구나” 하는 객관적인 共感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豫算編成 및 執行에 있어서도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姿勢, 特定地域에 偏重된 事業政策을 止揚하고 優先順位에 의한 編成과 適法한 節次에 의한 執行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對民姿勢에 있어서도 “國民主權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認識을 새롭게 하여 適當히 얼버무리는 態度는 이 機會에 完全히 拂拭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市長, 郡守會議時 當面事項 指示는 油印物로 가름하였으나, 오늘은 各室局長이 所管別로 指示할 豫定이므로 仔細한 事項에 대하여는 別途指示가 있을 것이나 다만 몇 가지만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內務部長官의 特別指示도 있었지만 過熱된 選舉過程에서 흐트러진 民心을 早期收拾, 들뜬 雰圍氣를 鎮靜시키는 것이 急先務입니다.

選舉期間中 表出된 對立과 葛藤解消로 地域和合雰圍氣 造成에 盡力해야 하고, 특히 地域單位로 各種 報告會, 懇談會, 諮問會議 등을 開催하여 國民 모두가 選舉結果에 기꺼이 承服하고 和合과 安定 속에 國力伸張을 圖謀해 나가는데 모두가 同參할 수 있도록 誘導해 나가고, 또한 이미 指示한 바 있으나 아직도 一部 地域에서 選舉弘報物이 間或 눈에 띄고 있으니 즉시 말끔하게 除去하기 바랍니다.

또한 늘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各種 公約事項을 着實히 實踐해 주고 小規模 住民宿願事業도 道全體的으로 綜合進도가 33 %에 不過하니 全事業을 雨期前에 早期에 마무리짓기 바랍니다.

이제 政治는 政治圈에 맡기고 “이제부터는 올림픽이다”라는 覺悟로 우리 行政에서는 올림픽 새마을 運動 및 參與 雰圍氣 造成에 總力傾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봄철 行樂秩序 確立을 위한 對住民 및 觀光客에 대한 啓導強化, 觀光하기 좋은 季節을 맞아 行樂人波가 觀光地에 設置한 施設物 破壞行爲, 無秩序나 自然毀損行爲, 아무데나 마구 버리고 가는 쓰레기 問題 등, 올림픽 國民으로서 成熟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리고 季節의 女王인 5월은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 스승의 날, 成年의 날이 들어 있어 家庭의 달인 同時에 靑少年의 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汎道民 스승 尊敬運動을 大的으로 推進하되 지난 1年餘 동안 推進해 온 成果를 綜合 分析, 더욱 補完 發展시켜 나가고, 敬老・愛幼氣風을 振作시키되 어린이 날, 어버이 날 行事は 알차게 推進해 나가는 同時에 계제에 善行 어린이나 孝子, 孝婦에 대하여 大的인 表彰을 實施하여 주기 바랍니다.

못자리 管理와 모내기 促進 등 豐年農事를 期約하는 營農準備에도 徹底를 기하되 특히 指導中心에서 새로운 營農技術 普及과 有益한 情報提供에 力點을 두고 水害復舊作業, 農業用水 開發, 耕地整理 事業 등을 促進, 適期에 모내기를 끝낼 수 있도록 措置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道는 傳染病이 發生하지 않는 道로 아주 좋은 名譽를 지켜오다가 얼마 前 一部地域에서 뜻하지 않게 장티푸스 患者가 發生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올림픽이 開催되는 해인만큼 各種 豫防接種(일본뇌염, 콜레라, 장티푸스, 豚콜레라 등)을 早期完了하는 등 夏季防疫에 보다 徹底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去年에 우리가 큰 陳痛을 겪은 바 있는 勞使紛糾가 再燃될 氣味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運輸業體의 賃金引上 調整을 앞두고 택시業體를 中心으로 紛糾 發生이 憂慮되고 있으니 勞使間 圓滿한 妥協이 이루어지도록 指導해 나가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道內에는 12名으로 構成된 監査院 監査班이 水害復舊 狀況 全般에 걸친 道本廳 및 水害尤甚 市・郡에 대한 監査가 始作되어 5月 15日까지 繼續될 豫定입니다.

그동안 水害復舊 事業은 限定된 人力으로 短期間內에 工事を 推進해야 했고, 施工過程에서 惹起되는 民怨을 最大限 解消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水害復舊 마무리와 農繁期를 앞두고 監査의 延期를 要請하기도 하였으나 計劃대로 實施, 언제 치뤄도 한번은 꼭 치루어야 할 일로 既往에도 많은 苦生을 하였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對備에 徹底를 期하여 最大限 理解說得과 確實한 證憑書類의 提示 등으로 어려웠던 狀況을 納得시켜 指摘 事項을 最少化하도록 格別한 關心을 기울여줄 것을 懇曲히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強調하지만 그동안 解弛해졌던 公務員들의 服務紀綱을 確立, 心氣一轉해서 行政本然의 業務에 精進해 나가되 周邊管理는 말할 것도 없고 行政의 깨끗한 處理와 行政의 公開, 住民便宜 爲主의 行政實踐으로 眞情으로 住民으로부터 信賴받는 行政을 펴나가고 아울러 公職內部的 人和團結과 職員 相互

間에 自重自愛하는 氣風을 振作시켜 和氣가 充滿된 가운데 毅然한 姿勢로 나가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監査院에서 全市・道, 市・郡에 대한 服務監査를 5月 10日부터 實施할 豫定으로 있다 하니 傘下 全職員에 周知시켜 근무자세를 가다듬기 바랍니다.

國民投票와 大統領選舉, 그리고 總選 등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세차례에 걸친 莫重한 國家大事를 무리없이 遂行한 여러분들의 勞苦에 다시한번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일은 정상적인 行政 本然의 業務를 推進하는 일뿐, 心氣一轉하여 새롭게 出發할 것을 다함께 다짐합니다.

거듭 분발을 당부합니다.

1988年 忠清南道地方技能競技大會 施賞式

1988 年 5 月 4 日

祝 辭

오늘 우리 고장의 技能選手 여러분이 지난 1週日 동안 열띤 技能의 競演을 마치고, 그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를 드립니다.

技能選手 여러분은 오늘까지 여러분이 쌓아 올린 技能을 서로 견주어 봄으로써 스스로의 能力을 가늠해 보고, 또 내일의 보다 큰 發展을 위하여 마음속의 다짐이 있었을줄 압니다.

아울러서 오늘의 施賞式이 있기까지 技能競技 大會의 運營에 애쓰신 이종완 대회장님을 비롯하신 後援人士 여러분과 審査委員님, 指導教師, 그리고 各界各層의 聲援과 協調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忠南地方 技能競技 大會가 우리 技能選手들이 여기에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意慾과 忍耐로 技倆을 研磨하였을 뿐더러, 이 技能에 버금하여 기능인으로서 갖추어야할 姿勢와 人格도 함께 가다듬었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向上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땀흘려 쌓아 나가고 있는 技術과 技能의 튼튼한 基盤과 더불어 기능인이 優待받는 社會的 雰圍氣 造成이야말로 우리 地域社會를 產業의 선진고장, 國家發展을 先導해 나가는 고장으로 만드는 捷徑입니다.

여러분이 연마하고 있는 기술과 기능이 이처럼 地域社會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있지만 그 기능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西洋의 格言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여러분이 쉬지 않고 오로지 기능의 한길로 땀흘려 探究하고 訓練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執念을 불태울 때 비로소 이 사회에서 認定받고 自己의 抱負를 實現하는 技能人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受賞의 榮譽를 차지한 청소년 여러분은 하나의 可能性을 가졌다는 自信감과 希望으로 더 큰 成就와 榮光을 위하여 奮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技能이나 技術은 恒時 한 時點에 머물거나 限定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기에, 이에 게을리 한다면 하나의 成功에 滿足한다면 그 다음에는 停滯와 落伍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今年度 地方 技能競技 大會에서 비록 좋은 成績을 올리지 못한 기능선수들은 이번의 不振을 거울삼아 再起의 信念을 불태운다면 여러분에게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의 길이란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이어서 한 瞬間으로 그 優劣이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韓國技能이 世界技能 올림픽의 連覇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偉業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한번의 世界頂上에 만족하지않고 계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능선수 여러분!

이러한 전통과 명예를 土臺로 하여 智慧와 力量을 아낌없이 發揮할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國民이 소망하는 2,000년대 高度 산업국가의 실현은 물론 과학입국의 소망과 풍요한 선진국의 건설에 누구보다도 寄與하는 젊은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技能大會가 300 만 道民의 관심과 聲援 속에 盛大하게 폐를 여진 바와 같이 이제 우리 社會도 技能人들이 우대받고 부러움을 받는 時代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技能優待社會, 즉 優秀한 技能과 技術만 있으면 앞날이 保障되는 社會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앞장서 줄 것을 期待하면서 끊임없는 精進과

자기성취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感謝합니다.

서울올림픽 大田蹴球競技本部 發足式

1988 년 5 월 4 일

인 사

新緣이 무르익는 이때,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서울올림픽의 大田蹴球競技本部 發足式을 激勵해 주시는 教育監님, 여러 諮問委員님, 그리고 本部幹部要員, 有關機關의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올림픽의 準備를 위해 애써준 道와 大田市の 幹部들도 이자리에 모여 지금 당장 競技를 시작해도 좋을 完璧한 態勢, 정말 믿음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蹴球競技本部 要員으로 일하시게 될 蹴球協會, KBS, 忠大病院, 聖母病院, 電信電話局의 여러분에게도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36일 밖에 남지 않은 서울올림픽이 우리 大田에서 直接 競技를 치루고 또 觀覽할 수 있다는 사실, 自負와 矜持를 느낍니다.

오늘 이 時刻을 계기로 우리는 올림픽 準備態勢로 突入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이미 國際競技의 모든 면에서 좋은 經驗을 쌓은 바 있습니다.

그 經驗과 自信感을 土臺로 하여 圓熟하고 훌륭한 競技를 開催하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姿勢로 임하고자 오늘 發足式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번의 蹴球豫選競技를 위해 808 명의 行事要員, 3,000 餘 文化行事

要員, 그리고 모든 市民이 奉仕 要員이라는 마음으로 行事를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그야말로 核心要員으로서 모든 競技의 運營에 中樞的 役割을 擔當하는 분들입니다.

構成面에서 볼 때에도 더 바랄 수 없을 만큼 能力있고 또 意慾에 찬 各分野의 精銳要員들로서 多様な 일을 맡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우리 고장을 代表해서 모든 力量을 십분 發揮, 우리 고장에서 主管하는 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期待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은 복잡한 機械의 톱니바퀴와 같이 어느 것 하나라도 重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式典行事 進行에서 볼보이의 공 나르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失手나 蹉跌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에 있어 最大의 參加, 最上의 和合, 最高의 成果, 最適의 安全, 最大의 節約이 5大目標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分野의 機能, 所管業務를 自己 責任下에 完遂할 때, 이러한 5大目標에 符合되고 成功하는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所管이 分明치 못한 것도 나타나겠지만, 웬만한 것이면 내가 할 일이라는 能動的인 姿勢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自己部署의 모든 要員에 대한 身上把握은 물론, 細心한 곳까지 神經을 써서 소속감을 갖고 參與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808 명중 375 명은 自願奉仕要員, 130 명은 短期雇傭이나 用役으로서 所屬感이 稀薄할 憂慮도 있습니다.

이태 전 아시안게임때 釜山, 大邱, 光州에서도 蹴球競技를 치뤘지만 우리 大田에서의 競技運營이 가장 좋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運營要員들이 열심히 해 주셨고, 道民의 聲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自慢心은 금물이며, 오히려 虛點을 남길 憂慮도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에서는 모두 23개 種目에 34개 競技場으로 分散競技가 벌어지는 데 한 競技場에서의 조그만 失手라도 우리 國民과 國家의 얼굴에 影響을 미

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이 우리 大田에서 있을 때 그 名譽는 우리 忠南道와 300萬 道民은 물론 國家와 國民에게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여러분과 더불어 일하는 所屬要員들에 대한 身上把握과 指導, 監督에 대하여 다시 한번 強調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完璧한 行事進行입니다.

6月부터는 蹴球本部和 現場에서 事前에 하나 하나 點檢하고 對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서로가 자기 任務를 事前에 點檢하고 問題點을 도출해서 시정하는 努力이 있어야 完璧한 行事進行을 期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몇번의 사전 練習이나, 現場展開로 圓滑한 運營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며, 뚜렷한 目的意識 없이는 事前練習도 效果가 적을 것입니다.

自己業務를 熟知하고 個人別 行動要領까지 체크하므로써, 完璧한 任務를 遂行해 나갈 수 있도록 有機的인 指導體制를 確立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道와 大田市, 그리고 大德郡 幹部 여러분을 이자리에 陪席시킨 이유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強調하는 것은 最近의 올림픽이 競技爲主의 場內 올림픽보다 모든 國民이 參與하는 場外 올림픽에 더 置重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場外 올림픽은 두말할 것도 없이 周邊環境整備, 國民意識改革, 接客業所의 水準向上, 住民參與運動 등 運動場 밖에서 일고 있는 올림픽 새 마을運動의 모든 分野입니다.

올 가을에는 世界の 모든 뉴스의 焦點이 우리 韓國에 쏠려 歷史와 傳統文化, 意識水準, 生活秩序, 經濟力, 未來像 등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보도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競技支援은 물론, 모든 業務를 올림픽과 關聯시켜서 工事같은 것은 行事前에 매듭을 짓고, 모든 國民이 參與하는 親切, 清潔, 秩序運動을 事前에 定着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行政部署의 幹部 여러분은 자기부서의 올림픽 關聯事業에 깊은 關心을 갖고 漏水없도록 點檢 指導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까지 韓國은 世界로부터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認識을 받았는데

서울올림픽 이후에는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禮儀있는 나라, 希望이 있는 나라라는 確固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目標입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쳐 함께 내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發足式을 위하여 參席해 주신 諮問委員長, 그리고 각급 運營要員 여러분에게 感謝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健闘를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第11回 全國主婦教室會員 親善運動會

1988 년 5 월 7 일

致 辭

오월의 눈부신 新綠이 우리에게 더욱 큰 삶의 보람과 意味를 眞率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항시 家庭과 社會에서 밝은 웃음과 生動感을 주시는 우리 고장 主婦教室會員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智慧와 힘과 기량을 겨루는 親善運動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主婦教室 會員 여러분이 새로운 時代의 價置와 社會의 德目を 일깨우고, 女性運動을 통해서 이를 꾸준히 實踐해 오신 勞苦와 功勞에 대하여 眞心으로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體育大會는 뚜렷한 所望과 目的을 지닌 여러분의 團合이요, 여기에 必要한 슬기와 새로운 能力을 보여주는 한마당 和合의 장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家庭과 社會를 보다 明朗하고 健康한 雰圍氣로 이끄는 原動力은 우리 女性들에게서 비롯되며, 이 밝고 意慾에 찬 社會的 에너지는 곧 地域社會와 國家 發展의 큰 힘으로 昇華된다고 봅니다.

밝은 女性의 웃음, 纖細한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智慧로운 主婦의 力量이야말로 自由와 平和를 指向하는 새 時代 豐饒로운 先進의 길로 가는 새 歷史의 同伴者입니다.

그동안에도 主婦教室 會員 여러분은 우리 나라 女性界가 안고 있는 많은 問題들을 解決하고 改善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들은 子女教育이나 消費者保護事業, 食生活 改善, 貯蓄運動, 女性의 바람

직한 社會參與運動은 그 活動의 領域과 깊이를 더해 왔으며, 그러한 活動을 뒷받침할 수 있는 自己力의 向上을 위한 書藝, 東洋畫, 合唱公演 등 自發的인 參與와 活動으로 모든 女性들의 呼應과 共感帶를 넓혀 왔습니다.

이제 이 運動會를 통하여 여러분의 健全한 精神, 健康한 體力를 바탕으로 앞으로 120여일 밖에 남지않은 88 올림픽을 우리가 成功的으로 開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우기 이곳 大田에서는 서울올림픽의 蹴球競技가 치뤄집니다.

우리 主婦教室 會員들이 앞장서 주셔서 歷史의 고장, 忠節의 고장을 찾아오는 世界 各國 손님들에게 훌륭한 인상을 심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成就해나가는 21세기 主役으로서 斬新한 韓國女性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 뜻있는 運動會를 통해서 여러분의 結束, 主婦教室의 보다 새로운 發展을 기대합니다.

感謝합니다.

第16回 어버이 날

1988 년 5 월 9 일

記 念 辭

오늘 열여섯번째로 맞이하는 어버이날에 즈음하여 우리의 모든 價値와 倫理의 根本이 되는 어버이에 대한 孝道思想을 더욱 宣揚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어느 社會나 國家이든지 그들이 所重히 간직하고 가꾸면서 이를 子孫萬代에 물려주고자 하는 精神遺産이 있어 왔습니다.

저마다 獨特한 個性과 生命력을 지닌 그 精神文化로하여, 한 社會와 民族의 盛衰를 가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겨레는 일찍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꺼리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忠誠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보답하는 것을 백 가지 行實의 根本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어버이가 “소금가마니를 메고 물 속으로 가라 해도 지체없이 행해야 한다”는 귀절이 있는 줄 압니다.

이처럼 絶對的인 명제와 權威를 가졌던 孝道の 崇尚이, 傳統社會의 崩壞와 더불어 激動의 近代歷史를 살아오면서 그 價値의 變化와 實行의 方法도 여러 모로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버이의 뜻을 받들고 기쁘게 헤드림으로써 자식된 道理를 다해야 한다는 理念에는 아무런 變化가 있을 수 없으며, 오늘날처럼 社會的인 德目과 倫理가 흔들리는 時代에는 더욱 所重한 우리의 精神文化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우리는 急速한 產業社會로의 變遷과 人口의 都市集中에서 빚어진 核

家族化現象, 敬老孝親의 傳統的價值觀이 매우 退色되어 있음을 우리가 깊이 認識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夫婦中心, 子女爲主의 家族制度는 急激한 産業化 時代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이 時代의 趨勢이지만, 우리의 어버이들이 子女들과 떨어져 외로움 속에 지내고 계시거나 子女들과 같이 生活하면서도 늘 疎外感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孝道를 物質的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認識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불편없는 衣・食・住生活만이 孝道의 全部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孝行의 根本精神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孝道의 根本은 우리의 어버이들께서 항상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람된 老後를 營爲하도록 자식된 道理를 다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꼭 物質이 必要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眞心에서 우러나오는 精誠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孝道하는 자식이 더욱 돋보이는 所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300 만 道民은 傳統的인 忠孝의 고장에 사는 보람과 矜持를 더욱 宣揚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극한 孝誠으로 오늘 表彰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祝賀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忠南開發賞 施賞式

1988 년 5 월 11 일

祝 辭

싱그러운 5월을 맞아 오늘 忠南開發委員會가 마련한 第7回 忠南開發賞 施賞式에 즈음하여 먼저 榮譽로운 賞을 받으신 여러분께 眞心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의 發展과 地域開發을 위해서 獻身的으로 奉仕하는 한편, 해마다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地域社會發展에 밑거름 役割을 해오신 분들과 孝子, 孝婦 등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을 찾아내어 이처럼 성대한 施賞行事를 마련해 주신 忠南開發委員會 朴浩達 會長님을 비롯한 會員 여러분께 또한 感謝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受賞하신 분들의 成績을 살펴보면 地域社會의 평범한 보통사람으로서 남모르게 地域發展을 위하여 獻身的으로 奉仕하신 분이거나, 불우한 어린이나 靑少年을 돕는 일에 앞장서 오신 분, 또는 死境을 헤매는 한 少女에게 自己生命의 한 부분인 신장을 이식케 하여 한생명을 구해내신 분 등 실로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신 분이며, 혹은 父母의 病患을 극진히 看護하여 주위로부터 稱訟이 자자한 孝子, 孝婦들로서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忠南은 바야흐로 開發年代를 맞아 國家의 中樞管理機能의 一部를 分擔受容하기 위한 大田 大都市圈의 開發과 西海岸時代 開幕에 對備한 西海岸地域의 效果的인 開發, 百濟文化圈의 開發, 그리고 忠南工業化施策의 推進 등 道政發展의 劃期的 轉機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300만 道民들의 團結과 開發意志가 높아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같이 우리 地域의 發展과 道民和合에 크게 貢獻하신 분을 찾아내어 施賞하는 일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施賞은 忠南開發委員會가 會員 여러분의 精誠을 모아드리는 것입니다만 단순한 상으로서의 意味보다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價値觀을 定立시켜 주는 동시에 道民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일로서 이와같은 뜻을 세우신 회원 여러분께 거듭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道의 發展展望은 다른 어느 地域보다도 밝고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의 成敗與否는 300만 道民의 凝集力을 어떻게 創出해 내느냐에 關鍵이 달려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開發利益을 地域社會에 보다 効果的으로 還元시켜 地域에서 產出된 所得이 地域外로 流出됨을 防止하여 地域開發이 곧바로 地域經濟의 自立的 基盤造成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開發委員會가 道民의 開發意志를 集約하여 中央에 建議하는 등 架橋役割을 많이 해오셨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架橋役割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리가 안고 있는 課題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데 先導的役割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受賞하신 분들께서 오늘을 계기로 地域社會에 더욱 밝은 빛을 비쳐 주시고 開發委員會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 여러분의 幸運을 빌면서 祝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第7回 스승의 날 記念式

1988년 5월 13일

激 勵 辭

오늘 張基成 教育監님을 비롯하신 우리 고장의 教育家族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이신 가운데, 일곱번째로 스승의 날 記念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教育의 環境 속에서도 오직 2世의 가르침이라는 높은 뜻 하나를 세워 平生을 몸바쳐오신 선생님들의 크신 勞苦에 대하여 道民과 더불어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찌기 우리 선조들은 君・師・父一體라 하여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恩惠를 나를 낳고 기르고 가르쳐주신 부모님과 똑같이 섬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恭敬의 對象으로 삼아왔습니다.

더우기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이러한 教育의 德目を 그 어느 고장보다 崇尚하고 實踐해온 學問과 禮節의 고장으로서는 훌륭한 스승들이 많았기때문에 수많은 先賢과 偉대한 人物들을 排出시켜온 教育의 고장으로 그 빛나는 傳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産業社會로의 급격한 變化를 겪으면서, 우리의 傳統的 教育觀 위에 새로운 理念과 制度가 確固하고, 成熟되지 못했다는 걱정도 없지않은 이때, 우리 고장의 선생님들이 보다 앞서가는 2世教育의 先進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教育이 보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確固한 體系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제자들에게서 尊敬받는데 그치지 않고, 社會全體로부터 尊敬과 喜慕의 對象이 되는 教育者 우대의 環境造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가 오늘날 世界올림픽을 주도하고 先進國들과 어깨를 나란히 人類歷史 創造의 主役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원인도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힘이 그 原動力이었다고 봅니다.

이 社會와 國家의 밝은 앞날과 子孫萬代의 繁榮을 위해서는 훌륭한 人材를 많이 길러야 하며, 그 人材는 오직 선생님들의 가르침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오늘날 世界의 정세는 무모한 對立과 紛爭을 止揚하는 和解와 共存의 길을 모색하려는 氣運이 가득합니다만, 그 대신에 國家와 民族의 利益과 繁榮을 지키려는 智慧와 國力の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世界의 生存競爭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智慧로운 사람들을 길러내는 길밖에 다른 方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競爭에서 이기기 위한 知識만이 아니라, 따뜻한 人間性を 지닌 全人教育의 強化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스승과 제자간의 사랑과 尊敬이 오가는 教育의 雰圍氣로부터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情을 나누는 밝고 明朗한 社會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理想이요, 궁극적인 目標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지난날 선생님들과 같이 敎壇에 섰던 鄉愁를 담아 “스승 尊敬 運動”을 汎道民運動으로 展開해오고 있습니다.

이 스승 尊敬運動을 통해서 먼저 우리 公職者와 指導層이 앞장서 선생님을 받들고 모시므로써 스승이 權威를 되찾고 教育이 더욱 所重하게 認識되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恭敬받는 社會, 가르침이 중요시되는 時代에서 教育은 더욱 崇尚될 것이며, 教育이 잘되면 나라 또한 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스승尊敬運動을 어른 알아보기 運動과 함께 倫理와 道德을 되찾기 위한 道民精神 啓蒙事業으로 더욱 發展시켜나갈 생각이오니 선생님들의 많은 指導, 聲援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계신 모든 教育家族 여러분과 함께 學校와 家庭과 社會가
다함께 教育을 所重히 하는데 모든 努力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오
늘 2世教育에 크신 功勞로 賞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慰勞와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國際라이온스協會 309E地區 第11回 年次大會

1988년 5월 14일

祝 辭

오늘 大自然에는 新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變化와 意慾이 가득찬 가운데 國際라이온스協會 309 E지구의 열한번째 年次大會가 이곳 한발에서 베풀어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더우기 309 E지구 라이온 여러분은 지난해에 創立 10周年의 나이테를 그으며 奉仕와 業績의 10年史를 發刊하는 등 한時代의 結實을 거두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하나의 10年을 向한 힘찬 出發이라는 뜻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0여개의 傘下클럽과 4,000여 라이온, 그리고 라이오네스를 거느린 여러분의 堅固한 組織과 活氣찬 活動은 이 地域社會發展에 있어 크나큰 기대와 希望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意慾과 創造, 個性과 奉仕가 더욱 要請되는 自由와 平等, 그리고 平和와 成就의 民族自尊時代에서 함께 땀흘려 일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成長과 跳躍을 性急하게 追求하는 過程에서 때로는 서로가 意見을 달리하고 對立을 빚기도 했지만 오늘의 時代는 智慧로운 한사람의 이상이나 能力있는 몇 사람의 意見에 따라 이 社會나 國家가 영위될 수는 결코 없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天才 한사람의 妙案보다 열 사람의 衆知가 낫다” 고 하는 귀절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意見을 傾聽하고 對話와 討論을 통해서 얻

어진 좋은 結論을 우리모두가 끝까지 實踐하고 보람을 얻는 社會의 價値觀 定立이 그 어느때보다도 必要한 지금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고장에서도 가장 知性的이고 指導的인 役割을 다하고 계신 라이온스클럽 會員 여러분이 衆知를 모아 協助와 團結과 和合의 金子塔을 세워가는 길이 더욱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時代, 더불어 創造하는 오늘의 歷史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眞實된 信念과 努力, 보람과 結實의 總集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參與한 年次大會에는 여러 가지 알찬 目標과 다채로운 課題가 있는 줄 압니다만 그 모든 課題들이 우리 300 만 道民에게도 함께 땀흘려 準備하고 거두어야 할 보람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120 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서울올림픽입니다.

때로는 모진 試鍊과 難關을 克服하면서도 5,000年の 의연한 民族史를 가꾸어 오늘에 이른 우리 겨레, 이제 世界人類歷史의 그 막을 올리는 첫장이 바로 88 서울올림픽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 所重한 서울올림픽이 우리가 渾身의 힘을 기울여 準備하고 點檢하고 기다리는 것 또한 너무나 기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곳 한밭벌에서는 올림픽의 蹴球競技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300 만 道民이 精誠들이는 올림픽에 있어서도 라이온 여러분이 앞장서서 우리 道民을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서울올림픽이 世界人의 찬사 속에 成功되는 날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所望하는 大望의 西海岸時代는 바야흐로 이 5月の 新綠처럼 꿈이 아닌 현실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을 현실로 바꾸는데 先導的 役割을 다해 주실 이동찬 總裁님을 비롯한 라이온 여러분의 榮光과 幸運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第13回 道民 募金 걷기大會 朝餐모임

1988년 5월 17일

激 勵 辭

오늘 南在斗 道民 募金 걷기대회장님, 여러 機關・社會・團體長님, 實業界 人士 여러분이 參席하신 朝餐會가 매우 뜻깊고 또한 感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朝餐모임은 이번週 土曜일에 있을 豫定인 道民 募金 걷기大會에 보다 많은 後援 人士들의 參與와 그 보람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압니다.

올 해로 이 뜻깊은 募金 걷기大會는 벌써 열세번째를 거둬들이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社會福祉事業에 대한 理解와 參與, 사랑과 보람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今年の 걷기 募金은 우리 고장의 障礙者 올림픽 出戰 選手와 福祉施設 支援, 그리고 零細民, 心臟 疾患者를 위해서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에는 7萬餘 障礙者들이 있고 63個所의 社會福祉施設, 그리고 스스로 治療할 수 없는 心臟瓣膜症患者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關心과 精誠, 따스한 사랑과 支援이 그들에게는 一生을 左右하는 希望과 勇氣를 부어주고 또 再起의 삶을 누리는 決定的 契機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기쁨 속에 障礙者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람을 찾는데 여러 指導級 人士들과 企業人 여러분이 積極 參與해 주시고, 또 周圍를 啓蒙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걷기大會에 參與하여 흘린 보람의 땀 한방울이 저들 障礙者와 도

움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生命의 新鮮한 땀방울로 변진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本道에서는 10 名의 選手들이 서울 障礙者 올림픽에 出戰하기 위하여 오는 25 日부터 合宿訓練에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勝利와 幸運, 그리고 우리 고장의 名譽가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더불어 祈願합니다.

이 뜻깊은 行事を 準備해 주신 募金 걷기大會 本部 任員 여러분에게 感謝드리며, 이 걷기運動을 主催하시는 大田日報社와 韓國어린이財團 忠南支部, 忠南社會福祉協議會, 大田 YMCA 人士 여러분에게도 거듭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第18回 全國工藝品競進大會 忠清南道地方豫選大會 施賞式

1988년 5월 18일

致 辭

오늘 郷土의 情趣와 生活藝術이 아름답게 調和된 優秀工藝品の 競進大會를 갖고, 그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先祖로부터 물려받은 傳統美와 審美眼을 日常生活에 昇華시키고 보다 發展시키려는 目的으로, 次元높은 工藝品の 生産과 商品化를 위한 이 競進大會를 거듭한지가 벌써 열 여덟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 工藝品 競進을 통해서 發掘되고 現在 優秀한 商品으로 널리 사랑을 받는 工藝品이 참으로 많습니다.

個中에는 進路를 海外市場으로까지 넓혀 國際的인 聲價와 効用性, 그리고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는 民間外交의 몫을 톡톡히 하는 商品도 있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精神的 物質的 文化이든 또 우리의 日常生活에 必要한 實用物이나 嗜好品이든 항상 變化하고 새로운 것을 摸索하기 때문에, 한 時點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것은 곧 停滯와 退步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傳統文化的 保存이나 育成도 옛것을 그대로 固守하거나 踏襲하는 것이 아니라 그 傳統과 基本을 土臺로 하여 바람직한 것을 調和시키고 새로운 價値와 効用을 極大化시킬 때 그것이 곧 眞情한 意味의 保存이요, 生命력을 갖는 發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優秀한 工藝品을 創作하고 改善하여 서로 견주어 보는 것도,

오늘의 成就에 滿足하지 않고 날로 多樣해지는 顧客들의 嗜好와 要請에 앞서
가고, 더 많은 顧客을 誘致하기 위한 藝術商品의 質的 向上과 그 經濟性的 追
求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올 해는 서울올림픽을 불과 110 餘日 앞두고 갖는 工藝品의 展示會
에서 우리가 만든 實用性있고 藝魂이 깃든 물건을 많은 廣告費를 投資하지 않
고도 앞서서 國際商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機會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고장을 찾아 오는 世界 各國의 많은 觀光客들에게 우리의 悠久한 歷
史와 格調높은 文化 그리고 삶의 眞實한 모습이 담긴 水準높은 工藝品을 선
보일 때, 우리는 힘 안들이고 참된 韓國, 그리고 韓國人의 모습을 그들의 가
슴에 永遠히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生活도 漸次 潤澤해지고 餘裕가 있게 되므로써, 비단 生活用具
로 使用하기에 便利한 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보아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工藝品의 需要가 매우 빠른 速度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分野에 關心있
는 사람들의 意見입니다.

때문에 우리 고장에서 生産되는 工藝品은 國內外를 網羅한 폭넓은 顧客, 多
樣한 効用과 韻致, 그리고 高度의 商品性を 고루 갖춘 優秀한 商品價値를 지
니도록 이 分野 事業家 여러분의 努力을 크게 期待하는 바입니다.

오늘 훌륭한 作品을 出品하여 受賞의 榮譽를 차지한 여러분에게 祝賀를 드
리면서, 그동안 審査를 맡아주신 여러분, 後援을 아끼지 않으신 李種完 大田商
工會議所 會長님께도 깊은 謝意를 표합니다.

感謝합니다.

西海岸 時代의 開幕과 忠南의 座標

1988년 5월 18일

特 講

오늘 우리 고장의 中樞的인 象牙塔의 殿堂에서 地域內 各분야에 걸쳐 指導的 位置에 있는 여러분들을 직접 뵙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社會科學 전반에 걸친 새로운 理論과 실재를 科學的方法으로 모색, 專門性과 獨創性을 지닌 地域社會 指導者 및 專門行政家를 養成함으로써 우리 고장 發展에 크나큰 寄與를 해오신 大學院 教授님들께 깊은 感謝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자기 成就와 社會公益에 몰두하시면서도 激變 激動하는 社會環境에 能動的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새로운 지식의 등불을 밝히시는 여러분의 勞苦와 向學熱에 대하여 敬意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많은 障礙와 試鍊을 忍耐와 슬기로 헤치고 安定과 和合을 다지며 世界의 舞臺를 向해 큰 나래를 펴는 뜻깊은 時代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規制하는 政府, 君臨하는 權力, 權威主義의 統治는 사라지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民主化, 自由化, 自律化의 큰 흐름 속에 동아시아의 邊方國家에서, 世界의 中心國家로 뛰어오를 民族雄飛의 希望찬 새 時代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跳躍의 黎明期를 맞아, 이 時代를 사는 우리 모두는 큰 自負와 矜持를 가슴뿌듯이 새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經驗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挑戰과 課題, 그리고 選擇과 役割로 우리의 民族史를 새롭게 記錄해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責任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歷史的인 狀況展開에서, 특히 우리 地域과 가장 密接하게 關聯되는 하나의 흐름을 把握, 그 變化의 速度와 方向에 대한 認識을 가다듬고, 우리의 座標 設定에 대한 하나의 共感帶를 形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社會의 內陸地方 패턴이 점점 海洋 指向的 社會로 變貌해가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는 世界 10大交易國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世界 4大造船國隊列에 올라서 있습니다.

本來 우리 나라는 海洋半島國家입니다만, 섬나라가 아니면서 世界的으로 가장 긴 海岸線을 가진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일찌기 그리스문명은 “에게海”에서 海洋文明의 꽃을 피웠고, 로마는 地中海를 制覇함으로써 世界帝國을 建設할 수 있었으며, 이베리아반도에서 出現한 無敵艦隊도 바다를 席卷함으로써 스페인을 大帝國으로 隆盛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류백제와 장보고의 청해진에 관한 記錄이 西海岸을 舞臺로 한 海洋王國의 꿈을 잠시 전에 전해 줄뿐, 우리의 歷史를 통하여 바다를 敬遠하고 半島國家로서의 民族的 氣像을 살리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倭寇 등 海洋勢力으로부터 犧牲을 강요당하는 쓰라린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光復이후 지난 4半世紀 동안은 東南海岸 工業벨트가 經濟開發의 中樞的 役割을 擔當함으로써 겨우 海洋에 대한 새로운 活力素를 찾았으나, 西海岸은 相對性있는 竹의 장막으로 脫出口를 찾지 못한채 거의 방치되다시피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精密電子와 生物工學이 核心을 이루는 情報化時代가 到來함에 따라, 특히 空氣 좋고 氣候가 溫和하며 아름다운 多島海를 낀 西海岸 地域이 最適地로 浮上하게 되었고, “고양이는 쥐만 잡아주면 되는 것이지 그 색같이 희건 검은 상관없다”는 이른바 登小平의 백묘론(白猫論)에 의한 거

센 對外開放의 大陸風은 우리 西海岸 開發의 실마리를 푸는데 커다란 모멘트를 주는게 사실입니다.

더우기 保護貿易主義로 치닫는 西歐 先進國과 달리, 蘇聯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라는 改革政策은 東區圈과 印度支那, 공산국의 經濟交流 慾求를 부추김으로써, 怒濤와 같은 太平洋時代의 물결이 西海岸의 波高를 드높이기에 충분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報道된 바에 의하면 이미 우리 韓國과 雙方間에 貿易事務所를 開設해 놓고 있는 헝가리와 유고의 경우 오는 6月中엔 서로 産業視察團을 交流하고 大規模 商品展示會와 民俗競演놀이를 펼치기로 豫定되어 있어, 西太平洋을 中心으로 한 東西間의 대탕트 霧圍氣를 더욱 增幅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世界史의 軸점은 大西洋으로부터 太平洋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西海岸時代는 이미 開幕段階를 넘어 成熟段階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政府에서도 最近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西海岸開發推進委員會를 構成 國家政策의 次元에서 西海岸時代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自畫自讚 같습니다만, 사실 저는 지난해 1月 故鄉의 道知事로 赴任해 오면서 그 一聲으로 “앞으로 國土開發의 基調는 西海岸의 開發에 있다”고 천명하고 “大田圈의 國土中核都市開發과 함께 西海岸時代를 열어 忠南時代를 創造하겠다”고 宣言한 바 있습니다.

즉, 1年 먼저 西海岸時代의 旗幟를 높이 들고 道 自体的으로 綜合開發計劃을 구상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토대로 專門學術團體를 통해 構想內容을 修正, 補完, 檢討하는 등 본격적인 計劃 樹立에 拍車를 加하고 있습니다.

大統領께서도 初度巡視時 저희 道의 開發構想에 깊은 關心을 가지시고 國家次元에서 이를 受容 開發할 것을 약속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時代의 潮流에 따라, 우리는 西海岸時代의 核心地域으로서 과연 앞으로 어떠한 戰略에 의해 接近해 갈 것인가 하는 問題를 解決하여야만 할 時代的 當爲性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직 구체적인 靑寫眞이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西海岸時代의 讚美에 따라 우리의 달라진 모습과 未來像을

조심스럽게 構圖해 볼 必要性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問題의 認識과 解答의 出發點은, 우리의 開發與件을 잠시 뒤돌아봄으로써 실마리를 풀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道의 西海岸 地域은 전체 西海岸의 要衝地로서 많은 地理的 利點을 안고 있습니다.

首都圈 機能의 분담지역으로서, 무엇보다도 中共大陸과 가장 가까운 位置에 있습니다.

釜山과 濟州間이 330 km로서 카페리호로 12時間 동안의 거리인데 비하여 瑞山 안흥항으로부터 中共 山東半島까지는 354 km로서 카페리호를 타면 불과 12시간 40분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5月16일자 人民日報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中共이 山東半島를 中心으로 하여 中共 全體面積과 人口의 3분의 1에 달하는 地域을 經濟開放區로 確定시켰다는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大陸과의 거리를 더욱 지척간으로 단축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海岸線이 직선거리의 10배에 달하는 992 km의 리아스식해안으로 牙山, 保寧, 大山 등 수심이 깊은 港口가 많아 海外交易에도 매우 有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車嶺山脈을 뒤로 하고 있는 海岸內陸에는 표고 100 m이하의 低山性 平野지대가 발달해 있고 대단위 干拓 可能地가 많아 저렴한 가격으로 광활한 開發敷地를 確保할 수 있는 強點도 있습니다.

더우기 大德研究團地와 淸州國際空港, 그리고 首都圈과의 近接性은 他地域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忠南 西海岸의 開發與件은 西海岸時代가 要求하고 있는 條件을 모두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有利하다고 結論지을 수 있습니다.

道에서는 이와같은 天惠의 開發 立地條件을 살려 이 地域을 西海岸 時代의 선도지역으로 가꿔간다는 目標 아래, 一時的인 政策 次元이 아니라, 새로운 忠南時代를 創出한다는 대승적인 次元에서 對內外的 變化에 積極 對應하고 있습니다.

먼저, 大田市가 直轄市로 昇格되긴 하겠으나, 大田 大都市圈을 國家行政機能 受容의 中心都市요, 未來産業의 中心都市이며 快適하고 아름다운 田園도시이면서 살기 좋고 豊饒로운 福祉都市로 跳躍시키기 위한 計劃을 樹立중에 있습니다.

특히 230 만평의 屯山 新市街地 開發事業은 世界 어느 都市에도 비교될 수 없는 行政타운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며, 大德研究團地 2次地區 開發은 역시 美國의 실리콘벨리나 日本의 테크노폴리스를 凌駕하는 世界的인 尖端科學技術基地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또 都市基盤施設과 生活 便益施設을 未來感覺에 알맞게 배치하여 市民 대다수가 安定된 生活을 누리도록 하고, 中心地區內의 人工湖水公園과 어린이大公園 造成 등으로 늘 푸르르고 景觀이 좋으며, 인상깊은 都市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大田直轄市 昇格에 따른 새로운 “忠南圈”의 定着에 注力하면서, 우선 百濟文化圈 開發에 보다 많은 關心과 努力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開發이 未洽했던 것이 사실이나, 政府의 特別配慮에 의해 今年부터 앞으로 5個年 동안 집중적인 支援으로 文化財整備事業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觀光 開發도 병행해서 慶州에 못지않는 百濟古都文化 觀光地로 發展될 展望입니다.

또 忠南의 젓줄인 錦江에 대한 綜合開發의 着手로 風水害의 根原的 防止는 물론 살아숨쉬는 새물결이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 찬연히 빛나는 百濟文化를 되살리고 榮耀로운 民族魂을 소생시키는 開發의 章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車嶺山脈 西北部地域의 새로운 定住체계의 確立을 위해 天安, 溫陽圈과 瑞山圈, 大川・洪城圈 등 3個地方 都市生活圈을 設定하고, 각 地方 都市生活圈의 特性에 따른 機能 분담과 自生的 當爲로서 社會, 經濟, 文化圈을 형성하도록 開發을 해나간다는 構想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정주체계의 確立을 위하여 海岸을 따라 이어진 中小都市들을 연결하여 “진주목걸이”로 비유되는 地域統合의 軸을 형성하며, 이질적 空間끼리의 상호 連繫性を 높여 공간적 분업을 통한 機能連繫과 함께 近接의 效果, 規模의 經

濟를 獲得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工業化의 劃期的인 推進을 통하여 찬연한 西海岸 時代의 旗手로 나서고자 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道의 경우 1次産業의 비중은 일등히 높은 반면, 2次産業 分野는 크게 脆弱하였습니다.

그러나 最近 工業化가 急速度로 進行되고 있어 産業構造面에 있어서 1次産業으로부터 점차 2次産業으로 變化되어가고 있습니다.

首都圈과의 近接性 등 여러 가지 유리한 工業 立地여건을 갖추고 있어 全國에서 가장 많은 農工團地 入住希望業體가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을 選別的으로 받아들여 現在 31個 地區에 110萬坪을 指定, 活潑하게 推進되고 있고 수년내에 50개地區 430萬坪 정도로 擴張될 展望입니다.

뿐만아니라, 牙山工團 130萬坪을 비롯한 아산항 臨海工團, 이미 極東石油 가 竣工을 앞두고 있는 대산항 중심의 193萬坪 임해공단, 장항 産業基地內의 3,000萬坪에 達하는 大規模 임해공단 등을 着實히 造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人體의 循還系와 같은 수송체계의 유기적 確立과 用水問題의 解決을 위해 아산, 대산, 보령, 장항 등 大規模 港灣의 開發은 물론 瑞山-洪城-靑陽-公州-大田을 잇는 東西 貫通道路를 비롯하여 禮山-靑陽-장항을 잇는 南北貫通道路, 태안반도를 循還하는 西海岸 産業觀光道路에 의해 그물형 交通網을 형성하고, 工業用水와 生活用水의 供給은 大淸湖, 禮唐湖, 插橋湖, 瑞山 A,B 地區 등의 大單位 干拓地 淡水湖의 물로도 充分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觀光地의 開發은 既存의 瑞山海岸國立公園을 중심으로 “忠南의 하와이” 안면도를 濟州道보다 뛰어난 새 차원의 명소로서 世界的인 休養地로 가꿔 나가며, 內陸의 先烈遺蹟 觀光圈 및 百濟古都 遺蹟觀光圈과 有機的으로 連繫 開發하고, 헬기 觀光 또는 快速遊覽船을 통해 插橋國民觀光地 船着場으로부터 태안반도를 巡廻하여 錦江河口堰을 거쳐 百濟古都 觀光圈으로 進入할 수 있는 觀光 루트를 構想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안흥항과 大川 鴻源항을 漁業前進基地로 開發하여 隣近地域의 養殖 漁業을 最大한 支援해서 날로 늘어가는 水産物의 需要를 充當하고, 流通體系

確立을 위하여 圈域別 流通中心地와 流通센터를 建立하며, 天安의 거봉포도와 호도, 禮山의 사과, 洪城의 畜産業, 靑陽의 구기자와 표고버섯, 한산의 모시 등 主要 特産物의 作付體系를 確立하여 이 地域의 工業發展 圖謀는 물론 觀光農場 海 양목장 등의 農水産物 觀光을 이루는데 까지 우리의 構想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고장은 머지않아 交通, 觀光, 工業, 農業, 文化의 중심지로서 나라의 노른자위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道民의 生活모습도 先進國의 선진도민으로서의 文化生活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目標年度인 2,000년에 가면 1人當 所得이 現在보다 약 3배 以上 增加하고 90% 이상이 내집을 마련하며, 100% 上下水道의 惠澤을 받게 되고 地方道도 100% 鋪裝될 것이며, 3가구당 2대꼴로 自動車를 保有함으로써 道民모두는 便利한 生活環境 속에 潤澤한 삶을 누리게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결코 꿈이 아니라 現實로 이미 우리의 目前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지표상의 物質的 生活安定과 便宜 外에 우리 道民은 서로의 權利와 人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約束을 지키며 예의를 바르게 하고 보다 높은 文化, 教養, 知識을 쌓아올려 “忠節의 고장” “禮節의 고장” 後裔답게 國家의 대들보로서 國家發展의 主役을 擔當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未來像을 實踐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는 특히 모든 開發의 主體를 道民으로 보고, 住民 意思의 上向的 收斂으로 接近해 가고자 하며, 開發과 保存의 問題를 적절히 調和시켜 開發에서 오는 利益과 保全에서 오는 利益이 全體의으로 極大化되도록 하고, 부동산投機를 警戒하며, 地域産業의 構造를 高度化하고 地域水準을 형평화하는데 보다 많은 關心과 努力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여건과 環境을 갖추고 정교한 戰略을 準備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꾸고자 하는 人間의 땀과 努力이 함께 投入되지 않는다면 所望스런 結實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범한 眞理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歷史가 自然的으로 우리의 편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젖기보다는, 그 歷史가

우리에게 기쁨과 幸福을 줄 수 있도록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智慧와 힘을 결집시킬 때만이 우리가 指向코자 하는 우리의 비전을 豐饒롭게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이 指導的 位置에 있는 분들의 獻身的인 努力과 能動的인 參與는 새로운 歷史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큰 原動力이 될 것입니다.

분명 “21세기의 뉴프런티어(New Frontier)”를 알리는 西海岸 時代의 힘찬 새 고동은, 淸風明月의 골마다 太古의 靜寂을 깨뜨리었고, 기지개를 켜 道民의 開發意志가 좀더 역동적으로 行動化하기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지금시간은 우리의 편, 남은 것은 空間의 選擇입니다.

空間의 選擇은 우리에게 주어진 權利요, 課題입니다.

忠南人의 핏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忠節과 信義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道民이 슬기로운 智慧와 아낌없는 努力으로 “西海岸 時代” “忠南 時代”의 隊列에 다같이 同參할 때, 우리 고장은 統一된 先進祖國과 함께 한층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며 기름진 땅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所重한 時間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저의 所見을 피력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大學院 측에 感謝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公私間에 多福하시고 더 높은 知性和 眞理의 꿈을 쌓으시길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第6回 全國地方演劇祭 리셉션

1988년 5월 19일

인 사

오늘 저희 고장 大田을 찾아주신 全國의 演劇藝術人 그리고 演劇을 사랑하고 聲援해 주시는 후원인사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큰기쁨으로 생각하며 道民과 함께 眞心으로 歡迎합니다.

全國 演劇祝典이 開催地域을 달리하면서 格調높은 演劇舞臺를 마련한 것이 올해로 여섯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오로지 演劇이라는 외길로 藝魂을 불살라 오신 演劇人 여러분, 아낌없는 支援을 베풀어 주신 文公부와 韓國文化藝術振興院, 韓國演劇協會 또 지난해까지 全國演劇祝典이 베풀어지도록 애써 주신 각 市道의 關係者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섯번째의 全國의 演劇行事이지만 저희 道에서 갖는 것은 처음이어서, 일부 行事의 準備과 뒷받침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또한 부족한 점은 仔細한 指導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며칠전 TV 뉴스를 보는 중에 저는 참으로 感動的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異域萬里 中共땅, 8億의 人口中에서 選拔된 大衆歌謠競演의 決選에서 우리의 교포처녀가 나란히 2位와 3位에 입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大衆藝術이긴 하지만, 하나의 大陸을 차지한 땅덩어리와 人口를

가진 큰나라의 소수민족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民謠 “아리랑”을 과시하는 장면은 정말 자랑스럽고 感動的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느낀 것은, 藝術의 크나큰 힘, 文化의 偉大함과 그 影響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民族보다도 多樣的 藝術과 정서를 즐기는 우리, 더욱 律動的이고, 活動的인 藝術을 사랑하는 우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論할 必要가 없을 것입니다.

이 全國演劇祭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舞臺藝術의 새로운 경지를 開拓하고 觀客을 確保하며, 다른 藝術分野의 장르를 先導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부디 오늘 祝賀公演으로 그 막을 올린 全國의 演劇祝典 한마당이 이곳 大田은 물론, 全國藝術人들의 시선을 모으고 아울러 演劇 中興의 起爆劑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저희고장을 찾아주신 이 계제에, 여러 歷史遺蹟과 觀光名所, 그리고 새로운 跳躍의 모습을 두루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扶餘, 公州를 중심으로한 百濟文化圈과 獨立記念館, 溫泉, 古刹 등이 많은 觀光의 고장입니다.

또 西海岸 時代의 중심지가 될 부푼 希望도 지니고 있습니다.

모쪼록 고장에 머무시는 동안 健康하시고 평안한 日程이 되시길 빕니다. 感謝합니다.

第6回 全國地方演劇祭

1988년 5월 20일

歡 迎 辭

오늘 여섯번째의 全國演劇祝典이 우리 고향 한밭에서 그 막을 올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忠南道를 찾아오신 全國 演劇人 여러분, 藝術을 사랑하는 同好人, 後援人士 여러분에게 뜨거운 歡迎의 말씀을 드립니다.

人類의 紀元이 시작된 太初로부터 우리의 祖上들은 손짓과 발짓으로 삶의 실제 演劇, 다시말하면 몸전체로 표현하는 演劇的인 言語가 존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文明이 高度로 發達하고 複雜해진 오늘의 시대에도 “地球는 舞臺이고 人生은 演劇이라”는 뜻으로 人間의 삶을 갈파한 有名한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활도 어찌면 연습없이 단 한번의 公演이라는 絕對絶命의 演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可能的 世界라는 演劇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生活을 反芻하고 反省하며 정리해 보는 敎訓的 藝術이 바로 全國의 演劇人들께서 刻苦 精進하여 오늘 舞臺에 올리는 演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演劇藝術이 多樣的 影像媒體의 등장으로 인하여 斜陽화의 길을 걷지않나 하는 한때의 걱정도 있었읍니다만, 그 影像媒體는 演技者와 觀覽客 사이의 진정한 호응과 感動面에서 演劇에 비하여 未洽하기때문에 그 걱정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全國演劇祝典과 같은 綜合藝術에 대한 뜨거운 열기, 國民的

인 聲援, 그리고 演劇人 스스로의 活氣찬 努力이 어울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장만 해도 學生과 一般 市民들 사이에서 多樣한 演劇活動과 小規模 演劇空間의 多數 確保는 매우 바람직한 現像이며 이러한 趨勢가 全國的인 傾向이라 하니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의 우리가 經濟, 社會, 教育, 文化, 福祉 등 모든 面에서 格差와 疎外가 없는 고른 惠澤과 滿足を 目標로 하는 民主 先進社會를 建設해 나가는 때인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全國演劇祝典이 주는 意味는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분야에서 地方과 서울이 따로 없는 均衡과 平衡, 그리고 平等과 民主時代의 價値를 우리 綜合 藝術人 演劇人이 先鋒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演劇人 여러분의 智慧와 슬기로 올려지는 이 舞臺는 文學, 美術, 音樂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되고 調和를 이루는 藝術의 집대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대와 召命을 안고 여러 고장에서 오신 여러분의 좋은 演技를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는 誠意를 다하여 準備의 한부분을 맡았으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忠告를 주신다면 더욱 잘하라는 激勵로 알겠습니다.

이 演劇의 祝典을 위하여 指導와 聲援을 베풀어주신 여러 藝術團體 그리고 後援 人士들께 다시한번 感謝의 인사를 드리면서 歡迎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感謝합니다.

第23代 忠淸南道知事 離任式

1988년 5월 20일

離任辭

오늘 公務員 同志 여러분 앞에 떠나는 作別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1年4個月前 故鄉의 同僚, 先・後輩 여러분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자는 다짐의 자리에 섰을 때는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期約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만날 때는 헤어짐의 始作이고, 헤어질 때는 다시 만난다는 期約이 우리네 人生의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本人이 떠나는 이 마당에서 지난 1年餘 그리고 그 以前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맺은 깊고 끈끈한 情分이 새삼스럽습니다.

그 어려운 구비구비를 여러분과 더불어 智慧를 짜내고 힘을 모으고 忍耐했던 지난 일들이 走馬燈처럼 돌이켜집니다.

솔직히, 지난 1年4個月 道知事로 일한 期間이 人爲的으로는 우리가 줄이고 늘릴 수 없는 一定한 時間입니다만, 그 期間 안에 일어났던 갖가지 엄청난 變化와 激動은 10年의 그것에 버금하는 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所懷와 隔世之感은 비단 나 혼자 뿐만이 아니라 萬難을 克服한 公務員 同志 여러분, 아울러 300萬 道民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가 適切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亂世일수록 強靱한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國家的으로 社會的으로, 특히 같은 이 時代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忠

南道民이 겪은 昨年 한 해는, 眩氣症이 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激動의 거듭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時點에서 이를 모두 克服한 여러분은 물론, 道民 모두가 強靱하고 슬기롭고 지칠 줄 모르는 작은 英雄들입니다.

그 격한 물살의 影響은 아직도 現實 狀況 속에, 우리 周邊에서 繼續되고 있습니다.

지우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 지난 일들, 本人이 赴任하자마자 터진 성지원 事件, 傷處가 조금 아무는가 하더니 밤과 낮이 없던 學生들의 騷擾, 6·29 宣言을 分水嶺으로 한숨을 쉬기도 전에 타오른 勞使紛糾, 五大洋 事件,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꿈에도 잊지 못할 우리 고장에 거듭한 네차례의 水害, 이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父母, 兄弟, 妻子를 濁流에 빼앗겨버린 서러움도 사무치는데, 당장 먹고 입고 잠잘 곳이 없어 아우성치던 그 阿鼻叫喚의 수라장에서 여러분과 나는 水害民을 부들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흙탕물에 쓰러진 나뭇가지라도 잡고 일어나 再起의 삼질, 살아야 한다는 삶의 畏敬앞에 우리는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돌구덩이 흙더미로 뒤덮혔던 집터와 논과 밭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 씨뿌리고 가꾸는 것을 보고 떠나는 이 마당에 아무런 後悔도 未練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든 旱害克服史를 제게 한卷 보내 주시면, 그 苦難과 보람과 追憶과 사랑과 忍耐와 여러분의 뜨거운 情을 내 人生을 다하는 날까지 간직할 것입니다.

公務員 同志 여러분!

故鄉의 先·後輩, 그리고 同僚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勤務하다가 全北 副知事로 가면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地方行政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고” 이
。 제는 정말 새롭게 姿勢를 가다듬고, 工夫하고, 迅速하게 未來에 適應하지 않고

는 公務員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도, 새로 오시는 沈大平 知事님이나 여기 남아 계신 李鳳學 副知事님은 모두 우리 고향이 낳은 正統派 內務行政의 엘리트입니다.

앞으로 두분의 뜻을 받들고 힘을 합쳐 다가오는 西海岸의 時代, 떠오르는 忠南의 年代, 先進韓國의 核心고장을 後悔없이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韓陽洙 물러갑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이 韓陽洙는 人生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잊을 수 없는 나날들을 永遠히 간직할 것입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 그리고 道民들에게 대신 떠난다는 인사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感謝합니다.

離任 人事

1988 5월 20일

書 翰

떠나올 때는 변변한 인사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고 부덕한 제가 故鄕의 道政을 맡아 일하는 동안 각별하신 聲援과 鞭撻을 베풀어주신 점 깊이 感謝드립니다.

돌이켜보면 在任期間은 불과 1年 4個月 남짓하지만 그 짧은 期間에 있었던 변화와 격동은 실로 10年과 비교되는 벽찬 나날이었습니다.

赴任한 그날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減私奉公의 一念으로 열심히 뛰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과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의 忠南은 그 모든 激浪을 슬기롭게 헤치고 다가오는 西海岸의 時代, 祝福받는 고장으로 希望에 차 있습니다.

늘 저를 아껴주셨고, 또 道政을 聲援해 주셨던 그 恩惠, 고마우신 뜻은 永遠히 간직하겠습니다.

부디 健康하시고 댁내 平安하심을 비오며, 우선 몇자 글월로 인사드립니다. 感謝합니다.

韓陽洙知事演說文選集

1988 年 12 月 日 印刷
1988 年 12 月 日 發行

發行：忠 清 南 道
編輯：文化公報擔當官室
印刷：協 成 文 化 社

〈 非賣品 〉

CHUNG CHEONG NAM - DO



AM001022